

하인리히 빌과 행복 사회



# 하인리히 빌과 행복 사회

공선옥 · 곽정연 · 사지원

서용좌 · 안은영 · 원윤희

이화경 · 정인모 · 정찬종 · 최미세 지음

한국문화사

## 하인리히 벨과 행복 사회

1판1쇄 발행 2017년 12월 20일

지 은 이 공선옥·곽정연·사지원·서용좌·안은영·원윤화·이화경·정인모·정찬중·최미세  
펴 낸 이 김진수  
펴 낸 곳 **한국문화사**  
등 록 1991년 11월 9일 제2-1276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 IT캐슬 1310호  
전 화 02-464-7708  
팩 스 02-499-0846  
이 메 일 hkm7708@hanmail.net  
홈페이지 www.hankookmunhwasa.co.kr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구매처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ISBN 978-89-6817-579-4 9385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33332)

## ■ 서문

2017년은 독일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하인리히 뵐의 탄생 1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하인리히뵐학회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이 책은 그 기획의 일환으로 한국하인리히뵐학회 회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사유하고 토론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우리 학회는 “독일의 양심”이자 “행동하는 지성인”이라 불리는 하인리히 뵐의 정신을 알리는 작업을 몇 년 전부터 기획하고 실행해왔다. 그 노력의 첫 성과는 『폭력을 관통하는 열 가지 시선』이라는 저술이다. 당시 우리는 ‘우리 사회의 행복을 파괴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것은 ‘폭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었다.

우리는 ‘하인리히 뵐의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는 그가 작가로서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평생 간절히 원했던 ‘것’을 독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자는데 합의했다. ‘그것’은 “행복”,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행복’이었다. 행복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행복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심리적인 안정과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각도로 접근하였고, 먼저 하인리히 뵐과 그의 작품을 재 탐구하며 시작했다. 1부부터 3부까지는 하인리히 뵐 자신의 말 또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인리히 뵐을 직접 조명했으며, 4부는 보다 미시적으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심리적·정신적인 관점에서 행복개념과 행복사회를 고찰했다. 동시에 외연을 확장하여 문화예술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안을 숙고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실린 순서에 따라 간단히

소개해본다.

1부에서는 안은영과 서용좌가 하인리히 뵐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인터뷰와 번역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하인리히 뵐의 기본사유와 작가로서 가졌던 사명감 및 그가 생각했던 문학의 역할 등을 독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했다.

2부에서는 작가가 본 작가를 기획했다. 공선옥 작가와 이화경 작가가 대학시절 탐독했던 작품을 다시 손에 들고 고달프게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약자들의 행복을 바라는 선배 작가의 갈망을 되새겼다.

3부에서는 정인모, 사지원, 정찬종이 ‘살만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는 따뜻한 말들-뵐은 이런 말들을 “살만한 언어”라고 표현한다-을 발굴해야 함을 여러 작품을 통해서 조명했다. 정인모는 뵐의 여러 작품을 예로 들며 따뜻한 말들과 위로가 되는 말들은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밀려난 사람들, 시쳇말로 외롭고 서글픈 ‘을’들을 버틸 수 있도록 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지원은 사회적 ‘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의 모델을 뵐의 작품에서 추출해내며 그 모델을 요즘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생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뵐은 인간중심주의적인 사유의 환경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생태적 사유,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생하는 공동체를 행복사회로 여겼다고 사지원은 설명했다. 정찬종은 독일 연방군의 실체와 서독의 중산층 경제정책을 폭로하는 뵐의 60년대 작품들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뵐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도시가 아니라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제4부에서 원윤희는 노년의 자살률이 특히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노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천착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노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택하여 노년의 욕망을 고찰하고 노년의 행복에 대해 숙고했다. 광정연은 행복이라는 개념과 행복사회를 심리학적·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 현인들의 행복에 대한 정의와 행복담론을 재조명했다. 동시에 행복사회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행복지수 조사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되짚으며 삶의 목적을 통찰했다. 최미세는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며 예술은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했다. 그럼으로써 예술의 치유력과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위한 예술가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문화예술계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했다.

한국하인리히빌학회 회원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와중에도 학회행사에 늘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원고를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올해는 ‘하인리히 빌 탄생 100주년’을 맞아 행사가 많았다. 독어독문학 관련 학회들의 토론장이 되는 ‘연합학술대회’에서 “하인리히 빌 문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영화제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를 빌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이군호 부회장과 정찬중 총무님, 안은영 총무님, 광정연 이사님, 최미세 이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부산대학교의 현장에서 영화제와 전시회를 도맡아서 치르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정인모 교수님과 원윤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집필에 참가해주신 공선옥 작가님과 이화경 작가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서용좌 교수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하인리히 벨이 열망했던 행복사회가 되는 데에 우리 학회가 기여하고 이런 논의들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출판을 기꺼이 맡아 주신 한국문화사 김진수 사장님과 교정 및 편집을 맡아주신 정지영 선생님께도 학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

집필 대표/ 한국하인리히벨학회 회장 사 지 원



■ 차례

서문 / v

제1부 직접 만나는 하인리히 뵐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하여 / 안은영 ..... 3  
하인리히 뵐의 독자 구하기 / 서용좌 ..... 13

제2부 작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인리히 뵐

슬픔의 사람, 슬픔의 작가 / 공선옥 ..... 21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말하기 / 이화경 ..... 24

제3부 하인리히 뵐이 말하는 행복

“살만한 나라, 살만한 언어” / 정인모 ..... 37  
하인리히 뵐이 열망한 대안사회 / 사지원 ..... 60  
하인리히 뵐의 현실 비판과 대안 / 정찬종 ..... 85

제4부 행복에 대한 다양한 시선

문학 작품 속 노년의 욕망과 행복 / 원윤희 ..... 119  
인간 심리와 행복, 그리고 행복한 사회 /곽정연 ..... 146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인류의 보편적 행복 / 최미세 ..... 173



제1부

직접 만나는 하인리히 뵐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하여  
1972년 10월 19일 아테네에서  
위르겐 크리츠(Jürgen Kritz)와의 인터뷰

안은영

**위르겐 크리츠 (이하 크리츠):** 뵐 선생님[Heinrich Böll, 1917~1985, 독일의 소설가, 1971년에 발표한 『여인과 군상(Gruppenbild mit Dame)』으로 이듬해인 1972년에 노벨문학상 수상]<sup>1</sup>,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인리히 뵐 (이하 뵐):** 네, 그렇습니다.

**크리츠:** 선생님께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스톡홀름의 노벨문학상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뵐:** 네.

**크리츠:** 이전의 이런저런 공론 이후에 선생님께서는, 어쩌면 선생님이 언젠가 실제로 노벨상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뵐:**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후보가 당선 후보로 계속 거론되어 왔고, 그 중에서 특히 그레이엄 그린[Graham Greene, 1904~1991, 영국의 소

설가이자 극작가, 문학평론가]이 매우 유력시 되었었지요. 그래서 저는 누가 당선 후보로 거론되더라도 수상에 대해서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츠:** 독일 작가로서 선생님의 이번 노벨상 수상은 1929년 토마스 만(Thomas Mann)의 수상 이후 매우 오래간만입니다. 선생님, 노벨상 수상과 더불어 큰 명성을 얻게 되셨는데, 이것이 선생님에게 어떤 실제적인 가치도 있겠지요?

**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크리츠:**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인한 명성이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서 또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를 위해서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빌:** 저는 그것을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문학적인 작업은 물론이고, 제가 1945년 이후 계속 해 왔고 또 계속 써 왔던 모든 것의 강화 말이지요. 이 점에 있어서 노벨상 수상은 저에게 문학 외적인 활동의 강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츠:** 지금 서독 내에서 선생님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첫 반응이 벌써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이 선생님에게 큰 부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지요?

**빌:** 아니요, 저 자신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반응이 양적으로 화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이라고 한 이유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쟁은 저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불쾌한

상황을 만들어 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츠:** 서독에서 이미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빌리 브란트의 경우지요[Willy Brandt, 1913~1992, 독일 사회민주당(SPD) 출신, 서베를린 시장 역임, 제4대 연방수상(1969~1974),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그의 동방정책이 냉전종식과 세계평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197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연방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 선거 간섭과 금지된 서독 내정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발:** 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결정되던 그 날, 저는 우연히 오슬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노벨상 위원회 위원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또 모두 사회민주주의자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가가 상을 받으면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그러한 주장이 정치가에게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반면에 그러한 주장이 작가에게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작가가 이미 25년 전부터 서독에서 작품을 발표해 온 경우라면 말이지요.

**크리츠:** 그렇다면 그러한 공격이 당연히 선생님께서 정치적으로 선생님 자신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까?

**발:** 물론입니다.

**크리츠:** 정치적인 격론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앞으로 몇 주 동안 몇 가지 일을 잘 극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서는

의식적으로 선생님을 향한 공격의 여지를 만드시지요. 그러한 일에 대해 준비되었습니까?

**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약점을 드러내 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시하신 그러한 논쟁 속에서 저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러한 일에 준비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11월 8일이나 9일이 되어서야 독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하는 주장이 제기될 것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츠:** 이제 많은 사람이 선생님에게 정치적인 논쟁에 뛰어들었으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빌:** 저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민감함은 우선 무엇보다도 제 직업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감수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당연히 민감하다고 또는 감수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저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 저는 단지 불쾌할 뿐입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어로 작품을 쓰고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독일 사람으로서, 저는 그러한 주장을 단지 불쾌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제 자신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로서의 저의 감수성은 오히려 저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 기다려 봅시다.



**크리츠:** 선생님께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이러한 일련의 격론 속에서 뭔가를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학습과정이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배우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셨다는 것인가요?

**발:**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말의 본래적 의미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저의 언어구사,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제가 사용하는 표현을 좀 더 제대로 검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가로서 저는 이미 그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작가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비난의 물결이 그 한 사람에게 몰아칠 때 말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둔감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작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지 기다려 볼 것이고, 저의 주 무기인 정중함을 계속해서 투입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정중함이 갖는 위험한 힘을 여전히 확신합니다.

**크리츠:** 정치적인 참여, 이것이 선생님에게는 일차적으로 도덕적인 참여인가요?

**발:** 저는 정치와 도덕의 경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논쟁의 원인을 전혀 보지 못하겠습니다. 또 저의 정치적 참여가 일차적으로 도덕을 설파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 참여는

제가 살아온 인생으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1945년 저는 28살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독의 탄생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했고,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있었던 매우 많은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으로부터 제 자서전이 나온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기억, 그러니까 20살에 군인이 되었고 28살에 귀향한 사람, 지금도 다시 알아들을 수 있는 특정한 목소리와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귀에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말이지요. 그것이 도덕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상적인 채로 있고자 합니다.

**크리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이 1945년 이후, 또 바로 최근의 경험으로 인해서 다소 달라졌습니까?

**빌:** 아니요. 저는 여전히 의회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 민주주의가 각 이익대변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정말로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을 때 말이지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반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반수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개선의 가능성을 봅니다.

**크리츠:** 혹시 좀 전에 나누었던 정치와 도덕의 긴장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 번 잠시 돌아가 볼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보자면, 선생님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실제로 정치입니까? 아니면 자비로움입니까? 이 자비로움이라는 개념이 선생님에게 매우 핵심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빌:** 자비로움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적 이름을 갖고 있는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기독교민주당(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약칭 CDU 체테우)과 기독교사회당(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약칭 CSU 체에스우)]. 2000년 동안 기독교적이라는 것(das Christliche)은 항상 새롭게 정의되어 왔고, 그 안에는 도덕적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적(sozial), 그리고 민주적(demokratisch)이라는 말 속에도 역시 도덕적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연방의회의 정당들, 즉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약칭 FDP 에프 데페]도 역시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사회적, 민주적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도덕적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 사이에 도덕적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크리츠:** 선생님, 자비로움과 정치,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빌:** 충돌할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 문제는 민주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봉건 사회의 영주는 자비로울 수 있었습니다. 즉, 관대할 수 있었지요. 저는 의회 민주주의와 같은 형식-민주주의들이 자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만으로 인해 형식-민주주의들은 남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전혀 유머가 없는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지요. 은혜나 사면과 같은 개념에 대해 봉건시대보다 더 귀를 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도 역시, 이러한 은혜나 사면과 같은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거의 완전히 선동된 언론에 대항해서 말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교정수단, 그것도 매우 중요한 교정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많은 오해와 논쟁이 이러한 긴장관계 내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젠가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들을 언론의 선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크리츠:** 언론의 선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빌:** 무자비하고 유머가 없는 그러한 형식-민주주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파시즘으로 돌변하는 서독 언론의 특정한 방식 말입니다. 서독에서 사람들이 항상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지 폭탄, 권총, 수류탄에 의한 폭력만을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범죄적 폭력의 형태지요. 하지만 신문기사에 의한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폭력, 그리고 또다시 폭력을 부르는 폭력이 아마도 수백 가지 될 것입니다.

**크리츠:** 자비로움과 은혜가 정치적으로 되어야 한다면, 또는 관철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사할 준비까지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빌:** 누구에 의해서 말입니까?

**크리츠:** 자비로움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 자신에 의해서요.

**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거나 또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이 세상 어떤 집단도 폭력을 포기할 기회를

지금까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편도 역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 베트남, 북아일랜드의 경우, 마찬가지로 내정에 관한 모든 논쟁,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보세요.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관철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다른 기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폭력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도 볼 수 없으며, 그 어떤 정당성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한 정치적, 역사적으로 이러한 폭력 없이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으며 또한 성취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인식입니다.

**크리츠:** 선생님의 소설 『어느 복무의 종말(Ende einer Dienstfahrt)』의 결말에서도 독일 연방군의 차가 불타지요, 그러니까 파괴되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폭력 행위가…….

**발:** 네, 사물에 대한 폭력입니다. 물론 예술 작품으로서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또한 우리의 도로 교통 상황과의 관계를 봅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매일 사물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사물에 대한 폭력은 생산을 작동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통계상으로 이 문제를 보세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더 많은 자동차가 팔리고, 그럼으로써 또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물에 대한 폭력의 끔찍한 변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물에 대한 폭력을 향한 비탄의 소리가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츠:** 그것은 마치 선생님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소설가, 그리고 정치적인…….

**빌:**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은 소설가로서의 삶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언어로 하는 작업이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번역가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인 일은 직접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인데, 그 일은 근본적으로 저에게 그다지 잘 맞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상과 홀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지요.

**크리츠:** 단지 흔들리기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갈등인가요?

**빌:** 갈등입니다. 명백한 갈등입니다. 제 스스로 책상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다음엔 또다시 공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끊임없는 갈등이지요.

## ■ 출처

Heinrich Böll Werke. Interviews I. 1961-1978. Kiepenheuer & Witsch Köln, S. 227-232.

---

<sup>1</sup>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긴이가 보충한 부분은 [ ]로 표시하였습니다.

## 하인리히 뵐의 독자 구하기\*

### 서용좌

내 친구는 묘한 직업을 가졌다. 그는 자신을 작가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그가 정서법의 몇몇 잠재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문장론의 몇몇 규칙을 막연하게나마 통달했고, 이제 타이프 한 장 한 장을 문체의 연습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이다. 그리고 그런 한 문체를 만들자마자, 그것을 그는 원고라고 부른다.

그는 수년간 이 문화의 황야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마른 풀만을 겨우 뜯어먹고 살다가 마침내 출판사를 찾아냈다. 그의 책이 출판된 뒤에, 나는 극심하게 낙담해 있는 그를 만났다. 그의 이야기는 사실 기가 꺾일 만했다. 출판사의 정산에 따르면, 반년 동안 350권이 비평을 부탁하려고 무값으로 배포되었고, 몇 우호적인 비평도 나왔고, 실제로는 13권의 책이 팔렸단다. 그러써 내 친구에게는 5,46마르크의 대변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는 800마르크를 선지급 받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셈하자면 이 선지급금은 대략 150년이 되어야 상쇄될 수 있는 것이란단다.

이제 문제는 한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그만 못하다는

점이다. 그게 대략 몇몇 거의 전설적이다 싶은 터키인들을 제외하고는 대강 70살을 본다. 더러 우리 잃어버린 세대의 기념비적인 혹사를 생각 할 때는 안심하고 한 십년을 더 칠 수도 있다.

나는 친구에게 두 번째 책을 쓰라고 충고했다. 책이 출판되자 전문가 권에서는 기쁘게 환대를 받았다. 비평용 책은 400권으로 급등했고, 반년이 지났을 때 판매고는 29권이였다. 나는 친구에게 담배 두 개비를 맡아 주고는 어깨를 도닥거리며 제안했다, 이제 세 번째 책을 쓰라고. 그런데 친구는 그 말을 아이러니로 이해하고는 모욕을 당한 듯이 물러서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투명작가 비트’라는 문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에 관한 평전 한 권이 나오자 평전이 그의 작품 전체보다 더 많이 팔렸다.

근 반년동안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 고독한 천재성의 영역에서 맴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그가 내게 와서는 후회막급하다고, 그래 아무튼 세 번째 책을 쓰기로 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이번에는 젤라틴판 등사기로 밀어서 30~50권쯤을 서적상에 넘겨주라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선지급금을 받았다. 둘째 아이가 태중에 있었고, 그는 말하자면 몇몇 식자공과 인쇄업자, 포장이나 발송담당 여직원들의 실직에 협조하는 죄를 짓기는 싫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의 공익적 감각은 항상 정말로 강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에 관한 근 100편 정도의 호의적인 비평이 나왔고, 두 권을 합친 판매부수는 90권을 넘었다. 출판사는 “독자 구하기”이라 명명한 작전에 돌입했다. 곧 각 서점마다 쪽지가 발송되었는데, 내용인 즉, 비트-구매자를 확보해놓고 바로 출판사에 알려달라고, 그러면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



이 작전의 결과는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시작해서 4주 만에 저 위쪽 북부에서 한 남성이 나타나서 내 친구의 책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사고 돈을 지불했음에 틀림없었다. 서점주인은 곧 전보를 보내왔다. “비트-구매자 출현 - 다음 지침은?” 그러는 사이에 서점주인은 구매자를 대화로 붙잡아 놓고 커피를 따라주고 담뱃갑을 권하고 그랬다. 이 모든 행동이 구매자를 놀라게 했지만, 그는 조용히 그러도록 내버려두고 있었다. 그러자 번개처럼 빨리 출판사의 답변이 왔다. “구매자 이쪽으로 보낼 것 - 전 비용 이쪽 부담.” 다행하게도 구매자는 교사였고 마침 방학이어서 남독으로의 공짜여행을 마다할 리 없었다. 그는 첫날은 켈른까지 갔고 그곳에서 하루저녁 좋은 호텔에서 묵고, 이튿날 아름다운 라인 강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향하며 여행을 즐겼다.

이틀째 오후 4시경에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역에서 출판사까지 택시로 이동했고, 출판사에 가서는 출판업자의 매력적인 부인과 더불어 커피와 케이크를 즐기면서 조금은 들뜬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여행경비를 받아 챙겨서는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2등 열차로 내 친구가 뮤즈에 봉사하고 있는 그 소도시로 갔다. 그곳엔 그 사이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참 시간이 흘렀고, 친구의 아내는 영화관엘 가고 없었다. - 작가의 아내에게라면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허해서는 아니 되는 휴식 아닌가. 구매자는 그러니까 내 친구를 마침 그가 아이들 저녁우유를 데워가지고 그들을 달래려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참에 만나게 되었다. 그 노래란 게 하찮은 어휘들로 구성될 수밖에. 아무튼 이 말이 최근 독일문학에 언짢은 빛을 던지게 되었으니…….

내 친구는 자신의 독자에게 감동어린 인사를 하고서 대뜸 그의 손에다

커피 분쇄기를 밀어주고는 재빨리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 곧 커피 물도 끓었고, 이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 수줍은 사람들이어서 서로 묵묵히 감탄하면서 바라보기만 했다, 한참 동안矣. 그러다가 마침내 내 친구가 외침소리를 토해냈다.

“선생은 천재이시오 - 제대로 자라난 천재이시란 말외이다!”

“아, 아닙니다,” 손님은 온유하게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작가선생이 그렇소.”

“틀린 말씀,” 내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침내 커피를 따랐다, “천재의 주요 특징은 그 희귀성에 있지요, 그리고 선생이야말로 저보다 더 희귀한 인간계층에 속합니다.”

방문객은 겸손한 이의를 달려고 했지만 혹독한 방식으로 혼시를 받고 말았다. “거 말 마쇼” 내 친구는 말했다. “책을 쓰는 일은 그게 만들어지는 일에 비해 그저 반쯤 나쁜 일이고, 출판사를 발견하기란 장난질이요. 그러나 책을 산다는 것 - 그것을 저는 천재적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 그나저나 우유와 설탕을 치시지요.”

그 남자는 우유와 설탕을 치더니만, 수줍어하면서 외투 오른 쪽 안주머니에서 그가 저 위 북쪽 지방에서 샀었던 책을 내밀며 헌정 사인을 부탁했다.

“단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단 한 가지, 선생이 제 원고에다 헌정 사인을 해주는 조건이오!”

그는 서가에서 바인더를 꺼내더니 거기서 빼곡히 쓴 원고뭉치를 꺼내와서 손님의 커피 잔 옆에 놓고는 말했다. “부디 저에게 기쁨을 주시오!”

손님은 혼란스러워 만년필을 덜덜 떨면서 원고뭉치 마지막 장 맨 아래

여백에다 머뭇머뭇 썼다. “진정한 존경심을 담아서 - 권터 슐레겔!”

그러나 내 친구가 잉크를 말리기 위해서 그 원고를 난로위에서 흔들고 있던 한 30초쯤이 지나서 손님은 이번에는 외투 왼쪽 안주머니에서 타이프가 되어있는 종이 다발을 꺼내더니 내 친구에게 청했다, 그가 최근 독일문학에 대한 기여라고 간주하는 이 결과물을 출판사에 감정 의뢰해달라고.

내 친구는 내게 이야기해주었다, 자기는 실망감에서 몇 분간 말을 잃고 있었노라고 이 남자의 운명에 대한 걱정이 그를 깊은 비통에 빠지게 했었노라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몇 분간을 묵묵히 건너다보고 앉아있었다. 마침내 내 친구가 나직이 말했다. “제발 간청하건대 그만 두십시오 - 선생의 독창성을 처분하는 일이외다!”

손님은 고집스레 침묵하고 있더니 자기의 원고를 쓸어 모았다.

“선생께선 여행경비를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내 친구는 말했다. “생크림케이크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출판인의 부인은 찡그린 낫빛을 할 것이구먼요. 선생을 위해서 간청 드리는 것이니, 제발 그만 두십시오!”

그러나 손님은 찡그린 채 고개를 가우뚱했는데, 내 친구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한 인간을 구한다는 뜨거운 노력으로 출판사의 정산서를 가져오는 일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슐레겔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내 친구는 이야기를 중단하고자 했지만, 나는 그가 방문객과 그만 드잡이를 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휴지부가 발생했고, 그 동안 내 친구는 볼끈 쥐 주먹을 생각 깊게 내려다보면서 알아들

을 수 없는 말들을 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들은 것은 슐레겔이 짙막한 인사와 함께 떠났다는 것이고, 그의 원고는 놓아두고 갔었더라.

그러는 사이에 슐레겔의 장편 『슬프도다, 페넬로페여!』가 귀향소설로서 전문가 권에서 상당한 주목을 이끌어냈다. 슐레겔은 교사직을 떠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업을 떠났는데, 말하자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다. 나로서는 여전히 직업도 아니라고 간주하는 그런 직종에 종사한답시고…….

---

\* 「독자 구하기(Die Suche nach dem Leser)」는 하인리히 뵐이 1954년에 함부르크의 『일요신문(Sonntagsblatt)』에 발표한 단편이다. 여기에서는 Böll, Heinrich: Romane und Erzählungen 2. Hrsg. von Bernd Balzer, Köln 1977을 사용했다.

제2부

작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인리히 뵐



## 슬픔의 사람, 슬픔의 작가

공선옥

하인리히 뵐의 글은 몹시 지적이다. 문장들은 고도로 정교한 구조로 완벽한 작품을 구축한다. 그러나 뵐의 작품이 진정으로 울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문장력과 작품의 완성도 이전에 한 인간, 그리고 한 작가로서의 뵐의 심성, 시선, 태도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것을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인리히 뵐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작가는 한 ‘슬픔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슬픔의 사람인 뵐이 구축해 놓은 저 단단한 슬픔의 결정체를 보라. 뵐의 슬픔은 무력한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의 지적 태도에서 나온 슬픔이다. 뵐의 작품은 요즈음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타인의 슬픔에 대한 탁월한 공감능력’의 결과다. 부조리함과 폭력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첫 단계는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일단 보는 것이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건네고 말을 듣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분노는 슬픔의 가장 풍요로운 거름이다. 분노로 발효시킨 슬픔은

힘이 세다.

지적 슬픔의 사람 하인리히 뵐이 구현해내는 인물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을 품위를 지녔다. 온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온갖 형태의 모욕과 모멸, 전쟁, 가난 같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존과 품위를 버리지 않는다. 뵐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배운 것은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서 슬픔을 간직한 사람의 위엄이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카타리나를 보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의 프레드와 케테는 또 어떤가. 가난한 현실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부부 프레드와 케테는 길거리에서 만나 허름한 여관에서 랑데부를 한다. 두 사람의 삶이 가슴 시리지만 그들의 대화는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품위 있는가.

뵐의 작가적 시선은 정직하다. 당대 사회의 풍경과 군상과 양상을 응시한다. ‘작가의 정직한 응시’란 그 얼마나 힘이 센가. 그 얼마나 서늘한가. 그것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다. 작가가 자기가 속한 사회의 풍경과 군상과 양상을 응시한다는 것은 그 풍경과 군상과 양상이 보여주거나 보여지는 이면의 그늘과 폭력적 상황을 포착해내는 것이며 작가의 응시에 포착된, 보여지고는 있지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인리히 뵐은 전쟁 직후의 독일과 경제부흥기의 독일사회의 그늘을 가장 잘 드러낸 작가 중의 한 사람인 것이다.

하인리히 뵐은 작가의 존재의미를 끊임없이 물었던 작가였던 것 같다. 나는 왜 쓰는가, 문학은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작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 말이다. 그러니 작가란, 작품을 쓰기 이전에 이미 작가로 존재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작품이란 그러니까 이미 작가로 사는 사람들이 내



놓는 결과물인지도. 세상에 작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모두 작가는 아닌 것이다. ‘운전임무를 마치고’를 우리말로 옮긴 정찬종과 하인리히 뵐의 가상 인터뷰는 바로 작품 이전에 이미 작가인 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 하겠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운명은 프로메테우스의 그것과 같은 게 아닐까요? 동시대의 독자들을 전체주의적 권위에 대한 복종 근성과 무비관성에서 해방되고 자극하는 일이 작가의 임무이니깐요, 작가로서의 사회에 대한 연대감 또한 연방독일 및 세계에서 인간적 실존의 공간을 위한 정치적 관여이고 나아가 문학적 양가주망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품이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그것이 다른 민주적 힘과 더불어 인간 존엄의 실존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비록 가상인터뷰이긴 하지만, 뵐이 말하는 ‘작가의 프로메테우스적 운명’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작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작가로 사는 한은 그것이 허무한 도로(徒勞)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작가로서의 사회적 연대감’을 향한 고뇌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하인리히 뵐이 내게 주는 절실한 고언이라고 나는 느낀다. 왜냐하면 뵐이 살았던 시대와 공간에서 뵐이 목도했던 풍경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풍경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더욱 더 깊은 ‘슬픔의 작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 한국의 풍경이지 않은가.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말하기

## 소설가가 읽은 하인리히 뵐

이화경

### 1. 말을 씻기고 싶었다

대학 3학년 때, 하인리히 뵐의 소설을 처음으로 읽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다니고, 철이 없어서 철학 개론을, 내 마음을 나도 몰라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했던 시절이었다. 셰익스피어와 제임스 조이스, 아서 밀러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들을 강의실에서 들었다. 겉보기엔 우아해 보이는 대학생의 처지였지만, 사실은 강의실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떴으면 학살, 독재, 군부, 타도, 피, 칼, 투쟁, 비명, 죽창, 학투, 감옥 같은 살벌한 언어들에 난무하는 살풍경이 된 캠퍼스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나름 고민하던 스물두 살의 청춘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말(言)에 대한 무섭증을 겪은 경험이 있던 지라 살벌한 언어들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광주는 불만 세력들의 암약지라는 유언(流言), 광주시민들은 빨갱이라는 비어(誹語), 공수부대는 충정의 진압군이라는 참언(讖言), 시위는 폭동이라

는 비언(非言)이라는 거짓의 언어들 1980년 광주 바깥에서 떠돌았다. 무엇보다 인간 사냥을 하러 온 공수부대의 작전명령어가 ‘화려한 휴가’라는 것, 실체는 학살인데도 문학적 향기가 물씬 풍기는 메타포로 감추어졌다는 것이 소름끼치게 환멸스러웠다. 그 시절의 말(言)은 어린 여고생의 영혼을 백야(白夜)의 황무지로 끌고 가서 은밀히 처형시켰다.

말이 무서웠지만, 말이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찾고 싶었다. 발육 부진의 설익고 떴은 말들이 가슴에 얹힐 뿐 애타게 찾던 말들은 끝내 터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詩)를 쓰고 싶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슬픈 시를 쓰고 싶었다. 기늘고 뾰족하고 짙 검정색 플러스 펜을 들었다. 흰 종이 위에서 시는 자꾸 멀리멀리 달아났다.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펜 끝으로도 한 문장의 시를 낚지 못했다. 날마다 언어는 도서관 옥상에서 추락했고, 포승줄에 묶였고, 어디론가 끌려갔다. 최루탄과 몽둥이에 맞아 피에 얼룩지고 멍든 언어를 씻기고 싶었다. 25도 독한 소주로 언어를 씻겼으면, 한라산이나 청자 꼬리에 불을 붙여 허공에 날리는 하얀 연기로 언어를 씻겼으면, 그 시절의 시어는 좀 말개지고 깨끗해지고 강해졌을까.

## 2. ‘편’이 준 책,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언어)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 그 즈음에 하인리히 뵐이라는 독일 작가의 소설을 처음 읽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였다. 끝내주는군. 제목에 대한 첫 인상이었다. 소설 제목을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멋있다고 여겼다.

혁명, 계급, 투쟁, 역사라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단어가 들어 있지 않은 제목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그 책은 당시 운동‘뀨’으로 불리던 영문과 동급생인 남학생한테 받았다.

정작 강의실에서보다는 도서관 앞 광장이나 대학 정문 앞에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시위하는 ‘뀨’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곤 했었다. 어느 날, ‘뀨’이 강의실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문 앞 대학 다방으로 가자고 했다. 평소엔 미제의 검은 물이라면서 경멸하고 혐오하던 커피를 마시는 제의에 놀랍기도 하고 은근히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따라나섰다. 투쟁 의식을 약화시키는 개량주의적이고 멜랑콜리한 대중음악이 흐르는 다방에서 ‘뀨’은 수줍어하는 표정을 짓더니 가방에서 몇 권의 책을 내게 건넸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上』, 김남주의 『진혼가』, 그리고 하인리히 뵐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세 권의 책이었다.

그날은 내 생일도 아니었고, ‘뀨’과 사귄 적도 없었기에 기념할 무언가가 있는 날은 더더욱 아니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팔을 허공으로 힘차게 내뻗으며 투쟁가를 부르던 결연하고 비장한 표정의 ‘뀨’만 봐오다가 숫기 없는 표정과 심지어 부끄러워하기까지 하는 태도를 보면서 좀 의아하긴 했다.

청소년 시절에 문학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헤르만 헤세나 루이제 린저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정도는 읽으며 독일 문학의 맛과 멋을 안다고 착각을 하던 터였다. 창백한 낮빛에 오만 인상을 다 쓰며 인생을 다 알아버린 척 하는 걸늬는 얼치기 문학소녀였던 나 역시 나름 섭렵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도, 하인리히

뵐이라는 독일 작가도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운동만 하는 ‘뵐’ 앞에서 전혀 아는 척을 할 수 없는 생면부지의 작품이었다.

그런데 왜 내게 책을? ‘뵐’이 느닷없이 책을 선물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다. 물었다. 책을 왜 주느냐고. ‘뵐’은 잠시 주춤하더니, 네가 책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라고 했다. 아침이니 해가 뜨고, 저녁이니 노을이 진다는 말처럼 식상한 답변이었다. ‘뵐’에게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던가? 가령 너랑 사귀고 싶었다, 너를 진즉부터 좋아했다……. 이런 낮간지러운 말? ‘뵐’은 애초에 그런 유치한 말 따위는 하지 않을 녀석처럼 굴었다. 어찌다 돈이 좀 생겨서 책을 샀고, 이왕 구입한 책이니 네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뵐’은 덧붙여 말했다.

잘 지내.

‘뵐’은 헤어지면서 심드렁하게 말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운동은 진하게 하고, 여자에겐 싱겁게 구는 ‘뵐’에게서 받은 책들을 집에 돌아오자마자 읽기 시작했다. 일단 하인리히 뵐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부터. 단숨에 읽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말에 대해서 느끼는 답답함과 조금증과 암담함을 단칼에 정리해준 문장이 아닐 수 없었다. 무엇보다 주인공들인 프레드와 캐테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초라한 호텔에서 과연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제일 궁금했다. 이십대였으니까.

야위고 슬프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다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주인공들에 대한 나의 연민이 전후 독일의 고통을 아프게 직시하는 하인리히 뵐의 파토스 넘치는 문장을 따라 파득거렸다. 전차가 지나가는 공중 가선(加線)에서 튀는 불꽃처럼, 너무도 울적하고 슬퍼서 마셔대는 가난한 프

레드의 아리고 독한 화주(火酒)처럼, 초라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빈처(貧妻)인 캐테가 바른 붉은 립스틱처럼.

소설 속에서 캐테의 고해성사를 ‘숙련된 손놀림으로 상처의 고통을 짜내는 것’ 같이 들어주는 성당의 신부처럼 작가 하인리히 뵐은 고통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인간 실존에 언어의 빛을 절박하게 비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가난의 숨결을, 눈물의 짠맛이 섞인 키스의 서러움과 애뜻함을, 고단한 삶에 파 먹힌 얼굴을, 밤보다 더 캄캄한 담벼락에 기대서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의 초상을 작가는 정밀한 언어로 포착해내고 있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나는 멍멍한 심사를 가눌 수 없었다. 1952년 9월 30일 토요일 오전에 시작되어 월요일 오전에 끝나는 48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전달하는 서사성이 아니라 작가의 언어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적인 능수능란함과 현란한 인식이 드러난 언어보다 인간 실존이 견디어내야만 하는 굴욕과 가난과 슬픔에 대해 다함 없는 공감과 애뜻한 연민의 감성을 뿜어내는 언어가 주는 훨씬 뜨거운 감동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듣고 싶었다. 유일하게 주인공의 가슴을 움직이게 했던 어느 흑인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 and he never said a mumbling word.’라는 노래를.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노래를 구할 수 없었다.

### 3.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

책을 선물하고 별다른 말이 없이 떠났던 ‘뀐’은 학교에서 더 이상 보이

지 않았다. 그 동안에 형사 두 명이 집을 찾아왔다. 하필 나는 집에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나를 살피는 아버지의 표정엔 묘한 안도감과 불길한 증거를 포착한 듯한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1980년대에 대학생을 둔 부모라면 응당 느꼈을 불안함을 아버지도 느꼈을 터였다. 설마 했던 불안이 형사가 찾아오면서 가시화되었으리라. 형사들은 나와 ‘뀨’과의 관계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나의 방에 들어가 책들을 살펴보고 돌아갔다고 했다. 그때 비로소 직감했다. ‘뀨’이 뭘 하려고 했는지, 하고자 하는 일의 예측 가능한 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헤어질 때, 잘 지내라는 마지막 안부가 무슨 뜻이었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뀨’은 이후 ‘뽕(감옥)’에 들어갔고, 오랫동안 학교에 돌아오지 못했고, 나는 졸업을 했다. 여전히 80년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정태춘)다. 시인들은 5월에 대해 혈관 속에 총알이 터지듯 시를 쏟아냈다. 언어는 억압되었고, 작가들은 점점 필사적이 되었다. 섬뜩한 메타포와 너무도 솔직하게 까발린 상처의 언어들이 시대의 파국을 향해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었다. 졸업을 했는데도 막상 갈 곳이 없었다. 시를 쓰고 싶었다. 받아주는 곳도 없는데, 시를 쓰고 또 썼다. 쓰다가 새벽을 맞이하다보면, 자꾸 어디서든 들어본 적 없는 어느 흑인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 and he never said a mumbling word.’

#### 4. 언어는 자유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

이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가끔씩 매체에서 영향을 미친 작가와 작

품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면, 언제나 하인리히 뵐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거론했다. 가장 여러 번 읽은 소설임을 밝힌 적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소설가가 읽은 하인리히 뵐’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시 읽었다. 늘 그렇듯이 좋은 글은 새롭게 심장을 진동케 하고,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고, 언어와 서사를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은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설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작가 하인리히 뵐이 강박적으로 몇 번이나 기록했는지를 세어보기도 했다. 한 문장 한 문장 세어가면서, 울컥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가의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사태에 대해 말해야만 하는 작가의 처지가 오롯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다가 수류탄이 집 위를 날아가는 바람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뒤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가난하고 불결한 환경 때문에 몸이 빈대에 물려 부어오르고 이에 물린 자국을 달고 산다. 전쟁 때문에 생긴 엄청난 무리의 해충 때문이다. 캐테는 아이들의 몸을 볼 때마다 슬프다 못해 구역질이 나고, 석회 가루가 떨어지는 탓에 기침을 해대는 아이를 위해 양동이에 물을 퍼 다가 걸레질을 하지만 하얀 무(無)와의 싸움에서 매번 좌절하고 만다. 군대 병영 소속 전화교환수로 3년 동안 복무하면서 주인공 프레드는 고위 장교들의 빈약한 어휘 수 -<보고-출동-출동-보고-출동-마지막 피 한 방울-명령-전황 보고-복명-출동-최후의 피 한 방울-견뎌라-총통-굴복하지 마라>-에 절



망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전화 교환수로 일하면서는 쓸데없이 공허한 말이 썩은 음식처럼 몸속으로 밀려드는 고통에 시달린다.

어떤 엄마가 거리에서 폭탄을 맞아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바람에 팔에 안고 있던 아이가 짚단 위로 떨어지고, 울다 발견된 아이는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주교는 고통 받은 신자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의 설교를 하지 못한다. 주교는 ‘판에 박힌 말이 되어버린, 반쪽 진리를 담은 어휘들’만 40년 넘게 써댈 뿐이다.

전후의 폐허 위에서 작가인 하인리히 뵐은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의 무력감, 자괴감, 쓸쓸함에 대한 하인리히 뵐의 필사적인 문학적 응전이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폭력이 일상화되고, 파시즘이 나라 전체를 암울하게 뒤덮다가 피로 물들이고, 폭격 맞은 폐허 속에서 어른들은 지옥놀이를 하는 상황에서 작가는 어떤 알파벳으로 문장을 써야 했을까. 총통, 돌격, 명령, 전황, 복명, 출동과 같은 전제적이고 폭력적이고 저속한 언어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작가는 언어의 의미를 복구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을까.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라는 명제에 천착한 비트겐슈타인처럼 하인리히 뵐 역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끝내 말해야만 하는 작가의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완수하고 있었다.

말(언어)에 대한 작가의 날카롭고 단호한 인식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스물일곱 살의 이혼녀인 카타리나 블룸이 치근거리지 않고 다정하고 예의바른 남자와 춤을

추고 단 하룻밤 만에 사랑에 빠졌다가 경찰의 심문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은 작가의 언어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문이 오래 걸린 이유는 조서에 기록된 문장을 그녀가 허투루 넘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평소 모범적인 가사도우미로 정평이 나 있었던 그녀는 수사 과정이 취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조서에 적힌 신사들(그녀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의 다정함은 치근거림으로, 지인들의 친절함은 선량함으로 단어를 바꿔야 한다고 그녀는 개념정의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 다정함은 양쪽에서 원하는 것이고, 치근거림은 일방적인 행위인데 항상 자신에게 후자의 경우였기 때문에 치근거림 대신에 다정함이라고 쓰여 있는 조서에는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녀는 언어의 폭력에 저항한다.

이후에 그녀는 야만적이고 치졸한 신문의 언어에 기획, 포획, 배치, 배포된다. 누구보다 언어에 예민했던 스물일곱 살의 여자는 자신에게 덮 씌워진 저열하고 더러운 언어에 견딜 수 없어 한다. 무엇보다 그녀에 대해 맹렬하고 지속적으로 자극적이고 비열하고 추잡한 왜곡 기사를 써대는 기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실체를 확인한 그녀는 결국 언어 대신에 기자를 살해하고 만다.

“언어는 자유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 어떤 대화와 남몰래 넓게 보급된 시가 혁명에서 반도들이 외쳐대는 빵보다 더 비싸다는 걸 우린 알고 있다. (중략) 양심을 잃은 선동가의 말과 전문 전술가나 기회주의자에게 붙어 있는 말은 수백만의 사람에게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작가 하인리히 뵐이 197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에 어느 문학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 나온 문장을 끝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주인공 프레드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문장이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처참한 일이었다.’ 작가는 인간 실존의 곤경,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실상을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아포리아를 끝내 끝끝내 언어로 털어놓고 설명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하인리히 뵐이 증명했다. 아울러 언어가 자유의 마지막 보루이며, 그 언어로 글을 쓰는 작가 역시 자유의 마지막 보루임을.



제3부

하인리히 뵐이 말하는 행복



# “살만한 나라, 살만한 언어”

정인모

## 1. 벨 문학의 전제

‘하인리히 뵐’ 하면 일반 독자들 머리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독일사람, 노벨상 수상작가, 전쟁을 소재로 한 휴머니즘 작가, 아니면 제법 독서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그의 대표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면 근자에도 문학 카논에 포함되기도 하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저자 정도를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어떤 독자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교수이자 여류작가 전혜린 씨의 작품이 아닌가하고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뵐의 이 소설은 1953년에 발표되었고, 유학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혜린 씨의 같은 제목의 수필집은 1966년에 뒤늦게 나왔다.

사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대중의 관심을 끌며 명실상부한 뵐의 데뷔작으로 여겨지는 데는, 이 작품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뵐 작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다』(1953)가 『Aquainted with the night』(1954)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번역 소개되었고, 『아담 너 어디 있었니?』(1952)가 『Adam, Where Art Thou?』(1955)로, 『열차시간은 정확하였다』(1949)는 『The train was on time』(1956)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소개되었다.

하인리히 뵐은 60년대부터 국내에 소개되기는 했지만 1972년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급속도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대부분의 작품도 이때부터 국내에 번역되었다.

그렇다면 하인리히 뵐 문학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기에, 국내외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 뵐이 독일을 대표하는 괴테, 토마스 만, 릴케, 헤세, 카프카, 브레히트에 버금갈 만큼 독일을 대표할만한 작가인가? 귄터 그라스와 더불어 독일 전후 문학을 대변하는 뵐의 문학이 주는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뵐 문학이 가지는 특징으로 휴머니즘을 들 수 있다. 휴머니즘을 표방하지 않은 작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인간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명확하게 표방하는 현대 작가로 뵐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뵐 문학이 추구하는 인간성 회복이야말로 전후 서독 사회 및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화두였기 때문이다.

뵐은 인간의 가치, 즉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것에도 반대하고 저항한다. 그는 인간 위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러한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을 늘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뵐의 작중 주인공은 이러한 비인간적 서독 사회에 합류하지 못하고 시류에서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초기에는 현실 사회에 수동적이고 희생자로 그려지지만, 중후기로 갈수록 비사회적, 심지어 반사회적 경향



까지 띠게 된다. 작가 별처럼, 그의 작품의 주인공 역시 주변 사회와 갈등을 빚고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사회적, 혹은 반사회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별 작품에서 “쓰레기”, “아웃사이더”, “탈락자”, “오물” 등의 모티브가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별은 이러한 데서 오히려 순수한 인간성을 발견하고, 또 문학적 소재를 찾고 있다. 이 아웃사이더들에게서 별은 별 생각 없이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흘러가는 가치관에 맞서는 인간적인 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 별이 몸담고 살아온 서독 사회에 대한 작가의 반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별은 어떠한 작가적 가치관을 가졌기에 그토록 그 시대의 정치 사회와 맞서게 되었는가? 그가 말하는 지상의 유토피아는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행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 제도와 내면적 갈등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가가 다룬 문학의 주제였다. 그러한 경향은 특히 독일 사실주의 문학 이후 더 두드러졌는데, 이것이 별의 작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별 작품의 창작 시기는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전쟁 이전에 썼던 작품들로 단편 「불사르는 사람들」과 장편 『사랑 없는 십자가』 등이 있다. 2단계는 전쟁 이후에 나온 전쟁을 다룬 작품으로 『열차 시간은 정확하였다』, 『아담, 너는 어디 있었니?』 등이 이에 해당된다. 3단계는 전후 상황을 다룬 폐허문학인데 대표작으로는 『어린 시절의 빵』, 『보호자 없는 집』, 『아홉 시 반의 당구』 등이 있다. 마지막 4단계는 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비판소설들로 『어릿광대의 고백』, 『부대와 의 거리』, 『여인과 군상』,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등이 있다.

벨은 글쓰기와 행동의 일치를 주장하는 사회 참여 작가이다. 그의 작가 정신은 동시대인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작가적 글쓰기는 삶과의 일치를 도모한다. 중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주변 사회와의 갈등이 드러나고 사회비판적 요소가 강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벨 문학의 특징은 빅토르 벨이 지적했듯이 ‘연속 집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후기로 갈수록 주제나 형식면에서 물론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일관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2. 대립과 비판

하인리히 벨의 작품에서 늘 서로 대립되어 나타나는 주제가 있다면, 다름 아닌 한 개인의 자유와 그것을 구속하려는 사회적 기구나 제도와의 대립이다. 그래서 겔페르트의 말대로 하자면 이미 작품에 설정되어 있는 ‘횡적 긴장’, 즉 주제적 긴장이 작품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sup>2</sup>

벨이 자기가 소속한 주변 사회와의 갈등을 갖게 된 원인은 그의 삶의 이력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작가 벨이 태어난 지역적 배경부터 살펴 보자.

하인리히 벨은 1917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나서 1985년 쾰른 인근에서 세상을 떠난 작가이다. 그러니 명실상부한 쾰른 출신 작가인 셈이다. 쾰른은 독일이라는 한 국가에 속하는 지역개념을 넘어서서 라인란트라는 독특한 지역정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국가에 대한 순응적 태도

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히틀러가 집정했을 때 쾰른시가 보여준 그릇된 형태의 체제에 반감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던 쾰른 시민 정서였다. 더구나 뵐이 어릴 때 거주하던 쾰른 남부지역(쾰른-라더베르크나 크로이처나흐 슈트라쎄)은 특히 빈민에 가까운 일반 서민들이 살았던 동네였으며, 이러한 어린 시절의 주변 환경은 작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요소가 뵐로 하여금 정치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신에 일찍 눈을 뜨게 한 지도 모른다. 이러한 분위기는 뵐의 처녀 소설 『사랑 없는 십자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히틀러가 집정하게 되는 시기인 1932~33년의 정치 사회 배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뵐은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뵐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종교적 체험은 가계에 내려오는 경건한 가톨릭 신앙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뵐은 네덜란드 국경 근처 출신인 부모님으로부터 청교도 안센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뵐은 또한 프랑스 ‘가톨릭 개혁파(renouveau catholique)’와 그 노선의 프랑스 가톨릭 작가 베르나노스(Bernanos)와 레옹 블루아(Leon Bloy)의 영향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뵐은 개혁적 성향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뵐은 서독의 보수적인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뵐의 가톨릭에 대한 불신의 뿌리는 제3제국의 히틀러와 바티칸과의 결속과 타협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건은 뵐이 가톨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며, 뵐은 이에 반대하는 ‘청년 가톨릭 모임’의 주도적 인물이 된다. 당시 CDU/CSU의 서독 보수정당의 가톨릭과의 결탁을 철저하게 경험한 뵐은 결국 1976년 가톨릭의 종교세를 내는

것을 거부하고 그곳에서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벨은 그 이후 많은 인터뷰에서, 자신은 가톨릭 탈퇴 이후에도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그가 서독 가톨릭, 정치와 연합된 가톨릭, 제도적 기구로서의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벨은 육(corpus(Körper))과 몸(corporation(Körperschaft))을 구분하면서<sup>3</sup>, 자기는 가톨릭 종교에는 속했지만, 가톨릭교회(기구)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이 만약 독일에 살지 않았다면 가톨릭을 탈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벨은 독일 가톨릭의 지나친 정치화를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벨은 기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다시 말해 순수 예수 복음-예수의 ‘산상보훈’이나 ‘이웃사랑’으로 대표할 수 있겠지만-이 종교의 참 모습이지, 정치와 결탁한 세속적 종교는 참다운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벨의 전 작품에 걸쳐 모두 나타난다. 그 중 그의 초기 작품 「교회의 가장자리에서」와 『사랑 없는 십자가』, 그리고 실질적 데뷔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963년 당시 가장 종교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어릿광대의 고백』에서 특히 이것을 잘 찾아볼 수 있다. 벨의 후기 작품에 오면 종교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벨이 종교에 대해 거는 기대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벨이 그 동안 종교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후기로 올수록 벨은 더 이상 서독에서는 종교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벨이 당면한 경제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전쟁 직후 대부분의 독일인이 그랬지만 벨 자신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전

쟁 후 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시 레알솔레 교사였던 아내 안네마리에 게 5명의 가족과 가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 「검은 양들」로 받은 47그룹 상은 벌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1953년 발표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독자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경제적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전쟁 후 50년대 서독은 마샬 플랜에 따라 미국의 원조 등을 기반으로 소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경제부흥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에는 개인적 희생이 뒤따랐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특히 인간성)도 희생 가능하다는 경제 제일주의 발상은 작가 벌에게 여전히 낮은 구호가 되었던 것이다. 서독 사회가 지향하는 경제 제일주의와 이에 수반된 군 재무장, 화폐개혁 등은 인간성을 메마르게 하면서 여전히 ‘살만한 나라’와는 멀어져 있다고 벌은 생각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쾰른 출신 서독 수상 아데나워와 서로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 이후로 당시 팽배해 있던 황금만능주의와 ‘업적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벌은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의 빵』, 『보호자 없는 집』, 『어릿광대의 고백』 등에서 이것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업적원칙 거부’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여인과 군상』이다.

벌의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은 60년대에 와서 더 커지고 넓어진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68년 학생운동, 소련의 프라하 무력진압 등 많은 정치적 사건이 벌어졌던 때이다. 이러한 폭압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벌은 드디어 60년 말부터 “검양의 끝, 약자의 연대”를 말하였

고,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면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후 그는 서독 펜클럽 회장, 세계 펜클럽 회장을 역임하면서 솔제니친, 김지하 등 독재로 억압받는 타국 작가들을 위한 구명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켰지만 SPD 수상 후보였던 빌리 브란트 편에 적극 서서 현실 정치의 변혁을 꾀하게 된다. 70년대에 들면서 발표한 『여인과 군상』(1972),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3), 『신변 보호』(1979) 등이 모두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다.

1970년대는 뵐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적군과 바더-마인호프를 옹호하는 글을 써서- 결국 이것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쓰게 했는데- ‘테러의 정신적 지주’로 오해를 받은 뵐은 그 대가로 가택수색을 수차례 당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압박 속에 그는 쓸쓸한 ‘독일의 가을’을 맞보며, 지나친 보안과 경계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고발하는 작품 『신변보호』를 쓰게 된다. 인간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인과 군상』은 뵐 작품을 총 정리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소설은 20세기 독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언론의 폐해’, ‘명예살인’을 다루고 있으며- 이 작품의 부제도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어떻게 낳는가?’이다-, 『신변 보호』는 지나친 경호에 대한 경고, 즉 경호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뵐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살만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1980년에 들어 1985년 죽기까지 뵐은 다소 우울한 말년을 보내면서도

당시의 반핵 운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이와 같은 그의 활동은 자연스레 당시 환경문제 등에 적극적이었던 녹색당과 연계하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현재 ‘하인리히 뵐 재단’은 ‘녹색당(Die Gruene 90)’과 연합하여 많은 사회 정치 사업을 단행하고 있다. 제3세계의 정치적 어려움에 관여하여 구호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난민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 3. 행복 찾기

앞서 밝혔듯이 뵐 문학에서 흔히 드러나는 주제는 한 개인과 그 개인을 억압하는 기구 혹은 체제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이루는 모티브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결혼, 사랑, 이웃사랑, 저항 해프닝 등이다. 이에 대한 작품 주인공의 태도는 탈락, 하차, 업적원칙 거부 등으로 드러난다.

뵐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행복은 인간이 인간답게 인정받고 대우받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 위에는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며 - 그렇다고 해서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뵐은 생태주의 사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인간 간에도 어떠한 차별이나 분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이 만들었지만 오히려 인간을 종속하는 여러 가지 기구나 조직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뵐이 이러한 조직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컸는지는, 2차 대전 이후

서독 문단을 이끌었고 벨 스스로 거기서 상을 받기도 했던 ‘47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그가 어떤 조직에도 소속되는 것을 거부한 데서 알 수 있다. 벨은 모든 억압된 체제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자유롭게 더불어 사는 인간의 공동체, 즉 ‘살만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 3.1. 연인 간의 사랑

벨 작품의 가장 중요 모티브 중 하나가 남녀 간의 사랑이다. 연인 간의 사랑은 작품을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는데, 『불사르는 사람들』 등의 단편 소설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소설 주인공으로는 『열차 시간은 정확하였다』의 안드레아스와 올리나, 『아담, 너 어디 있었니?』의 파인할스와 일로나, 『어린 시절의 빵』의 발터와 헤드비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의 프레트와 캐테, 『어릿광대의 고백』의 슈니어와 마리, 『여인과 군상』의 보리스와 레니 커플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미 부부가 된 커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예외이고, 『어린 시절의 빵』을 제외한 모든 커플의 사랑은 결혼으로 성사되지 못한다. 즉, 벨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 혹은 종교적 제도가 허락하는 결혼보다 연인 간 이루어지는 순수한 사랑에 초점을 둔다.

연인 간의 사랑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휴가를 나왔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심리적 불안을 다룬 『열차 시간은 정확하였다』의 안드레아스-올리나 커플은 휴가 중, 전쟁 중에서 불꽃같은 일시적인 사랑을



나눈다. 여기서 올라나는 전장 복귀에 불안해하는 주인공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아담, 너 어디 있었니?』의 파인할스-일로나 커플의 경우도 『열차 시간은 정확하였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일로나는 불안해하는 주인공에게 한없는 위로와 안정을 가져다주려고 애쓴다. 결국 파인할스는 고향을 눈앞에 두고 다리가 폭파되는 가운데 자신도 유탄에 맞아 죽게 되지만, 이 소설에서 오래가지는 못하지만 유일하게 소중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일로나인 것이다.

『열차 시간은 정확하였다』와 『아담, 너 어디 있었니?』에서 남녀 간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는 전쟁이다. 전쟁은 ‘장티푸스’같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인간을 가장 야만적 모습으로 변모하게 하는 것이다. 전쟁 혹은 부대는 벌 작품을 이끌어 가는 핵심 요소이다. 이것에 대비되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 남녀 간 사랑인 것이다.

『어린 시절의 빵』에서는 전쟁 후 독일 경제부흥 시기의 남녀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절의 빵』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위협적 존재는 출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는 당시 황금만능주의 풍조에서 나타나는데, 주인공 발터도 이에 동조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진다. 하지만 헤드비히를 만난 이후 종전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사랑의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출세를 위해 사귀었던 사장 딸 올라와 헤어지고 헤드비히와 미래를 약속한다. 이 소설은 벌 작품에서 보기 드물게 남녀 간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이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런 남녀관계의 진전으로 인해 이 소설은 통속성향의 비판을 비껴가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 캐테와 프레트는 이미 결혼한 부부로 살아가지만 이들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을 겪은 남편 프레트의 정신적 방황과 경제적 어려움이다.

사랑과 행복의 문제는, 제도적 사랑인 결혼(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슈니어와 마리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는 『어릿광대의 고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슈니어에게 사랑은 어떤 외부 요소도 작용할 수 없고 오직 남녀 간 사랑의 감정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년 간 동거해 온 마리의 경우 가톨릭의 종교적 강요(가톨릭이 인정하는 결혼, 또 가톨릭에 적합한 자녀 양육)에 굴복하여 결국 가톨릭 모임 단체에서 만난 취프너와 정식으로 결혼해 로마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된다. 슈니어는 이것이 인간의 순수한 사랑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본 역에 나가 구걸을 하며 마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는 가톨릭 종교의 인간의 행복권 박탈을 문제 삼고 있다.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이 지닌 순수한 ‘자연법칙’이 종교계가 강요하는 ‘질서원칙’ 때문에 손상을 입고 결국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당시 가톨릭 교계뿐 아니라 서독에 많은 반향과 비판을 일으켰던 작품이었다. 이러한 무정부적인 슈니어의 태도는 다름 아닌 인간의 행복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인간을 가차 없이 불행 속으로 밀어 넣는 종교의 역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여인과 군상』의 경우 레니는 그녀의 첫 번째 애인 보리스와 “참호 속의 사랑”을 불태운다. 러시아 포로였던 보리스는 주변 독일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데, 레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이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한 잔의 커피 사건”은 이러한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남녀 간 사랑은 사회적으로 외국인과의 사랑으로 확장된다. 보리스도 그렇지만 레니가 새로 동거에 들어간 메메트도 터키 노동자로서 레니는 그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다. 『열차 시간은 정확하였다』와 『아담, 너 어디 있었니?』 등 초기에 나타난 국경 초월의 사랑이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3.2. 복음의 구체성

벨은 종교가 인간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종교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인간을 그 계율과 율법, 교리로 구속하고 억압하며, 심지어 『어릿광대의 고백』의 경우에서 보듯 소박한 한 인간의 삶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뿐 인간의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벨이 김나지움 졸업 시기에 쓴 단편 「불사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한 개인에게 희망과 삶의 희열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면, 전쟁 이후 발표된 그의 대부분 작품에서는 성직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벨 작품에는 대체로 세 그룹의 성직자가 등장하는데, 종교지도자 격인 고위 성직자(신부)와, 두 번째 가난하고 불쌍한 농촌(농부) 성직자, 그리고 세 번째 수녀이다.

벨 작품에서 착하고 가난한 권력이 없는 성직자도 간혹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고위 성직자들은 권위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직업인으로 그려진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의 신부이다. 캐테는 이러한 성직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항상 어디서든 직접 기도한다. 또한 그녀는 형식적인 미사가 없을 때 교회에 가서

‘신의 현존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평화’를 느끼는 것이다.

『어릿광대의 고백』에서는 ‘자연법칙’과 ‘질서원칙’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는 지나친 교리 수호가 한 개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지극한 고통을 안겨다준 것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위 가톨릭 분위기에 편승한 많은 성직자, 신도들은 교리에 얽매어 자신이 맡은 ‘이웃사랑’이라는 종교적 사명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슈니어는 종교적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을 떠나 다른 가톨릭 신자 취프너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떠난 마리를 다시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나나 당신이 아니라 질서예요”라는 마리의 이런 고백은 모두 주변에 있는 가톨릭 지도자들의 부추김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의 시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이다. 나사렛 예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는 역사를 거듭할수록 그것이 교리화, 체계화되며, 그에 따라 종교의 순수성과 원래 목적은 상실하고 껍데기 율법만 털링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사상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하는 것은 당시 이단에 대한 변증이나 포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나, 문제는 원래의 신앙 가치를 상실하고 그것을 지키는 교리만이 강조되기 때문이었다. 물론 16세기 종교개혁이나 18세기 경건주의 운동 등의 복음주의 개혁신앙은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었지만, 빌이 경험한 서독 사회는 종교와 정치의 연합으로 인해 참된 종교의 방향성이 상실되어 버린 사회였다.

알버츠 H. Alberts가 친구 빌을 가리켜 “예수에 가까이 있는 작가 (Poet(en) in der Nähe zu Jesus)”<sup>4</sup>라 말했고 예치오콜브스키가 “빌은 예수의 원 텍스트를 그의 작품에서 계속 써내려갔다(dass Böll in seiner

Epik den Urtext Jesu fortschreibt)”<sup>5</sup>고 평한 것처럼 벨의 작품은 기독교 신앙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벨 작품의 제목-‘말’, ‘빵’, ‘집’, ‘십자가’-에서도 기독교 색채를 읽어낼 수 있지만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성찬’ 혹은 ‘성사(聖事)’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난다. 『아홉 시 반의 당구』에서는 ‘들소의 성사’와 ‘양의 성사’ 두 인물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착한 사람들과 주인공과 반대 입장에 서는 악한 사람 그룹이다.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착하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주인공들인데 반해, 들소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치주의자, 기회주의자, 황금만능주의자 등으로 등장한다.

벨의 작품은 문학성이 뒤쳐진다는 평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또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벨 문학의 통속성 시비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작중인물 구도가 지나치게 흑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포스터가 얘기한 ‘평면적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며, 이러한 구도는 도덕적 혹은 교훈적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던져주려는 벨로서는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물론 『여인과 군상』 등 후기작품에 가면 이러한 평면적 인물 구도가 희석되어진다. 펠처라는 인물이 대표적인데, 그는 초기에는 나치 체제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었으나 나중에는 레니를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입체적 인물로 바뀌게 된다.

『아홉 시 반의 당구』에서 성사의 개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면, 『여인과 군상』에서의 성사는 좀 더 체화된 구체적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난다. ‘감성의 천재’ 레니는 “왜 신선한 빵을 빨리 주지 않죠?”라고 말할

정도로 성찬식을 열렬히 기다린다. 이러한 고백 또한 성찬이 따로 떨어져 하나의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하나 되는 구체적 체화(인카네이션)로 작동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라헬 수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몸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종교도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라헬이나 레니가 금기인 인간의 성기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는 것 또한 삶과 거룩함이 구별되지 않는 구체적인 복음 실현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몸과 영이 하나 되고, 신앙과 삶이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복음의 구체화 시도는 저 멀리 계몽주의, 경건주의, 종교개혁, 더 나아가 예수의 원 복음 정신에까지 뻗어있다고 볼 수 있다.

### 3.3. 기구 혹은 조직 거부

벨에게 있어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고 인간을 구속하여 행복과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결혼, 종교 외에 인간이 만든 국가, 관료주의, 군대, 학교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벨에게는 실행원칙을 강요하는 기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선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희화화는 단편 「애들도 민간인이다」에 잘 드러난다. 이것은 병영에 빵을 파는 아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이 까지도 편 가르기를 하는 부대와 전쟁, 그것을 통제하는 인간의 기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부대(군대)의 폐쇄성은 이 작품 외에도 「당시 오데사에서」 등의 단편뿐만 아니라 『열차 시간은 정확하였다』, 『아담, 너 어디 있었니?』 등의 초기 소설 및 중후기 작품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특히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대와 거리』에서는, 초기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던 주인공들의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부대에서 탈영하여 지프에 방화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군대 혹은 부대가 인간을 얼마나 수동적으로 규제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벨의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인과 군상』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난다. 여기서는 이전 포로 생활이나 군 생활의 실상이 여러 증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포로들이 강제수용소로 수송당하는 과정에서 겪는 비인간적인 실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군대와 기구에 대한 혐오는 벨 자신의 경험, 그리고 전후 재무장하려는 독일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군대 혹은 기구는 인간의 행복을 결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대 외에 학교도 ‘업적원칙’을 조장하는 기구로서 벨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된다. 단편 「그대 스파로 오려느냐」에서도 부상당한 주인공이 후송당하는 학교 복도에서 히틀러 총통 사진을 보게 되는데, 학교가 군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교육과는 상관없이 국가 권력에 얽매어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작품에서뿐 아니라 『어릿광대의 고백』에 와서도 학교의 무기능성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슈니어가 학교 교육제도를 따르지 않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으로 광대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자 정규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충돌하는데, 슈니어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 이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벨이 학교를 인간의 창조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자유로운 인격

형성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도록 교육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인과 군상』에서도 정규교육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레니의 아들 레브는 학습 능력도 있고 조직력을 갖춘 청년이지만,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벨의 특기인 ‘하차’를 단행한다. 다시 말해 그가 능력이 없어 하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학교 교육이 하나의 업적원칙을 조장하는 기구로 보고 이에 합류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군대, 학교 외에도 업적 원칙을 조장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고 늘 비인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곳으로 교회가 있다. 단지 성직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어릿광대의 고백』에서 슈니어가 “교회는 돈으로 인해 악취를 풍겨낸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든지, 슈니어의 동생 레오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무런 동정도 베풀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교회나 신학교의 무능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벨이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정치 및 관료주의이다. 단편 「나의 슬픈 얼굴」에서 주인공이 어느 해변을 거닐다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당한다. 인간의 감정까지도 조종하려는 전체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 이 관료주의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고위 관직자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조종 관리하는 기능으로 전락하여 작가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4. ‘살만한 나라’의 모델

하인리히 뵐은 외국인/타자에 대해 세계동포주의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을 소속시키고 규제하고 조정하는 어떤 기구도 거부하고, 인간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작가 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인간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전 작품에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로, 우선 그의 작품 속의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형상화에서 찾을 수 있다.

유고집에서 발견되어 뒤늦게 발표된 『사랑 없는 십자가』가 나오기 전까지 뵐의 처녀 소설로 알려진 『열차시간은 정확하였다』에 나오는 올리나는 폴란드 출신이며, 그 이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아담, 너 어디 있었니?』의 여 주인공 일로나는 유대인이다. 이 두 여주인공은 앞서 살펴본 대로 전쟁으로 인해 늘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는 주인공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준다. 폴란드 창녀였던 올리나는 안드레아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현장에서 그를 위로하며, 안드레아스에게 ‘조국’, ‘영웅’같은 개념을 무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일로나도 음악과 미적인 감성으로 전쟁 중인 파인할스를 위로한다.

1995년에 발표된 단편모음집 『창백한 개』에 실린 「파리에서 붙잡히다」에서는 독일 국적을 가진 한 시민이 인간이라는 보편적 존재를 규정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전쟁 말기 파리에 참전 중이었던 독일 병사 라인하르트는 연합군의 공세에 밀려 어느 가정집으로 숨어든다. 그

집 여주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 독일군에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하르트를 숨겨주고 자기 남편인 것처럼 해서 그를 살려둔다. 그녀는 라인하르트도 운명적으로 독일군으로 참전해서 쫓기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그녀는 라인하르트를 독일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라인하르트도 마찬가지로 생각이다.

“나는 미군이나 독일군을 피해 도망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전쟁을 피해 온 것이지요”라는 라인하르트의 말은 독일시민, 독일군이라는 개념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유토피아, 즉 벨의 경우 ‘살만한 나라’는 벨의 노벨상 수상작인 『여인과 군상』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주인공 레니의 인물 평가도 이 세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상향적 인물’이며, 이 작품에서 ‘레니-후원회’라든지, 오물 파동 등은 이러한 유토피아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실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것은 주인공 레니의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과 외국인 사랑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의 생각은 한 때 자신이 좋아했고 러시아 포로였던 보리스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한 잔의 커피 사건”에서 잘 나타나는데, 나치주의자 크렘프가 고의로 레니가 보리스에게 가져다주는 커피잔을 쳐서 떨어뜨렸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떨어진 잔을 아무 말 없이 주워 다시 수도물에 씻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도발적이었죠. 아무 말 없이 다시 잔을 건조 수건에 닦고서는 두 번째 커피를 타서 보리스에게 가져다주는 거예요. 크렘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어서 드십시오’라는 말을 곁

들여서 말입니다”로 인용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보리스를 ‘처음으로 인간 되게 만든, 인간임을 선포하게 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레니는 터키 노동자 메메트와 결혼해 살고 있으며, 그의 아이까지 임신하여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벨의 이러한 인물배치에는 국적이나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본다는 휴머니즘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등이 작품 내에 잘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는 인간적 수용에서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명실상부한 쾰른 출신인 벨의 사상은 이러한 지역, 국가, 인종을 넘어선 세계동포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하인리히 벨 재단’이 약 20년 전에 소재지를 쾰른에서 베를린으로 옮겨온 이유도 이러한 성격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금 ‘벨 재단’은 녹색당과 연합하여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구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쾰른 근처 랑에브로흐에는 난민 작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여 몇 년간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벨이 지닌 인간에 대한 경외심,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상호문화적 교류를 위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벨이 쫓는 행복의 개념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벨이 말하는 행복은 소시민의 소박한 것이며, 이는 남녀 간의 사랑, 종교적 사랑의 실천, 업적원칙이나 사회 제도 등의 거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복은 줄곧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로 등장하며 이는 작가 벨이 평생 원했던 것이었다. 벨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한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고스란히 그의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결국 빛은 ‘살만한 나라’에서 ‘살만한 언어’의 소유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정인모(2007): 『하인리히 뵐의 문학세계』, 부산대학교출판부.
- Balzer, Bernd(1997): *Das literarische Werk Heinrich Bölls*, München.
- Bellmann, Werner(Hg.)(1995): *Das Werk Heinrich Bölls. Bibliographie mit Studien zum Frühwerk*, Opladen.
- Böll, Viktor und Schäfer, Markus(1997): *Fortschreibung*, 1. Aufl., Köln
- Garske, Volker(1998): *Christus als Ärgernis*, Mainz.
- Gelfert, Hans-Dieter(2002): *Wie interpretiert man einen Roman?*, Reclam, Frankfurt am Main.
- Hummel, Christine(2002): *Intertextualität im Werk Heinrich Bölls*, Trier.
- Linder, Christian(2009): *Das Schwirren des Heranfliegenden Pfeils. Heinrich Böll. Eine Biographie*, Berlin.
- Reid, J. H.(Hg.)(2010): *KA 26*, Köln.
- Schirmmacher, Frank(2014): *Ungeheuliche Neuigkeiten*, 1.Aufl., München.
- Schnell, Ralf(2017): *Heinrich Böll und die Deutschen*, K.&W. Köln.
- Sowinski, Bernhard(1993): *Heinrich Böll*, Stuttgart.
- Vormweg, Heinrich(2000): *Der andere Deutsche Heinrich Böll. Eine Biographie*, Köln.

---

<sup>1</sup> Viktor Böll und Markus Schäfer(1997): *Fortschreibung*, 1. Aufl. Köln, 10.

- <sup>2</sup> Hans-Dieter Gelfert(2002): *Wie interpretiert man einen Roman?*, Reclam, Frankfurt am Main, 63.
- <sup>3</sup> H. Böll(1982): Über Religion und Kirche. Interview von Robert Stauffer, in: Ralf Schnell(Hg.)(2010), *KA* 26, Köln. 147.
- <sup>4</sup> H. Alberts(1985), Poet in der Nähe zu Jesus, in: *Evangelische Kommentare. Monatszeitschrift zum Zeitgeschehen in Kirche und Gesellschaft* 18. 469. Volker Garske(1998): *Christus als Ärgernis*, Mainz. 280에서 재인용.
- <sup>5</sup> K. Jeziorkowski: Die Schrift im Sand, S. 162. Volker Garske(1998): *Christus als Ärgernis*, Mainz 1998. 280에서 재인용.

# 하인리히 뵐이 열망한 대안사회\*

사지원

## 1. 하인리히 뵐의 생태적 사유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적고 지속가능한 사회(=생태사회)를 위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먼저 했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인력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기업문화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은 수년간의 시간과 자본을 투입하여 키운 인력을 해고하는 대신에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노동시간유연화 정책을 택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노동시간이 적고 원자력발전소가 완전히 폐쇄된다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속성이 있으며 복지국가일수록 사회적 욕망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범국가인 독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재탄생하

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흔히 ‘68 혁명’이라고 불리는 1968년에 일어난 학생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독일에서는 범사회적으로 신 사회운동이 펼쳐졌다. 이 운동은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인한 생태파괴의 대안, 관료주의적 체제개선, 냉전체제의 재무장화에 대한 반대, 여성해방운동 등의 사회적 모순을 재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었으며 대안사회를 추구했다. 해서 생태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대안적인 생활개혁 운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바탕에는 공통된 서구민주주의 시민정치의 새로운 질적인 면을 담고 있었다.

당시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며 선두에 서서 젊은이들과 함께 했던 작가가 하인리히 뵐이다. 이때 특히 그가 주목했던 운동은 생태운동이었다. 생태운동은 단순히 환경보전이나 훼손된 환경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파괴를 가져온 근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기본적 가치를 문제 삼고 예고에서 에코로의 의식의 전환, 즉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적 기반 위에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구축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생태적 가치란 인간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물질주의, 업적주의 등의 기존가치와 기계문명에 의존한 기존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적 연관성에 기초한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말한다. 따라서 다양성, 상호연계성, 지속성, 순환성 등을 이념으로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연과 어울리는 삶을 추구한다.

사실 뵐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58년에 발표한 「루르지역」에서 “이 지역에서는 매연과 돈 움막과 석탄, 코카인 가스, 화학증기 냄새와 더불어 권력냄새가 나며”, 이 권력은

힘없는 사람들의 탄광 안에서의 “포로생활”에 의해서 얻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을 수립한 아데나워 정부가 라인지역에 석탄 및 화학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벨의 고향이자 거주지였던 쾰른이 “독가스 부엌”이 되어가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그는 주변세계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통적인 환경뿐 아니라 발아래의 땅, 이웃, 숨 쉴 공기”라고 정의하고 “너희에게 대지를 예측시킨다는 말은 대지를 파괴하고 경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자연 자체를 존경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그의 관심은 원자력발전소 건립 반대와 핵폐기물의 처리문제, 유전자조작 및 핵무기 개발 반대, 산성비로 인한 숲의 훼손, 도시의 광역화로 인한 농촌마을의 해체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심화되었으며 1979년에는 생태운동을 벌였던 젊은이들 및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녹색당을 결성하였다.<sup>2</sup>

하인리히 벨이 녹색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기독교민주당과 연정을 하고 집권여당이 되었던 사회민주당보다 녹색당이 성장과 소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독일사회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벨이 독일사회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비판했던 점은 이익경제 정책과 그로 인한 매상고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사회분위기였다. 그는 1972년에 발표한 「통 안에 든 공기」라는 글에서 “연방독일의 눈먼 재건 시기에 성찰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목표로 매진하였고 (...) 세계는 이 재건을 일종의 기적이라고 놀라면서 받아들였다”고 한탄하면서 “이 기적의 원인은 근면뿐만 아니라 동참자 모두가 장님노릇을 했기 때



문”이라고 개탄한 적이 있다. 즉, 완전 폐허 상태에서 “이른 바 사회주의나 사회주의의 유사한 형태를 시작할 수 있었음”(Böll 1975, 73)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취지향과 이윤과 소비추구의 자본주의 사회를 택하였고 그 결과 땅과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자연정경은 인간, 동물, 물, 숲, 공기, 땅이 순전히 그 유용성에 헌신할 때 생겨나는 산업정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국가의 복지는 더 이상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공기와 식수로 측정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정리하면, 하인리히 뵐은 독일사회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추구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뵐의 사유는 사회생태주의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회생태주의는 머레이 북친에 의해 주창된 이론이다. 북친은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와 인간의 지배속성이 근본적으로 생태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즉, 오늘날의 생태위기는 인간이 같은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 속성이 자연으로 확대되어 야기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위기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고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위기나 마찬가지로 이기에 자본주의의 타파와 사회의 변혁만이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북친은 주장하였다(북친 1999, 108ff.).

독일의 사회생태주의자 루돌프 바로 역시 생태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다고 여겼다. 이때 그는 자기근절과 근본주의를 주장하였다. 보충하면 바로는 현대의 산업체제는 자본과 기술과 과학이 함께 작동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모태까지 뿌리 채 근절시키는 메가 머신이이기 때문에 서너 세대가 누리는 복지는 반드시 수세기에 걸친 질병과 고

통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생태위기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는 인간의 영적·정신적 전환으로만 가능하기에 중요한 것은 전환에의 의지라고 강조하였다(Bahro 2006).

하지만 벨이 이론가로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아니라<sup>3</sup> 작가로서 또 독일사회의 시민으로서 인간,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생명체를 살리고 생명체가 공생하는 사회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생태계 파괴와 원자력발전소 건립 및 유전자 조작 반대 등에 대해 글로 피력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생전에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벨의 사유를 생태주의 이론에 도식적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그가 지닌 생태적 사유를 작품을 통해 파악하고, 그가 열망했던 대안사회의 모델을 추출해볼 것이다.

## 2. 하인리히 벨이 추구한 대안사회의 문학적 형상화

### 1) 여유로운 삶을 위한 노동

벨은 직업강박증과 조급증에 사로잡혀 쫓기듯이 일상을 보냄으로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피하고자 하는 전후사회의 정서를 감지하고 그의 인물들을 통해 이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1953년에 발표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의 주인공 프레드 보그너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진지하게 여긴 모든 것에 대해 너무 일찍이

무관심해져 버린 얼굴”을 하고 있는 그는 3년 마다 일자리를 바꾼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인간들의 야만성과 도덕적인 추락을 바닥까지 보게 된 그는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버렸다.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권태로울 뿐이다. 요제프 엔드레스에 의하면 권태에 의해 찌들어버리거나 중독된 사람은 일에도 즐거움에도 자신의 삶에도 (...) 세계의 어떤 대단한 사건에도 관심이 없으며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수동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프레드의 경우가 그렇다. 그에게는 권태와 삶의 무의미와 싸우는 것이 직업이나 그의 가족의 부양에 대한 걱정보다 더 큰 문제이다. 하지만 전후사회는 그가 지니고 있지 않은 강력한 “에너지”와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 견지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경제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는 “남의 희생에서 자신의 이득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Fromm 1980, 301)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시종일관 불평하고 분노한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내면으로 혼자서 하는 독백일 뿐이다.

1950년대 초반, 아직 신진작가였던 벨의 작중인물들은 프레드 보그너 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비판자들이다. 하지만 사회참여작가로서 명성을 얻고 기반을 다진 중견작가 벨은 그의 인물들에게 점점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그런 인물들 중에서 비폭력적으로 신념에 따라 꺾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인물이 『여인과 군상』(1971)의 주인공 레니 그루이텐이다.<sup>4</sup> 벨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기도 한 이 소설에서 벨은 여러 주제를 연계시키면서도 탄탄한 구성으로 업적지향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를 여실히 드러낸다. 레니 그루이텐은 병이 들거나 노후가 된 것도 아니면서 이유

없이 직업을 내던지고 재산이라고는 없다. 직업을 그만두기 전 회원에서 일할 때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 몇 번이나 독립할 기회를 가졌지만 매번 이를 거부하고 회원의 종업원 생활에 만족하고 필요한 만큼만 벌었다.

그녀의 아들 레브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깨끗하게 하지만 더럽다고 여겨지는 일”에 종사한다. 그는 이 분야에서 조직능력을 인정받아 깨끗한 사무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단호히 거절한다. 레브는 “업적이 어떤 소득을 생기게 하는 학교에서는 업적 거부, 업적이 아무런 소득을 가져오지 않는 학교 밖에서는 업적 상승을 실천함”으로써 성과지향주의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모자(母子)는 오로지 이윤과 업적추구를 생활지침으로 삼고 있는 호이저가의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다.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방을 헐값에 세주고 있으며 쓰레기를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만을 입주시켜 건물의 사회적 매력과 방값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호이저가의 사람들은 이윤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답게 철저히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성공과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을 밀어내고 억압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벨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에세이와 단편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이윤추구 사회의 업적지향주의에 대한 거부를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노동에 대한 사고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윤리의 하락에 대한 일화」는 벨의 노동에 대한 개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한 항구의 전경사진을 찍기 위해서 도시에서 온 관광객이 한 번만 출어를 하고 선창가에서 느긋하게 햇빛을 즐기고 있는 어부를 보고 왜 더 이상 출어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어서 그는 더 많이 출어하면 할수록 더욱 커다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말하자면 기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근사한 청사진을 펼친 이후 “그렇게 되면 당신은 여기 항구에 편안히 앉아 졸면서 이 멋진 바다를 바라보기만 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어부는 “난 벌써 그렇게 하고 있소. 항구에 편안히 앉아서 즐기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방해했을 뿐이오”라고 대꾸한다.

벨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욕망이 욕망을 낳는 문명의 도시에서 온 남자와 한적한 어촌에서 필요한 만큼만 버는 어부의 노동 개념에 대한 예를 대립시킴으로써 노동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단숨에 드러낸다. 이처럼 벨은 노동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해야 할 것을 피력하며 이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거대자본주의 사회의 “젊은이들은 출구를 찾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한 문제”(Böll 1971, 57)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그는 레니와 레브를 통해서 “순전히 성취지향적인 사회”에 정면 도전하게 하고 어부를 내세워 필요한 만큼만 버는 새로운 인간형을 선보이며 노동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한다.

## 2) 개발신화의 거부

벨은 옛 것을 무조건 부수고 파헤치는 개발정책 대하여 여러 글에서 지적하지만 1950년대부터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 석탄채굴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58년에 발표한 「루르지역」에서 광부들의 포로생활에 의해서 권력이 얻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던 그는

1963년에 석탄채굴로 거부가 된 한 집안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어느 어릿광대의 견해』를 발표한다. 뵐이 이 소설에서 부모의 물신주의가 가져온 가정 붕괴를 나타내기 위해서 갈탄회사를 이용했다면, 1977년의 소설 『배려 깊은 포위』에서는 석탄채굴이 정치계와 경제계가 손잡은 폭력적인 개발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려 깊은 포위』의 주인공 프리츠 톨름은 독일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자본주의 사회 경제계의 거물이다. 그는 원래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였으나 정부의 “경제적 에너지 정책”에 협조함으로써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고 대 언론사의 사장이 되었다.

톨름은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지만 마을을 덮고 있는 매연으로 인해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새들의 비상조차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하며 “정지와 굴착 - 그리고 나면 석탄이 말해준다”는 슬로건 아래 이펜호펜 마을 전체가 절멸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한다. 정부의 “경제적 에너지정책의 필연성”에 관련 기관들은 물론이고 노조도 교회도 협조해야 했으며 언론은 이를 홍보해야 했다. 당시 톨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타협하고 엄청난 액수를 챙겨서 현재 살고 있는 저택 톨름스호펜을 구입하였다. 하지만 그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이 저택을 또다시 내놓아야 할 처지에 있다. 새 원자력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톨름스호펜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에도 자의든 타의든 당국의 개발정책에 협조하여 수십 배의 이득을 낼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욕구는 정치계와 경제계의 깊은 유대관계 하에서 점점 확대되고 자본화되어 간다. 이로써 뵐은 자본가들과 기업주들의 한계를 모르는 욕망과 이익정책이 땅을 죽게 만들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임을 제시한다.

나아가 빛은 이 소설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근사한 미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까지 밝힌다.

그녀 [톨름 부인]는 잠을 들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통하여 계곡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곳 지평선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서커스단의 전면처럼 수많은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환하지는 않았다. 그것을 코르체데 노인은 언젠가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했었다. ‘안전상의 이유에서 (...) 장식적인 이유에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정경의 마술이죠.’ 하지만 밝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밤에 몰래 버리는 쓰레기들과 짙은 연기와 탁한 공기들을 보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 장면을 통해서 빛은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야경, 즉 “산업-디자인-미학”(Böll 1980, 123)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빛은 “그것은 테크놀로지의 장난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린다.

이 산업-디자인-미학의 개념에 의해 도시는 기업들의 고층빌딩으로 들어차 있다. 게다가 이 빌딩들은 아름다운 전망을 갖기 위해 “장엄한 강이 최고·최상의 오염단계에 들어 서있는 지점”에 서있다. 강가에 고층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가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파헤치고 깎아내고 무너뜨리는 자본주의 근성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예컨대 『여인과 군상』에 등장하는 기업가 아르놀트는 “수백 년 전부터 유명한 호프가우젠 숲과 거기에 인접한 수많은 밭들이

NATO 비행장 건설부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sup>5</sup> 그는 수 천 마르크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일을 위해 정치가, 은행, 재벌 등 여러 그룹의 로비스트들과 손잡고 심지어는 국방장관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상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벌은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무자비한 개발은 산림과 국토의 황폐화뿐 아니라 인간정신의 피폐화를 드러내는 일이며 이들은 서로 맞물려 있음을 주장한다. 동시에 이로써 벌은 정치계와 경제계 인물들의 생태의식 부재뿐만 아니라 국토를 초토화시키는 생태의식 부재의 국가까지 폭로한다.

### 3) 과잉소비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소음의 거부

폐기물의 증가와 소음의 문제 역시 기술의 발달과 변영의 결과라고 벌은 말한다. 단편소설 「우편물 분류 처리자」에서 그는 경제부흥의 소비사회가 재정과 인력과 에너지를 들여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는 소설에서 우편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및 홍보물들을 분류하는 사람을 별도로 고용해야 하고 상품에 포장을 하고 다시 그 포장을 벗겨내는 수고와 낭비를 하는 소비사회를 지적한다.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망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버려지는 물건도 증가하며 그 쓰레기들은 슬그머니 라인강으로 버려진다. 때문에 “라인강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인강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라인강을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강으로 만들고 있다.”(Böll 1979a, 33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 되어 있는 라인강”은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이고 심지어 원자력발전소는 학생들의 견학지가 되고 있다. 벌은 이러한 사태를 보고 후손들을 핵폐기물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범죄라고 항의한다.

또한 벌은 방사능이나 핵폐기물처럼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소음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벌은 자동차의 증가와 그로 인한 소음을 문제 삼으며 몇 십만 대의 “격리의 매체”와 “엄청난 소음으로 인하여 도시가 파괴되어 버렸다”고 한탄한다.

나는 우리의 전 경제가 자동차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우리의 전 문명이 자동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이러저러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수도 생각해낼 수도 없지만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자동차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로마도 파리도 런던도.

(Böll 1985a, 80)

그는 이 소음의 문제를 『배려 깊은 포위』에서 에르나 브로이어를 통하여 구체화한다.

에르나 브로이어는 남편의 운전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가 경호원의 감시망에 걸려서 마을을 떠나야 했다. 대언론사의 딸이자 사업가의 아내이며 승마선수인 자비네 피셔를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한 눈에 들어오는 조그만 마을에 경호원들이 빈틈없이 배치됨으로써 그녀의 사생활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갈 수 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얻은 집에서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도시의 한복판에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데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진입로까지 놓여 있어서 밤이나 낮이나 방아쨍는 소리가” 나는 곳에 그녀가 세든 초라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광역화를 위하여 자연의 몫을 빼앗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그 위를 자동차가 쉼 없이 질주한다.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소음의 고통과 수면장애를 호소한다. 이때 벨이 강조한 점은 이러한 소음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권력에 저항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이제 안정과 휴식조차 특권층의 소유물이 될 것”(Böll 1979b, 611)이라고 냉소한다.

1979년에 발표한 이 소설에서 벨은 독일사회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갔던 테러리스트와 경찰의 대치 및 테러리스트들의 소탕을 위한 경찰의 권력남용뿐 아니라 속도와 소음에 삶의 질을 빼앗겨 버린 현대문명사회의 폐해를 총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즉, 그는 도덕성의 붕괴와 공동체의 해체 및 생태계의 파괴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4) 광고의 거부

벨은 일찍이 광고의 기능에 대해서 인지했고 광고를 소비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여겼으며 자본주의 사회는 시선이 오로지 시장을 향하고 있는 소비테러에 의해 규정되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자본주의의 소비사회에서는 생산성에 모든 것이 희생된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문화적 성장 없이 경제적 성장만이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적 성장과 소비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자에게는 언

제나 초록불이 켜지고 약자에게는 언제나 붉은 불이 켜진다.”(Böll 1979a, 177) 즉, 소비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첨예화되며 빛의 작중인물 프레드 보그너처럼 가난한데다가 “능력”과 “에너지”까지 없는 이들의 위축감과 박탈감은 더욱 심화된다.

경제부흥으로 치닫는 1952년 9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 등장한 거리는 활기가 넘치며 옷감과 담배와 휴가여행에 대한 광고가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유혹한다. 빛은 이 소설에서 광고테러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게들에는 상품들이 가득 차 있으며 확장기에서는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가 울려 퍼진다. 경제부흥으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은 휴가까지 즐길 여유를 갖게 되었으며 진열장의 마네킹은 벌써 스키복을 입고 겨울 스포츠용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회사들은 도심에서 효과적인 광고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성체축제일로 들떠 있는 도시는 약사들로 붐빈다. 소설 전체에 가톨릭교회와 약사협회의 긴밀한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성체축제행렬의 현수막이 내려지면 곧바로 그 자리에 “독일 약사협회. 전문전람회를 방문하십시오. 많은 견본 드림”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오른다. 또 교회 맞은편에는 “당신의 약사 없이 당신이 무엇일 수 있겠는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교회의 제단에는 독일가톨릭약사협회에서 기증한 양초다발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약사협회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한 치료제가 아닌 정신적인 치료제를 파는 약종상, 즉 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지까지 파고들어 사람들을 위협하는 약사들의 광고는 보그너 부부의 궁핍과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보그너 부부가 하룻밤을 초라한 여관

방에서 지낼 때, 광고용 비행기에서 나는 굉음은 프레드에게 전쟁을 상기 시킬 정도이다. 곧 눈같이 하얀 낙하산에 매달린 커다란 붉은 깃발에 쓰인 “그리스 고무 - 당신의 건강을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하늘을 뒤덮는다. 프레드 보그너는 이것을 “기업의 광고장난”이라고 일축하지만 “엔진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겨냥했고 적중시켰다. 나는 캐테가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독백한다. 이는 세 아이가 있음에도 다시 임신 중인 캐테 보그너와 피임기구 광고와의 대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

보그너 부부는 옷감과 담배와 겨울스포츠로 발전과 낙관주의를 광고하는 사회를 “잘못된 낙관주의의 사회”라고 칭하며 도덕성을 상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국가권력을 “위협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사회구조가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어 기형화되고 경제적으로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도 하류에 속하는 것처럼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따라서 빛은 성장을 뜻하는 소비와 낭비가 복지를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도 사회적 신분의 개선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연대의식의 약화와 소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박탈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그의 작중인물들은 성장 이데올로기와 생산성의 증가에 사로잡힌 사회를 불평하며 이에 편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작가생활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런 소극적인 불평과 저항을 벗어나 개인의 행복이 마치 “3년, 4년, 5년 후에 다시 버리게 되는 일정한 물건들의 소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상업주의 사회를 당당하게 거부하는 인물들을 내세운다. 즉, 그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도 주눅이 들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레니 그루이텐과 카타리나 블룸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소비사회로부터 “해방된

삶”(Vogt 1978, 13f.)의 모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빛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회에 더 이상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인물들에게 더욱 강한 저항력과 행동력을 부여하여 독자적인 길을 가게 한다.

그러면 빛은 어떤 사회를 소망하고 지향하였을까? 이에 대해서 조명해보자.

### 5) 지방의 작은 공동체 추구

빛은 그의 문학적 주제로 일상과 지방과 이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독일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폄하하는 지방이야말로 이웃과 신뢰할만한 연대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고 “삶과 일상의 기쁨”(Böll 1975, 79)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대량생산 되고 대량소비 되며 소음으로 가득 찬 대도시와 대조를 이루는 시골마을을 여러 작품에서 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곳은 “아침식사의 기쁨”과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으며 느린 삶이 펼쳐지는 곳이다. 사실 빛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권력과 거리가 먼 ‘작은’ 사람들을 국가나 교회가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그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희망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에서 작가의 사명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던 적극적인 참여 작가인 빛은 독자들에게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희망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작은 공동체에 대한 모델을 직접 선보인다. 그 모델이 등장한 작품이 1954년의 『보호자 없는 집』, 1966년의 『복무의 종말』, 1977년의 『배려 깊은 포위』이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빛은 약 10년 단위로 작품에서 작은 공동체의 모델을 직접 구상하여 보여주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슈마허, 2001)는 사실을 자각시키고 작은 공동체의 형성을 촉구하였다.

벨은 1954년의 소설 『보호자 없는 집』의 결말에서 평화롭고 인간적인 공동생활이 펼쳐지는 비텐한을 선보인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탁구공의 맑은 똑딱 소리, 빌마의 기빠하는 목소리, 알베르트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관대함. (...) 좋고 아름답고 따뜻하다.

이웃사랑을 잇은 대도시의 ‘보호자 없는 집’을 떠나 시골마을 비텐한으로 옮겨 온 아이들은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지내며 어른들의 돌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낚시를 하고 산을 오르고 축구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 등 동심을 살릴 수 있는 자연의 세계이며 아이들의 세계이다. 아이들이 아이다울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닌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도시에서처럼 부모가 가진 돈의 유무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하고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곳이 아니라 돈이 역할을 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한없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다. 또 그 반대로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어른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갖도록 자극한다. 따라서 그동안 삶을 혐오했던 넬라 바흐도 이곳에서는 소리 내어 웃으며 자상하고 따뜻한 모성애를 보인다. 요컨대 비텐한은 아이이건 어른이건 삶과 일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사회적 차이가 없고 (...) 치유가 이루어지는”(Balzer 1997, 159f.) 비텐한을 보여준 후 벨은 1966년의 소설 『복무의 종말』에서 다시 한 번 시골마을 비르글라를 배경으로 그곳의 주민들의 인정 넘치는 모습을 그린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자(父子)를 감방에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연대한다. 군대에서 일정한 양의 기름을 소모하기 위해서 매주 “킬로미터 잡아먹기”를 해야 하는 일에 신물을 느낀 게오르그 그롤과 세금에 시달리는 아버지 요한 그롤이 담합하여 군용차를 방화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다. 재판에 참석하러 온 마을 사람들은 사회적·공적 신분과 관계없이 서로 눈짓을 하며 미리 짠 작전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곳은 뵐이 「프랑크푸르트 강의」에서 말한 “인간적인 지방”, 즉 독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옆집의 가정사까지 서로 꿰뚫고 있으며 지방어가 쓰이는 시골이다. 이 마을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신부까지 법정에서 지방어로 증언을 한다. 뿐만 아니라 신부는 법정에서 이 지방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지방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지방은 언어가 그곳에 토착화되고 전수되면 세계문학의 현장이 된다”(Böll 1979b, 39)고 뵐이 주장한 바 있듯이, 그는 이 장면을 통해 독일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경멸하는 토속적인 것이 오히려 생명력이 있으며 그 생명력을 세계화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또한 무미건조한 것 같은 일상이 “사실은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지방 사람들의 일상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이들이 실천하는 형제애가 가족과 지인을 넘어서 마을 전체로 확대됨을 보여준다.

1977년의 작품 『배려 깊은 포위』는 프리츠 톨름이 경제인협회회장에서 ‘하차’하고 석탄채굴을 위해 모조리 파헤치게 될 톨름스호펜을 떠나 후프라이헨이라는 작은 마을에 온 가족이 모여 살 것임을 제시한다. 이곳은 우유를 농장에서 직접 사오고 빵을 직접 구우며 채소밭을 가꾸는 등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단순한 생활이 펼쳐진다. 뵐은 이 작품에서 톨름

가족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튼실한 공동체를 형상화 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회주의가 와야 한다”는 프리츠 톨름의 말을 통해 오히려 앞의 작품들보다 훨씬 더 선명한 대안사회의 형태를 표명한다. 이때 뵐은 “이 쪽저쪽 - 소련을 말함 - 할 것 없이 매일 더 많은 환자와 노예를 만들어 내는 체제”라고 말할 뿐 어떤 사회주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회주의는 루돌프 바로가 지적하듯이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는 70년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윤과 계급의 차이가 없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회이다. 즉, 그가 바라는 세계는 무자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으며 모든 생명체가 동등하게 공생하는 생태적 대안사회이다. “대지가 비옥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한다”(Böll 1985a, 134)고 인생말년의 인터뷰에서 호소하였듯이, 그는 생태적 대안사회를 위한 사회변혁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뵐이 희망하는 이 생태적 대안사회를 굳이 이론가의 표현으로 칭해보면 머레이 북친이나 루돌프 바로가 말하는 사회생태주의의 형태가 될 것이다.

요컨대 30년에 걸쳐 미학적으로 형상화 한 작은 공동체들을 뵐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일상의 소중함과 기쁨을 깨달으며 인간다운 삶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았다.

### 3. 행복한 세상을 향한 걸음

뵐은 자본과 과학과 기술이 결합된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들을 한계를



모르는 성장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하고 거의 전망할 수도 없는 경제 과정의 부품이 되어 의식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씬 없이 돌아가는 물레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사유에 따라 그의 작중인물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가 되지 않으며 정의와 사랑과 형제애가 결여된 사회에 저항하고 도전함으로써 다른 사회를 갈망하거나 아예 다른 대안사회를 형성한다. 언급했듯이 그 대안사회는 삶과 일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느린 생활이 펼쳐지는 지방의 작은 공동체이다. 즉, 빵을 직접 굽고 채소를 가꾸며 이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유대감을 느끼는 곳이다. 또 사회적 신분과 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계급과 차별이 없는 곳이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과 역할에 만족하고 당당하며 아이는 아이다울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용모를 가진 사회주의(Böll 1987, 108)” 또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러나 빌이 여러 작품에서 구상한 공동체들은 사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아나키즘적인 유토피아”(Balzer 1997, 159f)이다. 물론 자신도 미학적으로 형상화한 공동체들이 “여전히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꿈”(Böll 1987, 31)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유토피아를 펼치는 이유는 유토피아를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인류는 유토피아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고 (...) 유토피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언제나 유토피아 적이었다. 그러나 고루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비웃었다. 자동차와 같은 기술적인 유토피아조차 (...)

그것이 발명되었을 때 비웃었다. 나는 세계를 기술사적·정신사적 방법으로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한다.

(Rudolph 1971, 40)

또한 그는 아나키즘을 무질서, 혼돈, 폭력, 테러와 일치시키거나 동일시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한다.

나는 정신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무정부주의와 테러를 동일시하는 것을 치명적인 발전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물론 테러리스트가 된 아나키스트가 있다. 정치적 아나키즘의 역사에서 몇 명이 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정치사적·정신사적 전통에도 테러리스트들이 있다. (...) 그룹에도 이러한 일치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테러와 체념 사이에 다른 출구가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Böll 1978, 708f.)

동시에 그는 “헌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나 어떤 형태의 공적인 권력도 거부한다”며 이런 의미에서는 “자신은 아나키스트이다”(Böll 1985, 126)라고 말한다. 즉, 그는 정부를 부정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는 권위나 통치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유토피아적으로 또 아나키스트로 보일지라도 그의 작중인물들이 통치에서 벗어나 질서 있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동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노동하며. 생태파괴와 에너지 문제와 성장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행동함으로써 “업적거부의 유토피아”(Böll 1975, 78)를 실현하게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보그너 부부, 그를

부자, 레니 그루이텐과 그의 아들 레브, 톨름 가족 등이 현존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대항문화를 만들고 대안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뵐은 “아직 희망에 대한 토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개인에 한해서,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Böll 1986, 185)고 말하며 이런 작은 공동체에 의한 대안문화 내지는 대안사회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어 가기를 희망한다. 현대산업사회가 야기한 생태위기로 인한 사회위기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국제적 협력과 다각도의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의 모든 정책은 생태적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미래사회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지구촌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갖도록 유네스코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엘리트 육성교육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가 깊이 있게 사고하고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고려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하인리히 뵐과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작가들과 그들과 연대한 많은 시민이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하인리히 뵐의 정신을 되새기며 행동하길, 또 그럼으로써 인류가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 ■ 참고문헌

### 1. 하인리히 뵐의 문헌

*Werke. Romane und Erzählungen*, Bd. I-IV (=WI-IV), Frankfurt a. Main/Wien 1987.

*Essayistische Schriften und Reden*, Bd. 1-2 Köln 1979a/1979b.  
*Essayistische Schriften und Reden*, Bd. 3, 1980.  
*Drei Tage im März*. Ein Gespräch zwischen Heinrich Böll und Christian Linder, Köln 1975.  
*Feinbild und Frieden*, München 1987b.  
*Gespräch mit S. Lenz*. In: Siegfried Lenz: *Über Phantasie*, München 1986.  
*Im Gespräch*. Heinrich Böll mit H. L. Arnold, München 1971a.  
*Interviews 1*, 1961-1978, Köln 1978.  
*Ich bin ein Anarchist*, In: Stern, 31 (1985).  
*Ich bin kein Repräsentant*. In: die horen 4 (1980).  
*Ansichten eines Autors. Menschen, Dinge und Verhältnisse im Blickfeld von Heinrich Böll*. Abschrift im Heinrich-Böll-Archiv der Stadt, Köln.  
*Tag der Menschenrechte. Gespräch mit Hans Vetter*. Abschrift im Heinrich-Böll-Archiv der Stadt Köln.  
*Weil die Stadt so fremd geworden ist*. Bornheim-Merten 1985a.  
*Was ist Heimat?* Diskussion mit Heinrich Böll. In: Alexander Mitscherlich/Gert Kalow (Hg.) *Hauptworte-Hauptsachen*, München 1971.

## 2. 그 외 문헌

머레이 북친(1999): 「사회생태론」, 『생태학의 담론』, 서울(솔 출판사).  
 사지원(2011): 「독일의 신 사회운동이 녹색정치의 녹색당이 되기까지 - 창당과정과 영향 및 의미를 중심으로」. 『헤세연구』, 제25집.  
 Bahro, Rudolf(1977): *Die Alternative. Zur Kritik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Köln.  
 \_\_\_\_\_(1987): *Die Logik der Rettung*, Stuttgart.  
 Balzer, Bernd(1997): *Das literarische Werk*, München.  
 \_\_\_\_\_(1990): *Einfach leben - einfach leben*. In: Bernd Balzer/ Norbert Honsza (Hg.): *Heinrich Böll - Dissident der Wohlstandsgesellschaft*, Wroclaw.  
 Bernhard, Hans J.(1970): *Die Romane Heinrich Bölls*, Berlin.

- Bölscher, Viola(2005): *Die Flughafenerweiterung Frankfurt im Spannungsfeld zwischen politischer Meditation und Verwaltungsverfahren*, Barcelona.
- Durzak., Manfred(1979): *Die Romane Heinrich Bölls*, In: *Manfred Durzak: Der deutsche Roman der Gegenwart*, Stuttgart.
- Endres, Josef(1983): *Angst und Langeweile*, Frankfurt a. Main.
- Fromm, Erich(1980): *Gesamtausgabe*, Bd. VIII, Psychoanalyse, Stuttgart.
- Hosang, Maik/Seifert, Kurt (Hg.)(2006): *Integration. Natur-Kultur-Mensch. Ansätze einer kritischen Human-und Sozialökologie*. Symposiumsbeiträge zum 70. Geburtstag Rudolf Bahros, München.
- Reid, R. H.(1990): *Heinrich Böll*, München.
- Rudolph, Ekkerhard(1971): *Protokoll zur Person*, München.
- Stolz, Wolfgang(2009): *Der Begriff der Schuld im Werk von Heinrich Böll*, Frankfurt a. Main.
- Vogt, Jochen(1978): *Heinrich Böll*, München.

---

\* 이 글은 학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줄고 「하인리히 뵐이 추구하는 생태적 대안사회」 『카프카연구』 29, 143-163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 1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과 자연자원을 보장하면서도 현재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 2 때문에 뵐 스스로가 생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개념정의를 하지 않았다할 지라도, 그가 인간중심주의를 뜻하는 환경이라는 사유를 벗어나 있었음은 확실하다. 해서 그의 사유를 생태적 사유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3 하지만 뵐이 사회생태주의자 루돌프 바로의 글을 읽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뵐은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SED의 토대를 이루는 근거를 문제 삼은 『대안. 현존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출판하여 감금되었던 바로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 서독으로 이주한 바로와 함께 녹색당 창당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 4 『9시 반의 당구』의 요한나 페멜과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카타리나 블룸은 신념에 차있고 강한 행동력을 보이거나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대항한다.
- 5 이 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서부활주로 건설 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서부활주로 건설안은 프랑크푸르트 마인 공항주식회사가 1965년에 신청했던 것인데 행정당국

들의 의견대립과 지역 간의 견해 차이 및 68년 학생운동 등으로 결정이 미뤄졌다가 15년 후에야 허가가 났었다.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은 산림지역과 자연의 파괴와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7년간이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 서부활주로는 계획대로 1984년 완공되었다.

# 하인리히 뵐의 현실 비판과 대안

『운전임무의 끝』을 중심으로

정찬종

## 1. 60년대 독일 사회

하인리히 뵐의 중반기 작품인 『운전임무의 끝(Ende einer Dienstfahrt)』(1966)이 출판되었을 때, 베르너(R. Werner)는 이 소설이 서독 현실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자 반군대적·반국가적인 행위의 표시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Werner 1201).

재판과정이 주된 틀인 이 소설은 현 연방군 소속의 병사 그룰(Gruhl)이 운전임무를 마친 뒤 귀대하지 않고 아버지와 합세하여 연방군 지프에 방화한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 뒷이야기로 짜여 있다. 군대에서 탈영한 아들과 그런 아들을 부추겨 실패로 끝난 아버지의 방화행위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즉 방화의 범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하지만, 재판을 뒤에서 조정하는 국가의 막대한 힘은 이 사건을 방화죄가 아니라, 단지 물건훼손이나 치안방해로 축소하고자 한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알려진 연방군의 위기에 대해 운운하는 분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불안과 선동적인 저항의 뇌관을 제거하고자 주력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의 의도적인 축소 행위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글은 주인공 그롤의 탈영 및 방화사건을 보면서 연방독일에 있어서 연방군은 어떤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왜 연방군은 그들의 탈영병을 탈영병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빛의 군국주의 비판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즉 빛이 보는 연방군의 실체는 무엇이며, 1960년대 서독의 중산층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작품 전체에서 이상적으로 제시되는 비르글라르(Birglar) 지방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빛은 의명성이 높고 문명화된 대도시보다는 소박하고 태곳적 분위기가 넘치는 선량한 공동체로서 지방을 이상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반군국주의와 탈영을 꿈꾸는 자들

빛의 사회비판은 그의 작품 『어릿광대의 견해(Ansichten eines Clowns)』(1963)를 기점으로 과거지향적인 도덕성에서 현재지향적인 행동성으로 바뀐다. 50년대 『돌보는 이 없는 집(Haus ohne Hüter)』의 알베르트 무코프나 『아홉시 반의 당구』의 로베르트 패멜이 각각 입양된 자녀로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사회적 수렴에 관심을 두려고 했던 데에 비추어 60년대의 『어릿광대의 견해』, 『부대이탈(Entfernung der Truppe)』(1964), 『운전임무의 끝』은 한마디로 이 사회적 수렴의지의 포기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반사회적일 수 없는



인물들이 이 시기의 작품에서 전경에 배치되며, 어릿광대, 분노처리장 노동복무자, 탈영병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로부터의 탈영이 이 작품들의 강령임을 알 수 있다. ‘살만한 나라의 살만한 언어’ 발견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주인공들은 절망과 체념 속에서 차라리 사회를 떠나는 것을 인간 회복의 유일한 가능성이라 보고 탈영을 감행하는 것이다.

『어릿광대의 견해』에서 작가가 의도하는 또 하나의 비판은 서독의 재무장에 대한 가톨릭계의 반응이었다. 나치스의 국방군을 직접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군의 창설은 다시금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할 터였고, 이에 대한 가톨릭계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시 한 번 벌을 경악시킨다. 2차 대전 중에는 나치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던 교회가 다시 연방군 창설에 환호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벌은 교회와 정치적 결탁 내지는 교회의 정치권력에 대한 아첨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청년 가톨릭 신도에게 보내는 편지(Brief an einem jungen Katholiken)』(1958)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가톨릭계 및 정부 측을 당혹케 하였다. 벌이 가장 힐난하는 것은 아직 인생관이 미흡한 젊은이들에게 왜 독일 가톨릭은 전쟁거부를 충고하지 않았느냐는 곤혹스런 질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60년대 사회비판은 구 나치스 세력의 명예회복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다시 이 구세력이 관여하는 사회에서라면 차라리 <탈영>하라는 도덕적 촉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군부에 대한 벌 세대의 인식은 결코 아름다운 환상과 결부될 수 없었으며, 벌의 반 전체주의 역시 그 강도가 또한 심각했다. 그는 “그 부대의 도덕은 개똥이었다”라고 외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오랫동안 그가 분개한 것은 어린·젊은 시절

의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지 못한 교회당국의 처사였다. 그는 “당신네 누구도, 그 어느 교회도, 당신네 당국자들 어느 누구도 그 당시 내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놈의 살상무기 수령을 거부하라고, 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यो”라고 원망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연방국의 연방군 창설에 즈음하여 드러난 전체주의 성향은 다시금 그를 절망하게 한 것이다. “모두가 연방군 창설의 이성적 근거를 거론하게 되면, 거기에 반대할 것 같은 사람은 비이성적이 되고 만다.”

이런 현실이라면 이 사회는 군중심리가 지배할 따름이다. 그 때문에 뵐은 실제로 군복무 거부자들에게 뜨거운 공감을 표방했고, 그 중에는 발라프(Günter Wallraf) 같은 르포문학의 강력한 선두주자들도 있어, 뵐의 정신적 계승을 보게 된다. 뵐이 이들을 적극 후원하는 까닭은 스무 살짜리 양심의 순수성을 증명해야 하는 군복무 거부자들의 재판정이 공평무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가톨릭 부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연방군 지원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뵐은 군대와 교회의 또 한 번의 결탁을 본 것이다. 그가 탈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대’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 “군대의 한없는 우매성과 교회의 군대성”이 조합해 내는 온갖 형태의 부대를 말한다. 『부대이탈』에서는 나치스의 국방군으로부터 탈영을, 『운점임무의 끝』에서는 전후 독일의 연방군으로 부터의 탈영을 주제로 한다. 이 두 작품 모두 군대와 교회의 결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비인간화, 전체주의적 권위예의 종속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강력히 표출되어 있다(서용좌, 142).

『부대이탈』에서 주인공 슈뵐더가 군대내의 가장 비천한 직무인 분뇨 처리장에 배속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복무”라는 단어를

끔찍이도 혐오하여 “복무불능자” 판정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격면제의 판정을 받는데 그쳤고, 그나마 죽음의 무기를 직접 관장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군대 내에서 우수한 사격군인이 되느니보다는 탈영 쪽에 보다 가까워진다는 논리이다.

모든 부대로부터의 도주와 탈영을 찬양하는 벌의 도덕은 『운전임무의 끝』에서 구체화된다. 이 작품은 현 연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요, 군복무 거부자들의 거부선언에 대한 구체적 지원의 한 방편과도 같다. 『운전임무의 끝』은 제목 그대로가 이미 적나라한 탈영이며, 실제 연방군 병사 그물의 탈영과 그가 가지고 탈영한 지프에 대한 시위성격의 방화가 중심사건이다. 왜 그물은 지프를 몰고 군부대를 탈영해야 했는가? 연방 독일에 있어서 연방군은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연방군은 그들의 탈영을 탈영병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가?

이 작품의 주요 무대는 법정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법원 소식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초가을 비르글라르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만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비르글라르 군내에서 발행되는 세 종류의 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 그런데 이 신문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만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를 부자는 관대한 재판관을 만났다. 우리 군청 도시에서의 공직 생활에 있어 가장 존경받은 사람중의 하나이자 이 분야에 있어서 아직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 분명한 군재판소장

슈톨푸스 박사가 퇴임 전에 마지막 심리로, 6월에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몇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후스키르헨 출신의 요한과 게오르크 그를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주재했다. 그를 부자는 하루 종일 진행된 심리 끝에 손해배상 전액 지급과 6주간의 구류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담당 변호사인 비르글라르 출신의 헤르메스씨와 잠시 상의한 다음 그 관대한 판결을 받아들였다. 미결 구류 기간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다.

(운전임무, 353)

신문구독자들은 법정의 사안인 현 연방군 병사가 그의 소속 부대를 탈영해서 연방군 지프를 몰고 나와, 지프에 방화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알 길이 없다. 이 한 단락에서 국가와 국민사이의 정치적 숨바꼭질은 이미 폭로되기 시작한다. 이어서 보고되는 것은 지방 3대 일간지의 ‘보도 방향 결탁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법정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재판은 고르고 골라서 가장 작은 법정에서 열리며 방청객 또한 제한된다.

그를 소송은 세 개의 홀 중에서 가장 작은 홀에서 열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방청객의 대부분은 피고, 증인, 감정인, 법원직원, 혹은 소송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꼭 한사람의 참석자만이 타 지역 사람이었다. (...) 그는 다만 재판장, 검사, 변호사에게만 인접한 대도시에서 온 군 재판소 판사 베르크놀테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운전임무, 357)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 베르크홀테의 등장으로 주의 깊은 독자는 이미 그의 기능을 예감한다. 또한 재판의 진행을 보면서 아들 그롤의 탈영병 이야기에 왜 아버지를 연루시켜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아버지 그롤은 피고 인정심문에서 1940년부터 45년까지 자신의 군대 생활은 ‘어리석음’이었다고 요약한다. 즉 가구장이의 직업적 특성을 살려 장교용 숙소와 카지노를 설치하는 일에 종사해야 했고, 프랑스에서 노략질한 골동품을 독일로 운송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 그롤의 군대체험 등장은 곧 나치스의 국방군과 연방군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전쟁이 스쳐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군대를 창설했고, 그러므로 새로운 조국이 나치스 때의 독일보다 한 치도 나을 것이 없이 군국주의화 되어가는 사실이 국방군과 연방군의 대비를 통해 자세히 재현된다. 연방군의 창설이 나치스 국방군을 직접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서독의 재무장은 다시금 자본주의의 뒷받침 속에서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수산업체의 재생은 물론 과거의 군대 분위기가 독일사회의 주요소가 되면서 나치스의 과오를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 후일 70년대에 이르러서는 나치스 시대에 한번이라도 웃었거나 잘 먹고 마신 사람은 그대로 혐의를 받았듯이 모두가 조금씩은 죄를 졌다고 하려는 입장인데 반해, 50년대에는 SS대원까지도 징집된 사람으로 묘사될 정도로 모두를 깨끗이 씻어 내려는 경향이 강했음을 비교해 볼 수 있다(Elisabeth, 145).

법정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모를 따라가 보면, 1965년 6월 어느 날 그롤 부자는 마을에서 떨어진 들길에서 독일 연방군 소속의 지프에 붙을

지르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장면으로 거슬러간다. 방화의 공동정범인 아버지 요한 그롤은 독립 가구장이다. 피고의 인정심문 과정에서 1940~45년 동안 아버지의 군대 생활의 체험이 보고된다. 아들 게오르크 그롤은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스무 살이 되자 연방군에 징집되었고 사건 발생 당시 연방군의 병장이었다.

경찰서장 키르펠(Kirffel)의 조서에 따르면 그롤 부자는 불을 지르면서도 태연자약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흡족한 표정까지 지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법정에서 섰을 때에도 전혀 후회의 빛을 보이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검사는 격분한다. 과연 그롤 부자는 원래부터 뻔뻔스런 인간이었는가? 다음에 나온 증인들을 통해서 그롤 부자의 품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구공예사 조합장 에르빈 호른(Erwin Horn)의 말에서 아버지 그롤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그롤은 원래 조용한 젊은이였었다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기와 공감했고 그가 전쟁 중에 그 ‘더러운 놈들’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자기를 원조해 주었다고

(운전임무, 388)

호른의 ‘더러운 놈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히 나치스를 가리키고, 아버지 그롤의 청년기는 나치스의 박해에서 고통받는 선배 가구장이를 돌보아주었던 인간적인 젊은이의 모습으로 증언된다.

또한 검사는 요한 그롤의 인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술집 여주인 자니 자이페르트(Sanni Seiffert) 부인을 증인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부인은 그롤 부자의 진실한 인간미를 칭찬하고, 고아나 다름없는

이 남자들을 위해 요리하는 일을 즐거워했다고 말한다. 더욱이 노신부 콜프(Kolb)의 말을 통해서도 그물은 ‘항상 품위 있는 인간’이었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증언한 세 사람의 공통된 내용처럼 그렇게 정치적이 될 수 없는 순진한 그물 부자가 어떻게 반국가적이며, 반군대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그러한 의문은 다음에서 밝혀진다.

3장에서 쿠글에게 검사와 요한 그물과의 대화에는 아버지 그물이 1940년에 입대하지만 기초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미 목수 일을 하도록 파견되었고, 심지어는 장교와 하사관의 집에 파견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파리 주둔 시에는 연대장 부인의 자랑거리였던 루이 16세 시대 가구 등을 취급해야 했다. 그래서 덕분에 병장에서 하사관으로, 다음에는 상사로 비교적 빨리 진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그물은 전쟁기간 중에도 가구를 수선하는 일로 암스테르담까지 갔으며 전투에는 전혀 참여하는 일은 없고, 다만 “가구 전선에서 싸웠을 따름입니다”(운전임무, 443)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아버지 그물은 2차 대전 당시 징집된 군인으로서 부여된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장교들 혹은 장교들의 부인을 위해서 가구 만드는 일에 종사해야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대의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이 폭로된다.

다음으로 아들 게오르크 그물의 경우는 원래 어머니를 닮아 강하고 착하고 부지런했던 젊은이가 연방군에 징집되어 입대하게 된 후부터는 변하기 시작했다고 노신부가 증언하고 있다.

게오르크 그롤은 입대하고 난 뒤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기에 점점 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권태, 형언할 수 없는 권태’가 쾌활하고 부지런하고 선량했던 젊은이를 심하게 망쳤고, 그것이 그 아이를 변하게 했으며, 그 애를 나쁘게, 말하자면 몹시 악하다시피 만들었다고.

(운전임무, 446~447)

신부인 자기도 1906년에 지원병으로 포병대에 복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군대 생활의 경험이 그에게는 인간을 nihil리즘으로 빠지게 하는 심한 유혹이었노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군대체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군복무 거부를 직접 충고하는 진보적 인물이 된다. 그러나 이들 그롤은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양심은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이라” (운전임무, 448)면서 자진해서 입대했었다. 입대 후 그는 군대에서 하사관을 위한 카지노 따위나 짓는 일에 동원되는데, 훌륭한 목수로서의 임금에 비하면 연방군 급료는 너무 싸다는 것이다.

군부대의 증인으로 보낸 쿠틀케(Kutke) 병장은 이러한 그롤에게서 인간적인 애정을 느낀다. 다만 직업군인으로서 4년간이나 복무를 수행 중인 그는 부대 내에서 여자문제로 인해 강등당하고 영창에 가는 인물로서 계급과 위계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 조직에는 적합하지 못한 존재이다. 사실 쿠틀케는 연방군에 지원할 경우 돈벌이가 되고, 자동화된 서독에서 새로운 자극제가 필요하지만, 군대는 그가 갈망하는 어떤 응집된 권태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권태와 무위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짹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군인에 지원한 것이다.

그는 자기의 급료와 의복과 식량 및 숙박, 휴가 등을 제외하고도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10마르크씩을 과외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운전임무, 464)

이런 점을 계산해보니 그가 아마 12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퇴역하면 8만 2천 마르크의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그밖에도 그는 권태와 무의미가 특정한 화학약품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자극제라고 까지 말한다. 이처럼 증인인 쿠틀케 병장은 스스로 놀고먹는 인간형임을 자랑하면서, 연방군의 매력과 자신의 적응을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곧 연방군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에 부응한다.

연방군은 “부조리한 무화, 거의 전체적인 무, 다시 말하면 무의미를 생산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대한 조직체”이며, 정작 그물은 “부조리의 사위일체 - 무의미성, 비생산성, 권태, 나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쿠틀케는 군조직의 부조리함과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군대의 유일한 미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쿠틀케는 무의미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물에게 새로운 일거리, 즉 운전임무를 부여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임무란, 장소이동을 위한 운전이라기보다는 차량을 적시에 검열 준비 완료 상태로 만드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차량검열이 예정되어 있을 때 특정 차량을 차량검열에서 요구되는 주행거리 상태로 만들어 놓는 일, 일종의 조작행위였다.

만일 주행거리가 겨우 1천 미터 상태에 있는 자동차를 일주일 이내에 5천 킬로미터 검열에 대비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는’ ‘누군가가 그 차를 맹렬한 속도로 질주시켜 그만큼의 킬로미터를 먹여치워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운전임무, 466)

그가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이유는 그들이 매우 훌륭한 운전수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장교의 암코양이들이나 하사관 녀석들을 위해 싸구려 가구나 만드는 일에 철저히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루함에서 구해주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의 운전임무 성격과 군대의 부조리한 특질이 적나라하게 폭로된다.

또한 그들이 겪는 군대의 무의미는 증인으로 나온 베어라우(Behlau) 상사의 보고에서 더욱 자세히 밝혀진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근무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서, 한 기계화 부대에서 일 년에 두세 번 정도로 이와 같은 “속도계 균형주행” 작업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이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더구나 운전임무가 생겨나는 이유라면, 검열에서 요구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일보다, 닳친 검열일자를 연기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란 다. 그렇기 때문에 쿠틀케 병장이 “킬로미터 잡아먹기”라고 하거나 베어라우 상사가 “속도계 균형주행” 이라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이다.

이처럼 군대에서 파견된 두 증인들의 보고대로 그들은 이런 종류의 무의미한 운전임무를 1년에 몇 번씩이나 수행해야 했고, 그래서 3천 리터 가량의 бен진을 고속도로를 오가며 “탕진” 해야만 했다. 결국 이번에도 그들은 5일간의 예정으로 연방군 소속 지프를 운전하기 위해 부대를 떠

났다. 그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달려가 지프를 헛간에 나홀 동안 쳐박아 두었는데, 이 일도 임무는 임무였다. 그래서 그는 요구되는 주행미터기의 수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마쳤다.

그를 자동차를 염소처럼 뒷바퀴를 쳐들게 한 뒤 모터에 시동을 걸어 바퀴가 헛돌게 하여 이 수치를 얻어냈으며, 배기가스는 호스를 통해 밖으로 나가게 했다.

(운전임무, 476)

그러므로 그는 이번에도 5일 후 5천 미터의 수치를 가지고 군대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아버지와의 ‘그 일’이 없었다면 말이다. 그러나 일단 그를 부자간의 방화 사건은 아들의 운전임무 기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전후 독일 연방군의 비인간화, 전체주의화를 우려하며 (Nordbuch, 84 참조), 이런 군대의 무의미함 속에서 선량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나쁘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3. 반자본주의와 독일 중산층 정책의 몰락

이제까지 비판의 대상인 연방군 존재의 무의미는 탈영에 이어 지프 방화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특히 이번 주행임무를 맡은 아들 그를 집으로 곧장 달려오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버지의 극심한 파산 상태에 있었다. 목공소에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자신이 징집되어 군사 업무라는 ‘신성한’ 정규업무 대신에 카지노에서 바를 설치하는 작업 등을 강요 받고 허송세월 하는 동안, 아버지의 재정 상태는 최악이 되어갔고, 그런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들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상실해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세금체납과 그로 인한 벌금, 압류비, 독촉비 등의 부담으로 부채에 허덕이다 결국 현금지갑마저 압류처분을 당하고 만다.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부지런하고 검소한 목수가 복지국가 내에서 어떻게 하여 그런 처분을 당하는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독자는 뜻하지 않게 독일의 “살인적인 중산층 정책”이 그를 가정의 파괴를 초래했다는 논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그를 가정을 파산 상태로 이끈 중산층 정책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 희생되는 이들의 몰락 과정과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서독의 경제정책의 실상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버지 요한 그롤은 전쟁이 끝나자 다시 가구공예사로 일하면서 어렵지 않게 가계를 꾸려갔다. 그런데도 최근 십 년 동안 끊임없이 조세법과 충돌해 오면서 원치 않는 압류명령과 강제집행 명령을 받게 되었다. 증인으로 나온 호른과 그렌, 그리고 후베르트 할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가구공예사 조합장인 호른(Horn)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롤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진 사실을 공공연하게 숨기지 않았다고,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롤의 손재주에 대해서도 호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는 그롤과 같은 가구공예사를 찾고 있으며 그와 같은 재능은 단절된 수공업자 가계의 재능에 비견되며, 그는 한마디로 골동품과 같은 진귀한 존재라고.

(운전임무, 388)

그들은 호른이 나치스 시대 때 나치스에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도, 생필품으로 이웃을 돕는 산상수훈의 실행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가 왜 나이 들어 군수품 방화 같은 짓을 했으며, 장인으로서의 최고 실력과 경험을 지녔으면서도 왜 생계의 위협에 이르도록 경제적으로 몰락했느냐는 것이다.

이차 세계대전 중에 국방군에서 무의미하게 보냈던 자신의 군대생활에 대한 기억과 아들 그롤이 연방군 지프의 속도계를 5천 킬로미터로 만들기 위해 헛간에서 일없는 짓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전히 군국주의에 희생되는 자신들의 억울함이 폭발한다. 나머지 저항 이유는 국가 경제는 좋은 기술을 가진 부지런한 장인을 왜 보호하지 못했느냐는 반발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거시적인 저항 의식보다는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것이라는 의식 때문에 조세 자체를 이해 못하고, 항상 국가로부터 자기 돈을 “강탈당했다”고 느낀다. 그래서 자기의 짓을 강탈하는 국가에 본능적으로 반항하고 있을 뿐이다. 호른의 계속된 증언은 그롤의 재정파탄의 원인을 확실히 밝혀준다.

피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호른은 십 년 전부터 그롤의 재정 상태가 ‘계속해서 재난 상태’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계산 할 줄 모르는 경솔한 그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인적인 중산층 정책’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운전임무, 389)

여기서 하필 ‘십 년’은 50년대 중반 자본주의와 군국주의의 재림으로 서독의 경제가 안정된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전근대적 소박한 경제생활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장임이 역설적으로 주장되는 효과를 지닌다. 다음으로는 그물의 범법행위(장부 조작, 세금포탈, 압노동 등등)에 대한 변명으로 이어진다. 그물은 결국 지갑마저 압류 당하는 사태에 이르자 큼직한 일거리를 주문 받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사람들도 귀찮은 일에 휩쓸려 들어가기를 두려워했기에 차츰 고객들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그물은 할 수 없이 압거래 노동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했으며, 중국에는 압류하기가 몹시 곤란한 현물 임금을 받고 일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호른의 해석은 국가가 그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는 입장이다. 판사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그물은 오늘날의 경제에 관한 예비지식을 배워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속임수”를 터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물은 이런 기회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결과는 “압류와 이자로 인한 비용과 수수료와 부대비용”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그의 조수인 아들마저도 입대하고 나서는 완전히 체념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제 그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행동뿐으로, 즉 이 작품은 그 경우 정당방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경제학자 그렌(Grähn)의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 그물의 몰락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물은 한마디로 재정상의 비참한 상태에 관한 한 “무자비하고 냉혹한, 필연적인 어떤 과정의 희생물이며” 이런 과정은 현대적인 과정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경제사에서 종종 나타났다는 것이 그렌의 견해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몰락과정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현대 경제에는 도덕적 관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현대 경제의 부도덕성을 간파했던 빌은 경제학박사 그렌의 말을 빌려 현대의 조세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마치 사람들이 썰매 뒤에서 달려오는 이리에게 장갑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렌이 미소 지으며 언급했듯이, 이리를 따돌리려 하기 때문이 아니고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운전임무, 452)

때문에 이러한 투쟁 상황에서 일종의 자기방어로 볼 수 있을 그물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무죄라 해도, 서독의 경제적 시각에서는 유죄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물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법정에 제기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납세태도에 관한 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적으로 무죄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물의 태도에는 하등의 비난할 점이 없지만, 경제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무자비하고 냉혹한 것이기에 그는 유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한 그롤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경제 과정의 희생물이라는 것이 그렌의 해석이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구조에는 도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롤의 행동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점이랴곤 하나도 없으며 그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란 붙들렸다는 것뿐이다. “자기는 조세학에 있어서 도덕 개념을 거부한다”는 그렌의 거침없는 발언은 그롤에 대한 동정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서독의 경제정책, 조세정책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난함과 더불어, 목수 조합장 호른이 ‘살인적 증산층 정책’이라고 했던 것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여우처럼 간교하라”라고 충고하며, 그를 부자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지략을 강조하는데 이는 공공연히 폭력을 자행하며, 무의미하게 부채만을 증가시키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위에서 세 명의 증인들은 서독 사회에서 기회균등이라는 허울 좋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인간성 상실을 초래했고, 법은 냉혹했으며, 기득권자를 위한 법이기에 법을 이용할 줄 모르는 약한자를 희생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그렌은 “마치 이미 5년 전에 종말을 기대했어야 할 절망적인 암의 경우를 보고 있는 병리학자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 작품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중산층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 경제 정책과 군국 정치에 대한 비판이라는 ‘독’이 다만 ‘초콜릿’으로 위장되어 예술 행위가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면 독이든 초콜릿을 정신병원장에게 먹여 실신시켜 놓고 도망친 수감자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규격에 맞지 않는 인물들- 조세정책도 모르고 군복무의 필연성도 모르는 그를 부자-은 곧 다시 정신병원(사회의 변두리)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재 서독의 특성인 성공적 자본주의와 나토 내의 군비 증강 정책이 덜 작용하는 어딘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경쟁체제에서 사력을 다해 성공해야 하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다 인간다운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비르글라르 군이 선정된 것 같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연방 집중에 반하는 지방 애호 사상을 다루고자 한다.



#### 4. 지방색 프리즘을 통해 본 선량한 공동체로서의 비르글라르

벨은 지방색 프리즘을 통해서 커다란 세계를 진단하는데, 커다란 세계란 인간적인 것이 지켜지는 작은 사람들의 세계와 대비된다. 왜냐하면 벨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Bernhard, 103).

시골의 한가한 법정, 증인과 방청객들을 포함한 법정전체의 구성은 단순히 일반적인 법정의 분위기와는 아주 다른 것을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발언에서 토속적인 말투뿐만 아니라, 탈 시대적인 행동들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지방색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늙은 신부는 교구의 신도들과 함께 후스키르헨의 지방어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특히나 그러한 것은 성스러운 언어를 통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느냐는 중위의 질문을 받고, “민속어는 결코 통속적으로 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그리고 그는 이미 키레스키르헨의 저지 독어와는 판이하게 구분되는 후스키르헨의 저지 독어로 유명한 일요 복음서를 번역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어느 누구와의 대화에서도 쉽게 친근해진다. 신부는 그물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물이 언제나 매우 부지런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해서 비록 신앙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정작 그는 그물을 그의 교구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 중의 하나로 본다고 대답한다. 또한 그물이 교회에서 담배 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 그는 그 사실을 목격했고, 그러나 오히려 그를

에게서 아주 순결한 경건함을 발견했다고 대답한다.

토박이 경찰서장의 경우도 두 피고가 방화 행위를 ‘미친 것 같았다’라고 증언했지만, 그 증언은 진정성을 얻지 못한다. 우선 두 미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방화와 축제적 행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첫째, 두 사람이 같은 정도로 실성하여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없고, 둘째, 축제적 제례적 행사라면, 더구나 이성적 사고에 따른 계획 아래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결구류 중에 신중히 선택된 네 명의 정신과 의사는 정신 감정의 결과 그를 부자의 완전한 책임 능력을 확인해 주고 있다.

두 피고는 평균 이상의 지능이며, 그들의 행위에 자신들 스스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정신병적이라거나 정신적인 결함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들의 행위는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것으로써, 감정적인 충동에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운전임무, 386)

그러므로 네 명의 전문 감정인에 의해 범행의 원인이 방화광적인 요소에 있지 않고, 두 피고의 기질이나 성격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고, 그것은 분명히 의식적인 계획 하에서 저질러진 행위임이 판정된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그들이 탈영하게 된 이유와 정상인인 그들이 속한 연방군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왜 그들이 부대를 탈영해야만 되었는가를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방화자들의 정신상태가 온전할수록 그들의 저항행위는 그 의도가 분명해 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고위층은 그들을 실성한 것으로 조작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비르글라르 군의 성격이 작용한다. 즉 비르글라르 군은 대도시가 아니며, 경제발전에서 비교적 소외된 시골구석일수록 고위층의 여론조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2장과 관련된 지방중심적 이웃개념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결국 저항행위라는 판정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제 2의 조작이 예술 행위라는 해석으로 나타난다.

결국 ‘두 피고인의 예술적 재능’으로 몰아가서 이 분명한 저항 행위를 애써 온건하게 약화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고위층의 저의는 무엇인가? 또한 ‘타지’라고 간접적으로 불리며, 파견된 고등법원 판사 베르크놀테로 하여금 재판 과정의 일체를 조종하게 하는 당국의 의도와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작가는 이미 시작부터 지방 언론에 대한 상부 대도시-권력기관의 조종을 적나라하게 암시했고, 그러한 저류는 작품 끝까지 계속된다. 비록 피고들이 즉각 석방되는 ‘경미한’ 처벌로 그친 해피엔드 속에서도 독자들은 그 이상을 읽는다.

법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과 국가권력의 압력을 사법과 언론이 취하게 되는 행동들에서 당국의 의도는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를 부지는 관대한 재판관을 만났다”라는 보고처럼 그 지방에서 공직생활에 있어 가장 존경 받는 사람 중의 하나이자 이 분야에 있어서 아직 명성을 얻고 있는 군 재판소장 슈톨푸스 박사에게 퇴임전 마지막 심리로 소송을 이끌어가게 했다. 더구나 판사 슈톨푸스는 명예로운 정년퇴직과 이 사건을 무죄판결 내리라는 조건과 연관되어 있다(Falkenstein, 73).

헤르메스 변호사는 피고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발생요인을 희석시키려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 그는 라인 지방 특유의 발음을 구사해

피고들이 말하는 ‘해프닝’에서 한 “하(Ha)”와 “해(Hä)”라는 단어의 차이 점이나 밝히려고 시도하거나, 그를 부자의 방화 행위를 예술 작품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예술의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재료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파괴시킬 수도 있기에, 오히려 국가는 소송 절차에 든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변론한다.

얼핏 보면 헤르메스는 사실 그물을 위한 것 같지만 국가가 원하는 쪽으로 소송을 몰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즉 판사와 정부당국자는 피고를 위해 일련의 변호를 꾀하는데, 이것은 그물 부자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했던 의지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소송 의퇴인을 무죄 방면시키고, 더불어 그물의 항의를 훼방하려는 당국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젊은 쿠글에게 검사는 권모술수에는 아직 미숙아 상태다. 그는 시종일관 그물 부자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행동은 건전한 국민감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면서, 피고의 인간성이 늘 약하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뻔뻔스럽게도 명랑함과 태연함에서 나는 여기에서 권리 회복을 위해 힘쓰는 국가의 이름으로, 그러한 태도를 적어도 엄한 질책으로 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운전임무, 378)

검사는 외지 출신으로서 이 지방적인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것이 이 지방색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또 한 사람 외지인으로서 대도시에서 파견된 군 고등법원 판사인 베르크놀테는 슈톨푸스의 후임자로 재판

소장이 되리라는 욕심에서 정부가 파견한 조정의 목소리 전달을 잘 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그를 소송을 맡은 이들은 한결같이 그물의 행위를 축소해서 방화의 원인이 군국주의와 중산층 정책에 대한 절망이요, 이에 대한 반발 시위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상 배심재판소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재판관 담당으로 이끌어가게 할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 발행되는 세 종류의 신문에는 사건을 축소해서 보도하게 하고, 독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인접한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유아 살해범 재판과정을 취재하도록 한다.

이렇게 그물의 분명한 저항 행위를 애써 온전하게 약화시키려는 당국의 저의는 무엇일까? 이는 사람들이 ‘연방군의 위기’ 운운하는 것을 입에 올리게 될까봐서 이를 견제시키는 데 애를 쓰는 국가 권력의 입김이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Werner Ross, 1200). 그런데 이러한 개입을 모르는 하위 관리들은 그들의 애송이 검사처럼 “건전한 국민감정”을 내세워 피고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한다.

해결을 위한 4장에서 구글에게 검사가 벌이는 사표 소동도, 이 법정외의 신성함을 반감하려는 효과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는 ‘이 라인 지방의 여우들에게’ 속아 이 소송을 맡게 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신이 무책임해지도록 강요를 받는 지위를 받았는데, 그러한 무책임은 자기의 성미에 맞지 않기에 검사직을 포기하는 바라고 말한다. 그는 검사로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데 조종된 ‘다른 곳’의 술책에 말려들어 갔음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을 주재한 슈톨푸스 판사조차도 이 사건이 어떤 교차점 내지는

기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서 최후의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뿐더러 재판관의 신분으로서 항상 부심하여 도달하려고 노력했으면서도 거의 도달하지 못한 정의가 이 소송에서 가장 적게 구현되었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이들은 저항이라는 뇌관을 빼버리려는 당국의 의도대로 이용되지만,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조정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폭로된다. 조서기록 담당 서기인 아우셈은 시종일관 사건의 진행 과정을 편중되게 기록해 나가지만, 아우셈은 나름대로 견해를 밝힌다.

자기도 몸서리쳐질 정도로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한단다. (...) 요컨대 그런 범행도 단순히 범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자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와 같은 범죄는 ‘단순범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운전임무, 412)

이와 같이 등장하는 이들을 통해서 평균적 혹은 더 우수한 독일 사람들이 다수에 의한 집단이나 세력 집단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거나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45년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토마스 만(Thomas Mann)은 “독일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양심적이며, 질서 있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철저하고, 검소함” (이종우, 408)이라고 했다.

이는 양심적이고 의무감이 있고 근면이 최상위에 나타나는 독일인의 이미지를 확인해 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엄격성과 자제력, 상상력과 재치라는 장점을 가진 독일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무조건적인 집단 복종에 길들여지면서 2차 대전이라는 집단 범죄를 저질렀다

는 것이 벌의 시각이다. 복종하지 못한 인물은 결국 부적격자로서,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 그를로서 묘사된다. 실은 그가 누구보다도 근면, 성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임이 신부의 증언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런 장점을 소유하고서도 현실에서 몰락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질에 문제가 있다.

벌이 보는 60년대의 현실은 45년 종전 직후의 절대 빈곤기보다 나아진 게 없다. 물론 외면상의 발전은 가히 기적이었지만, 절대 빈곤기의 인간적 이웃관계는 경제기적 속의 치열한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20년 역사를 뒤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발전에서 소외된 곳에서 이상향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그려진 곳이 비르글라르 지역인 것이다. 비르글라르 주민들의 한량없는 호의를 벌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예는 많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에서 이미 시골의 풍경임을 예감한다.

재판관과 검사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 방청객은 일어났다가 일어선 때와 마찬가지로 앉았다. 그 나태함은 제례의식이라는 것이 친숙한 사람들끼리의 친근한 동작인 수도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나태함이었다. 피고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의 동요는 더 심하지 않았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모두 피고들과 안면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

(운전임무, 360)

이는 비르글라르 군의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증인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증인들은 모두다 이야기와 놀이로 한판 어우러진다. 또한 콜프 신부는 두 신도와 함께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 수 없는

화제를 나누고 있다. 증인들은 연장자순으로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법정 안에 있는 방청객들도 인접한 대도시에서 파견한 사람이외에는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사투리를 사용하는 점이다. 경찰서장 키르펠의 경우 증인대에서 어찌나 심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키르펠은 여러 차례나 순무 저장구덩이라는 말 대신, 이 지방에서 흔히 통용되는 ‘파취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바이에른에서 이주해 온 검사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어 통역을 해주어야만 했다.

(운전임무, 369)

또한 식당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들과 식당집 아가씨와의 사랑 이야기를 화제 거리를 삼으면서 사투리 사용이 풍부하다. 이런 보기들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나이가 많이 들고, 신분이 낮을수록 더 심하게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주 인간적인 경멸감을 가지고 나를 소시민 작가라고 칭한다. 좀 지나칠지는 모르나 나는 그러한 제한을 항상 칭찬으로 느낀다. 내가 지금까지 소시민에게서 위대함을 발견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프랑크푸르트 강연록, 38)

이처럼 빛은 자신에 대한 부당하지 않는 비난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듯 빌이 인간적으로 확신하는 개인, 그 개인의 행동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이것에서부터 사회 도덕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재발견하고자 함이다(Durzak, 60). 또한 빌이 작은 것에서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보며,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확신으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로 그는 지방색을 다음과 같이 인간의 일상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변호하고 있다.

일상적인 것이야 말로 본래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인데, 이런 일상적인 것과 지방색에 대해서 독일들이 갖는 혐오감이야 말로 촌스러운 것이다. 시골은 그곳의 언어가 토착되고 형성될 때 세계문학의 장소가 된다.

(프랑크푸르트 강연록, 38)

이처럼 지방색이 짙은 작은 세계는 그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본질인 현실이다. 후스키르헨의 늙은 신부 콜프에게서도 이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요한 그롤이 비록 종교에는 무관심할지라도 보기 드문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생각한다는 신부의 신앙관은 평판 나쁜 여자에게 대한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종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된 돈, 그중 대부분이 피이네 슈르츠라는 여자를 이사시키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녀는 육 년 전에 인접한 대도시로 이사를 가서 슈르츠라는 사람과 결혼했으나, 그녀는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버림을 받았다. 이 피이네 슈르츠(친정의 성은 키르펠)는 그 후에 그녀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경박한 피에 굴복해버리고 말았다. 그 피는 그녀가 자식들을 극심한 곤경에서

지켜내려고 야간 술집에서 접대부로 돈을 약간 벌기 시작한 후에  
야 정체를 드러냈던 것이다.

(운전임무, 404)

이를 두고 교구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슈르츠 부인의 타락’이  
라고 분개하지만, 신부는 부도덕하다는 의미를 달리 보고 있다. 즉 슈르  
츠 부인이 나가는 곳은 기독교 도덕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연방군 장교  
들과 집권 기민당/기사당 의원들이 우글거리는 대도시의 술집이라는 것  
이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중 기부금으로 문책이 될지라도, 도덕적인 면  
에서 그녀의 장래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부의 독특한 신앙관 때문에 그는 그의 나이 정도 되면  
대도시의 큰 교구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비해 이처럼 늘  
시골 교구에서 지내야만 했다. 이는 빌의 작품 『문둥병(Aussatz)』에 등장  
하는 헤르켄스 주교나 모르샤이트 명예주교와는 대조적이다. 콜프 신부  
는 대도시의 도덕스럽지 못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록 출세의 기회가  
적고 문명화가 덜 되었을지라도 지방 교구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지방색에 대한 또 다른 예는 간수 슈로어가 미결구류 수감자를 대하는  
태도이다. 미결구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식당집 딸이 날라다  
주는 식사를 먹고, 게다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그물의 아이를 갖게 된  
다. 이 사실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직무 태만이나 직권 남용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는 작품에서 보이는 지방색의 한 요소일 수도 있고,  
지방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아그네스의 유언장 작성은 지방색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발한  
착상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랑하는 애인을 잃고 지금까지 재판정의

단골손님이기도 했지만, 이 사건에 보인 그녀의 관심은 특별했다. 그녀는 그물이 불 지른 지프의 손해 배상과 세금 체납액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 게다가 매년 성 아그네스 축제일에 연방군 지프를 한 대씩 불을 지르면 서 2차 대전 중에 죽은 그녀의 애인과 이름 모를 군인을 기념하라는 조건이 덧붙여진다. 이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를 가를 돕겠다는 뜻을 넘어서, 연방군을 보충하는 곳인지 혹은 그 권리 계승자인 독일사회에 대한 강한 반항이다. 그래서 그녀는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또는 세속법이든, 교회법이든 간에 법에 묶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바보들”을 조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지방적인 요소는 베르크놀테가 말한 대로 통속적인 지방색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향적인 공동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판결에 가서 주민들은 대개가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며, 남은 생을 비르글라르에서 살다가 비르글라르에서 죽기를 희망한다. 전후 라인강의 기적의 결과 성취 일변도의 경쟁사회, 번영사회에서 밀려나 빈곤한 사람들의 실존문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인간의 공동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교회마저도 특정부류의 이익 추구를 위해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진정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빛은 인간적인 증상들이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서 몰락해 가는 이웃들과 공존하기를 원했으며, 가진 것을 내놓아 함께 공유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도 향하고자 했다. 단순한 도덕을 넘어서서, 소수의 이단자에게도, 과오를 범했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온전한 사랑의 실천을 보이려고 했던 빛의 주장이 이 작품에서 비르글라르 군의 이상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 5. 살만한 나라를 꿈꾸며

이 글에서는 하인리히 뵐의 60년대 작품 『운전임무의 끝』을 사회비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 뵐이 얻고자 했던 것은, 군대의 무의미성의 폭로이다. 『운전임무의 끝』에서 병사 그롤은 ‘부조리의 사위 일체-무의미성, 비생산성, 권태, 나태-’에 시달리게 되고 무의미한 주행 킬로미터를 조절하는 데 이용되는 자신을 거부하면서, 군 차량 운전임무를 저버림으로써 군복무를 이탈한다. 이로써 그롤은 정체화된 사회, 다시금 전체주의로 변하는 사회로부터 탈출하여 개인적인 자유 공간을 확보하지만, 사회현실에서는 탈영병으로서 심판대에 설 것을 각오한다.

작품에서 나타난 비르글라르 시골 법정의 모습이나 라인 지방에서 발행되는 세 종류 신문의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보도, 더군다나 부드럽고 인간적인 판사의 판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서독의 현실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제도의 공존에 대한 함의요, 바로 연방군에 대한 함의이다. 허위의 기록만을 위한 운전임무를 역시 허위로 완수하려다가 아들과 아버지가 합세하여 지프를 빼대만 남은 괴물처럼 태워버린 행위는 인간성을 지키기 위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부조리, 무의미, 권태, 나태를 생산해내는 연방군 부대에서 조금이라도 태업을 감행하는 것이 인간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뵐의 견해이다. 이는 비인간적인 제도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함을 뜻한다.

둘째는 중산층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아버지 그롤은 중산층 정책에 밀려,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과중한 세금

체납에 의해 가산의 파산을 초래한다. 이런 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란 판사의 충고처럼, ‘여우처럼 교활하게’ 적응하는 길이다. 방화는 이 길을 거부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제시된다.

그를 부자를 해프닝이라는 웃음거리로 조작하지 않고, 금고형을 치르게 구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예술의 관대함을 이용해서 아그네스 할의 등장으로, 매년 연방군 지프를 방화하도록 귀결지음은 끈질기게 반 연방군 저항행위를 계속하자는 것이다. 매년 지프를 방화하면서 연방군의 무의미, 부도덕함을 폭로하자는 것이며, 그래서 독일의 군국주의화를 막자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예술행위로 꾸미었던 것은 “현실에 대해 보다 나은 꿈을 꾸면서, 그것을 언어와 행동으로 정복하려 했던”(Bender, 6) 작가의 탈영이나 파괴의 모티브를 새로운 인간적 생의 시작을 위한 전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씩이나 세계적 재난을 지닌 독일 사회가 또 다시 연방군의 등장과 경제 정책의 모순으로 ‘살만한 나라’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느꼈던 빌은 도덕이 올바르지 못한 집단에서 과감히 탈영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생각했다. 복지 사회를 전면에 내세운 위장된 복지의 가면을 벗기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나치스의 잔재를 파헤쳐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올바르게 정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길이 문학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빌은 동시대인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파악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배적 권위에 굴하지 않는 저항 정신을 강조했다.

## ■ 참고문헌

- 서용좌(1989): 『하인리히 뵐 연구』, 한신문화사.
- 이종우 역(1986): 『분단 독일 정치사회학』, 한길사.
- 정찬중 역(2002): 『운전임무를 마치고』, 책세상.
- Heinrich Böll, “*Ende einer Dienstfahrt*”, in: Roman und Erzählung, Bd.4: 1961-1970. hrsg. v. Kiepenheuer & Witsch. 1977.
- \_\_\_\_\_, “*Brief an einen jungen Katholiken*”, in: Essayistische Schriften und Reden, Bd.1: 1952-1963. hrsg. v. Kiepenheuer & Witsch. 1978.
- \_\_\_\_\_, “*Frankfurter Vorlesungen*”, in: Essayistische Schriften und Reden, Bd.2: 1964-1972. hrsg. v. Kiepenheuer & Witsch. 1978.
- \_\_\_\_\_, “*Aussatz*”, in: Hörspiele Theaterstücke Drehbücher Gedichte Bd.1, 1952-1978. hrsg. v. B.Baluer, Köln: Kiepenheuer & Witsch, 1978.
- Elisabeth, Endres(1983): *Die Literatrz der Adenauerzeit*, dtv.
- Hans J. Bernhard(1977): Geschichte aus der Provinz, in: *Der Schriftsteller Heinrich Böll*, 5. Aufl.
- Henning, Falkenstein(1996): *Heinrich Böll*, Berlin.
- Manfred, Durzak(1979): *Der deutsche Roman der Gegenwart*, Entwicklungsvoraussetzungen und Tendenzen Heinrich Böll, Stuttgart.
- Nordbuch, Claus H R.(1994): *Heinrich Böll: seine Staats- und Gesellschaftskritik im Prosawerk der sechziger Jahre*, Frankfurt.
- Werner, Ross(1996): “Heinrich Bölls hartnäckig Humanität”, in: Merkur, H.20.

제4부

행복에 대한 다양한 시선





# 문학 작품 속 노년의 욕망과 행복\*

원윤희

## 1. 문학 속 노년 작가

『사랑에 빠진 남자(Ein liebender Mann)』(2008)는 마르틴 발저(Martin Walser)가 71세의 나이에 출판한 노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2009년에 국내에 소개될 때 『괴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많은 독자가 작품의 주인공이 괴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소설은 알려진 바대로 74세의 괴테가 열렬히 사랑한 울리케(Ulrike von Revetzow)와의 실화를 바탕으로 발저의 허구적 상상력이 가미된 작품이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는 박범신에 의해 『은교』(2010)가 출판되었다. 이 소설은 2010년 1월에 작가 박범신의 블로그에 <살인 당나귀>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고 연재가 끝난 후 2010년 4월에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은교』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2012년 4월에는 정지우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었는데, 이후 소설과 영화를 비교 분석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소설 『은교』에 세간의 관심이 다시 쏟아지게 되었다.

두 작품의 작가가 모두 노년이라는 점, 작품의 주인공이 작가라는 점, 또 나이든 노인과 10대 소녀의 사랑이 주제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박범신의 『은교』가 발저의 『사랑에 빠진 남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두 작품을 비교 연구한 논문은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고 일부 다른 작품과의 비교 연구 논문들만 찾을 수 있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한 연구에는 육현승(2014)과 김용현·도기숙(2016)을 들 수 있다. 육현승(2014)에서는 ‘늙은 베르테르로서의 괴테상’을 분석하면서 ‘부정의 아이러니’라는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저가 수용한 괴테가 고통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김용현·도기숙(2016)은 괴테의 질투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주인공 괴테의 사랑과 질투의 고통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에서 『은교』와의 비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비교 연구는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비교 가능성이 있는 발저의 『사랑에 빠진 남자』와 『은교』를 노년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연구 하고자 한다. 발저와 박범신은 모두 노년에 이른 작가로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독일과 한국이라는 다른 공간과 배경을 가진 두 작가가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이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노년의 욕망이라는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성과 내용면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작품의 주인공인 노년에 이른 두 작가의 욕망 구조를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소설 분석이론인 ‘삼각형의 욕망(désir triangulaire/triangularés Begehren)’을 적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사랑에 빠진 남자』와 『은교』의 구성과 내용

발저는 『사랑에 빠진 남자』에서 괴테의 마지막 사랑을 소재로 삼고 있다. 소설 속의 시간은 1823년 7월 1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28일에 끝난다. 소설은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되는데 이를 계절적으로 살펴보면 초여름에 사랑을 피우기 시작해 가을에 고통 속에 번민하는 갈등의 정점에 이르고 겨울에 시들게 된다(참조 육현승, 2014 168). 소설은 총 3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5개, 2부는 4개, 그리고 3부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부와 2부는 마리엔바트에서 괴테와 올리케 사이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발저가 재구성한 것이며, 3부는 오롯이 발저의 상상 속에서 나온 순수한 창작물이다. 3부의 시작은 괴테가 올리케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여기에서 그동안 올리케를 그리워하며 완성한 유명한 비가인 「마리엔바트의 비가(Die Marienbader Elegie)」를 소개한다. 소설은 1부와 2부에서 3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는데 3부에서는 편지 형식을 도입해 1인칭 시점으로 바뀐다. 1부와 2부에서도 3인칭 시점이기는 하지만 괴테의 내면을 드러내주는 문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3부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것은 주인공인 괴테의 내면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사랑에 빠진 남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는 노년에 이른 괴테의 사랑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발저에 의해 창작된 인물로 드 로르라는 젊은 청년이 등장한다. 이는 괴테의 내면을 좀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발저의 소설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발저

작품 속의 피테는 자신의 사랑에 걸림돌이라고 느끼는 젊은 드 로르에 대한 묘사에서 노년에 이른 자신의 사랑과 질투, 욕망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박범신의 『은교』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소설은 노시인 이적요, 그의 제자 서지우, 그리고 Q변호사라는 복수의 서술자에 의해 세 개의 상이한 서사가 결합된 구조이다. 소설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인공인 이적요의 시점이 16장이고, 서지우의 시점이 5장, Q변호사의 시점이 6장으로 되어 있다. 소설의 프롤로그는 이적요가 죽은 후 남긴 노트에 담긴 내용이다. 거기에는 자신이 한은교를 사랑했으며 서지우를 죽였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 시인의 대리인인 Q변호사가 시인의 노트를 읽는 독자가 되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며 에필로그를 말한다. 소설의 중반부에는 한은교가 가지고 있던 서지우의 일기가 시인의 노트와 교차되면서 각자 숨기고 있던 내밀한 비밀이 하나씩 공개된다. 그러니까 『은교』는 이적요의 노트와 서지우의 일기가 보여주는 이야기를 Q변호사가 읽으면서 독자에게 공개되는 액자 소설의 형식을 가진다. 다만, 현재 사건의 진행을 맡은 Q변호사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점인 시인의 이야기를 프롤로그에 두었다는 점은 박범신 작가의 독특한 소설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소설의 바깥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Q변호사와 액자 이야기의 주체인 시인과 서지우의 이야기가 모두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인물들 각각의 감춰진 부분까지 모두 드러내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야기를 소재로 가지고 왔다면 『은교』는 순수한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점에 있어서도 발저는 3인칭 시점에서 인물들을 묘사하다가 편지체 형식의 글에서 1인칭 시점으로 전환한 반면에, 박범신은 1인칭 시점을 고수하면서 인물들의 내면을 철저히 파고들어 밖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사랑에 빠진 남자』에는 아주 많은 인물이 주인공의 주변에 등장한다. 이것은 실제로 괴테가 명망 있는 시인으로서 주변에 많은 인물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작품 속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교』의 노시인 이적요는 괴테와 다르다. 적요(寂寥)라는 필명은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뜻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시세계에만 몰두하려는 시인의 의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필명처럼 살아왔다는 것이 Q변호사의 시선을 통해 드러난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일도 없었다. 개발의 질주와 민주화의 폭풍 속에서도 그는 오로지 시를 썼을 뿐 이름 그대로 ‘적요’를 철저히 실천했다. 자신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음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그의 결벽과 고요한 목소리를 사랑하고 존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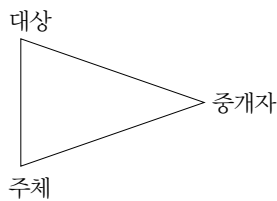
(박범신 2010, 16)

『사랑에 빠진 남자』와 『은교』는 문학 영역에서 명성을 얻은 노작가인 주인공이 신 살이나 차이나는 10대의 소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점, 또한 그것을 묘사할 때 노년의 성과 사랑, 질투 등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서사 구조나 등장인물의 성격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사랑에 빠진 남자』에서 괴테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드 로르와 『은교』의 서지우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드 로르는 17개 언어를 구사하는 유능한 젊은 보석 중개상으

로서 괴테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만, 서지우는 젊은 육체 외에는 아무것도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물이다. 올리케와 은교를 바라보는 노시인의 시각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과 폭력’을 평생의 연구 주제로 삼았고, 그의 첫 저술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Me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1961)에서 ‘삼각형의 욕망’ 이론으로 소설 속 인물을 분석하면서 문학평론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지라르는 주체가 중개자의 욕망을 모방한 모방 욕망을 갖게 된다고 보았으며 주체와 중개자, 욕망의 대상 등 세 요소의 영향 관계를 ‘삼각형의 욕망’이라고 명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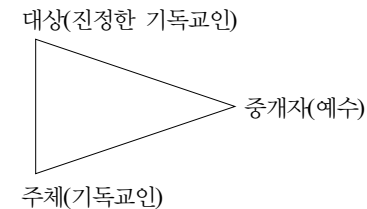


[그림 1]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분석하고 있는 것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이다. 지라르는 돈키호테의 욕망이 돈키호테 내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초월은 자기

가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돈키호테』에서 살펴보면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기사가 되고자 한다. 이때 돈키호테는 주체가 되고 이상적인 기사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 이상적인 기사가 되기 위해서 아마디스라는 전설의 기사를 모방하고 있다. 즉, 돈키호테는 직접적으로 이상적인 기사에 도달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디스를 모방함으로써 진짜 욕망의 대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마디스를 모방하는 것은 가짜 욕망이고 진짜 욕망은 이상적인 기사가 되는 것이다. 이상적인 기사에 도달하려는 돈키호테의 욕망은 아마디스라는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되고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간접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주체의 욕망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거쳐 대상에 이르게 된다(참조 김치수, 2002, 25).

지라르는 이런 욕망의 간접화 현상은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였다. 어느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예수라는 중개자를 모방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도 역시 기독교인과 예수와 진정한 기독교인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형성하여 주체와 중개자와 대상이 된다(지라르 2002, 41).



[그림 2] 기독교인의 '삼각형의 욕망'

돈키호테와 기독교인의 경우를 보았을 때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대상과 그 욕망의 중개자가 삼각형의 구조를 갖게 되고 이처럼 간접화한 욕망을 ‘삼각형의 욕망’이라고 부른다.

이런 방식으로 지라르는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리고 스탕달의 『적과 흑』을 분석하고 있다. 『돈키호테』에서의 중개자와 달리 『적과 흑』의 중개자는 중개자 자신도 대상을 욕망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마디스는 돈키호테와 경쟁을 할 수 없는 중개자이지만 스탕달의 작품 속에 나오는 중개자는 주체와 경쟁할 수 있는 중개자이다. 이 소설의 서두에는 베리에르라는 작은 읍의 읍장 레날 씨와 그의 부인이 산책하는 장면이 있다. 이때 레날 씨가 자기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쥘리앵을 데려올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경쟁자 발르노가 그를 먼저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경쟁의식 때문이다. 즉, 주체인 베리에르는 경쟁자인 발르노가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더욱 더 쥘리앵을 욕망하는 것이다. 지라르는 기독교인처럼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거리가 멀면서 경쟁관계가 없는 것을 ‘외면적 간접화(externe Vermittlung)’라고 하고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거리가 가깝고 서로 침범할 수 있는 경쟁관계가 있는 것을 ‘내면적 간접화(interne Vermittlung)’라고 한다. 하지만 지라르는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고 보았다(지라르 2002, 50).

지라르에 따르면 아마디스를 중개자로 이상적인 기사를 욕망하는 돈키호테나 사교계의 여왕이 되기를 욕망하는 보바리 부인이 가지는 욕망은 중개자와 경쟁관계가 생기지 않는 ‘외면적 간접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스탕달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은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경쟁



관계가 생기는 ‘내면적 간접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현대 소설에 올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이론을 『사랑에 빠진 남자』와 『은교』의 인물들에 적용해보고 그들이 갖는 욕망이 어떤 유형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사랑에 빠진 남자』와 『은교』의 ‘삼각형의 욕망’ 구조

##### 4.1. 『사랑에 빠진 남자』의 행복에 대한 욕망

발저 소설 속의 올리케는 열아홉 살이다. 일흔네 살인 괴테와는 쉰다섯 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이를 이유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과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 역시 괴테의 사랑에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다.

『사랑에 빠진 남자』 속의 명망 있는 대작가인 괴테는 왜 올리케를 사랑하는가? 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가? 그녀의 젊은 육체 때문인가? 소설의 흐름을 따라가며 괴테의 내밀한 속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괴테의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을 통해 제시해 볼 것이다.

소설의 1부 1, 2, 3장에서는 괴테가 올리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있다. 물론 자신과 올리케의 나이 차이를 생각하며 절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리케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다.

지난 2년 동안 괴테는 이 소녀의 마법에 푹 빠져버렸다. 상스럽지 않은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의 풍경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찬란하게 해가 떠올랐고, 풍경은 생기가 넘쳤다. 이제 그녀의 시선, 어떤 저항도 허락하지 않는 시선이 다가왔다. 그 시선을 막을 방법이 없어. 넌 붙잡혔어. 그녀의 포로가 되어버렸어!

(발저 2009, 18)

심지어 그는 2장 첫 부분에서 그녀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도 한다. 괴테는 울리케와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훨씬 밝아져 힘이 넘치고 혈색이 좋아 보인다”(발저 2009, 49)는 인사도 받는다. 괴테는 울리케와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괴테는 늘 울리케와 함께 다니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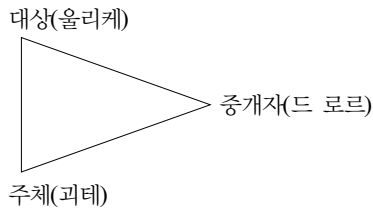
1부 4장에서는 괴테의 질투와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젊은 드 로르를 만나게 된다. 드 로르는 울리케와 능숙하게 왈츠를 추고 즐거운 이야깃거리로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를 본 괴테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울리케와 이루어질 수 없음에 괴로워한다. 또한 젊은 드 로르와 함께 있는 울리케를 상상하며 자신은 젊은 베르테르처럼 자살도 할 수 없으니 글쓰기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지금쯤 침대에 누워 있겠지. 이름이 없는 그 거구가 그녀 옆, 아니면 그녀 위에 누워 있겠지. 처음 만나 이 밤에 그녀가 그 작자에게 순결을 바칠 거라고는 믿지 않으려나. 하지만 누가 알리? (...) 그 작자가 울리케의 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클레벨스베르

크 궁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겠지. 그사이 둘은 키스를 했을 거고…….

(발저 2009, 78)

괴테의 상상은 괴테를 괴롭혔지만 다음날 그와 별일이 없었다는 울리케의 말을 듣고 괴테는 다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괴테의 욕망의 대상은 울리케이고 이런 울리케를 더욱 욕망하게 만든 것은 드 로르가 된다. 드 로르는 17개 언어를 구사하는 외모도 수려한 젊은 보석상이다. 괴테는 드 로르와 울리케가 함께 보낼 시간을 상상하면서 괴로워한다. 만약에 울리케의 마음과 상관없이 괴테 혼자 멋대로 서로 사랑한다고 상상하는 것이라면 그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도 어찌지 못하는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다. 쓰라린 화상(火傷) 같은 사랑. 혹은 한마디 절규처럼, 재앙처럼 느껴지는 사랑이었다.”(발저 2009, 84) 이렇게 울리케에 대한 욕망을 보이는 괴테의 ‘삼각형의 욕망’이 하나 그려질 수 있다. 울리케에 대한 욕망은 드 로르에 대한 질투로 더 거세게 불타오른다.



[그림 3] 괴테의 1차적 ‘삼각형의 욕망’

그러나 소설의 곳곳에서 괴테의 고통과 기쁨 뒤에는 항상 글쓰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베르테르는 자살로 절망에서 구원 받았지만 자신은 ‘늙은 베르테르’로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자신에게는 자살이 아니라 글쓰기만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행복의 끝에서도 글쓰기만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괴테는 스스로에게 “너는 총으로 자살을 하는 대신 글을 써야 할 운명이지”(발저 2009, 74)라고 외친다. 괴테는 울리케와의 합법적인 사랑을 알리는 소설을 쓰고자 결심한다. 소설의 제목은 ‘사랑에 빠진 남자’(발저 2009, 106)이다.

이 소설의 결말은 행복하다. 인생에 대한 힘겨운 부정을 향락적인 언어로 포장한 글은 쓸 만큼 썼다. 해결을 끌어내고자 하는 쓸데없는 긴장을 털어버린 어조, 부조화와 조화도 없는 어조, 무(無)에서 자기 자신에게 토로하는 어조로 써나갈 것이다.

(발저 2009, 106)

괴테와 울리케가 가장 무도회에서 서로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젊은 베르테르와 로테로 분장하고 열정적인 춤을 추고난 후 괴테는 울리케에 대한 사랑을 더욱 더 확신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트 대공에게 자신의 청혼을 울리케 어머니에게 전해주길 부탁한다. 울리케의 어머니 레베초프 부인은 괴테의 아들과 며느리가 반대할 것이 염려된다고 청혼을 정중하게 거절한다. 게다가 괴테와 울리케의 사이를 떼어 놓기 위해 세 딸을 데리고 카를스바트로 떠나버린다. 괴테도 바이마르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카를스바트에 들르지만 레베초프 부인의 감시 아래 울리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한다. 괴테와 울리케는 카를스바트에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그는 그녀의 그림이 미래를 만들어나가라는 요구로 들렸다. 그건 곧 글쓰기를 의미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마차 안에서 연필로 여행일지에다 글을 썼다. 그는 첫줄을 쓰는 순간 이것이 비가(悲歌)가 되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발저 2009, 188)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마리엔바트의 비가」가 바이마르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쓰여 진다. 3부는 괴테가 울리케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도 그의 감정의 기복은 상당히 심한데 그는 글쓰기에서 구원받는다든 고백을 한다. 그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가를 울리케에게 보낸다.

울리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고백할게. 내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지. (...) 글을 쓰지 않으면 나는 살인을 했을 것이고, 그걸 막으려고 글을 썼다는 내 고백 말이야. 베르테르 이후. 사랑하는 울리케, 이제 난 비가를 써. 지금은 ‘쓴다’는 게 날 구원하지.

(발저 2009, 217)

그러나 울리케의 답장을 받은 괴테는 또 다시 상심한다. 젊은 보석상 드 로르가 10월 31일에 슈트라스부르로 울리케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다. 물론 그녀는 관심이 없지만 그녀의 어머니 레베초프 부인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괴테는 지난 번 레바인 박사의 약혼식 날 밤처럼 다시 질투로 괴로워한다. 그리고 울리케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찾고자 노력한다. 12월 31일 송년을 같이 보내자는 울리케의 편지에 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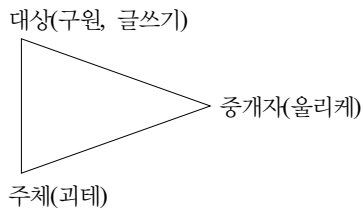
나마 다시 울리케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켰던 괴테는 레베초프 가족이 바이마르에 와서도 자신을 만나지 않고 ‘비겁하게’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마음을 추스른다. 이때 괴테는 지금까지 스스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란, 사실은 자신이 울리케를 통해서 창작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울리케를 욕망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욕망일 뿐이었고 그의 진정한 욕망은 글을 쓰고자 하는 창작욕이었다. 그는 자기 내면에 있는 창작욕을 울리케를 만남과 만나지 못함을 반복하면서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창작욕으로 인해 자유, 즉 구원을 느낀 것이다.

그는 자유로웠다. 의심할 나위 없었다. 그에겐 사랑이 없다. 그 사랑 없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광활함이 느껴진다. 그것이 공허함이든, 아니면 모든 감성을 뛰어넘는 비감성이든. 그는 구원받았고 자유로웠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였다.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였다.

(발저 2009, 317)

역사적 사실의 유무를 떠나 발저가 묘사한 괴테는 울리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너머에는 글쓰기에 대한 염원이 있었다. 괴테를 유일하게 구원해주는 것은 바로 글쓰기였다. 이것은 작가로서의 발저와 박범신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마르틴 발저 역시 자신은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Walser 2010, 140). 또한 박범신도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내부에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무언가, 즉 늙지 않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적 자이라고 말했다(홍유진, 2012, 23). 『사랑에 빠진

남자』속 주인공 괴테는 울리케와의 이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때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빌헬름 마이스터(Wilhelm Meister)』와 『파우스트(Faust)』 집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다(Zwieg 1971, 134). 따라서 자신의 내밀한 자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괴테의 ‘삼각형의 욕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4] 괴테의 2차적 ‘삼각형의 욕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괴테에게는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삼각형에서는 주체인 괴테와 중개자인 드 로르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는 ‘내면적 간접화’가 나타났고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외면적 간접화’가 일어났다.

#### 4.2. 『은교』의 노년 작가의 ‘영원성’에 대한 욕망

일반적으로 『은교』를 분석할 때 어린 소녀 은교를 흔히 노년 작가 이적요의 욕망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소설을 분석할 때보다 영화 <은교>를 분석할 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는 노년의 시인(늙은 남자)이 열일곱 살의 은교(어린 여자)를 욕망한다는 선정적인 상업주의에서 기인한 오해일 뿐이다. 돈키호테가 이상적인 기사가 되길

욕망하고, 보바리 부인이 사교계의 여왕이 되기를 욕망하는 것처럼 이적요는 ‘순결함’과 ‘영원성’을 욕망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노시인 이적요가 은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제자 서지우와 은교의 젊음에 반해 자신은 늙은 노인인 지나지 않음에 절망하는 것이다. 은교에 대한 욕망이 좌절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나이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 나는 한은교를 사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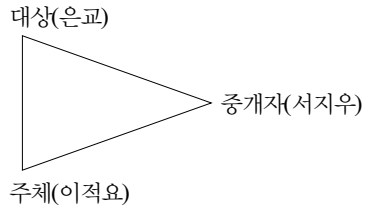
사실이다. 은교는 이제 겨우 열일곱 살 어린 처녀이고 나는 예순아홉 살의 늙은 시인이다. 아니, 새해가 왔으니 이제 일흔이다. 우리 사이엔 오십이 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 당신들은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 변태적인 애욕이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부정하진 않겠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사랑의 발화와 그 성장, 소멸은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가 없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설파한 것은 명저 『광세』를 남긴 파스칼이고, 사랑을 가리켜 ‘분별력 없는 광기’라고 한 것은 셰익스피어다. 사랑은 사회적 그릇이나 시간의 눈금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본래 미친 감정이다. 당신들의 그것도 알고 보면 미친, 변태적인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고 싶지만, 뭐 상관없다. 당신들의 사랑은 당신들의 것일 뿐이니까.

(박범신 2010, 12)

프로로그에서 시인의 노트에 적혀 있는 이 글을 보면 모든 독자가 이적요가 은교를 사랑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사랑이 은교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리고 제자



인 서지우의 젊음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늙은 몸을 한탄하여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를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으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그림 5] 이적요의 표면적 ‘삼각형의 욕망’

그러나 계속해서 밝혀지는 노시인의 생각에서 은교를 단순히 한 명의 여성으로 욕망한 것이 아니라 은교를 통해 구원의 빛을 봤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적요는 은교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교라는 중개자를 통해 ‘순수’와 ‘청춘’, ‘영원성’을 욕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적요의 욕망을 다음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처녀’라는 어휘가 얼마나 신비한지 너는 모를 테지. 시간의 장애는 이럴 때 나타난다. 어떤 낱말에서 각자 떠올리는 이미지의 간격은 때로 저승과 이승만큼 멀거든. (...) 너에게 처녀는 그냥 처녀일 뿐이겠지만, 나에게 그것은 처음이고 빛이고 정결이고 제단이다. 예로부터 신과 소통하는 신관도 ‘처녀’이고 신께 바쳐지는 제물도 처녀였어.

(박범신 2010, 94)

‘시적 천재성은 곧 신성’이라고 생각한 이적요는 ‘신성’과 소통하게

하는 존재로 은교를 절대화한다. 또한 은교는 그 신성으로 가는 희생양이 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적요는 은교 자체를 가지기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교를 통해 ‘젊음’과 ‘영원성’을 욕망한다. 이것은 작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홍유진은 인터뷰에서 ‘『은교』에서 욕망을 위협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고 하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박범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욕망은 가치중립적인 거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노인의 욕망이라고 나쁘고 젊은이의 욕망이라고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닌 거야. 그건 이미 이광수가 『무정』을 쓸 때 이 세계에 선언한 적이 있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꽃을 보고 예쁘다고 감탄하는 걸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일곱 소녀 예쁘다고 하는 건데 왜 욕하는 겁니까. 은교라는 인물은 일종의 관념에서 튕겨져 나온 캐릭터예요. 불멸, 영원성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 진선미를 갖춘 완전한 것, 이를 수 없는 꿈같은 것……. 한 표상으로 은교라는 인물을 설정한 거지, 그걸 단지 열일곱 살의 육체를 가진 여자로만 보면 안 돼요.

(홍유진 2012, 20)

이적요는 프롤로그에서 은교를 사랑했다는 고백과 함께 서지우를 자신이 죽였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서지우를 죽인 이유가 서지우가 자신의 서재에서 은교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다. 서지우가 자신이 사랑하는 은교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프롤로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지우가 신성에 비유되는 은교를, 은교의 순결함과 영원성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오해하진 말라. 반성문 따위나 쓰자고 이 글을 남기는 건 아니다.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 회한도 없다. 서지우는 죽어도 좋은 무가치  
한 인간이었다. 그는 문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작가로 살았고,  
끝끝내 시를 한 편도 이해하지 못했다. 대체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작가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박범신 2010, 13)

또한 이적요의 은교에 대한 사랑은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이다. 은교는 ‘늙음’이 욕망하는 ‘젊음’이며 예술가가 욕망하는 ‘진정한 예술’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김엘레나 2015, 37). 노시인 이적요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순결함의 상징이자 영원성의 대변자인 은교의 행복을 지켜주고자 한다. 어느 날 이적요, 서지우, 은교가 함께 등산을 간 곳에서 은교가 어머니에게 받은 소중한 손거울을 떨어뜨린다. 울먹거리는 은교에게 서지우는 똑같은 것을 사주겠다고 화를 내지만 노시인은 낭떠러지 계곡으로 내려가 은교의 손거울을 찾아다 준 것이다(참조 박범신 2010, 321).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은 젊은 청년이 되었다. 은교는 또한 노시인 자신이기도 하다. 서지우의 품에서 숨막혀하는 은교를 상상하던 시인은 자신도 역시 숨구멍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은교와 동일시한다. 은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적요는 은교가 진정한 신성이었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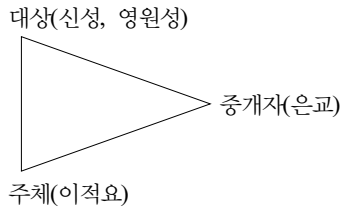
내 마음속 영원한 젊은 신부, 은교

(...) 너로 인해, 내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것을 나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다. (...) 네가 일깨워준 감각의 예민한 촉수  
들이야말로 내가 썼던 수많은 시편들보다 훨씬 더 신성에 가깝다

는 것을 알았고, 내가 세상이라고, 시대라고, 역사라고 불렀던 것  
들이 사실은 직관의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의 감옥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박범신 2010,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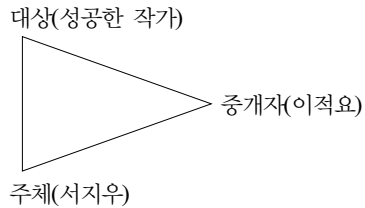
이적요의 욕망을 삼각형으로 그린다면 『사랑에 빠진 남자』의 괴테처  
럼 두 가지 모양의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적요의 욕망을 보여주는 삼각형이며, 다른 하나는 이적요가 진정 마음  
으로 품고 있던 정신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삼각형이다.



[그림 6] 이적요의 정신적 ‘삼각형의 욕망’

『은교』에서는 이적요의 ‘삼각형의 욕망’뿐만이 아니라 이적요의 제자  
서지우의 ‘삼각형의 욕망’도 논의 될 수 있다. 서지우는 우연히 대학 때  
노시인의 수업을 청강한 후 10년이 지나서 갑자기 시인을 찾아와 제자가  
되고 가족처럼 노시인과 가까운 사이가 된다. 이적요 역시 서지우를 아들  
처럼 여기며 생활한다. 그러나 서지우는 문학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다.  
결국 이적요는 자신의 작품을 서지우의 이름으로 발표하자는 제안을 하  
고 두 사람은 공범자가 된다. 서지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시인처럼 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노시인처럼 성공한 작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적요는 뛰어난 시인이었고, 소설이나 수필 같은 미발표 원고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장이다. 그는 자신의 미발표 원고를 제자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해서 제자를 단번에 인기 작가로 만든 실력자이다. 서지우는 세 권의 소설을 발표했는데 모두 이적요의 작품이었다. 서지우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은 이적요와 같은 성공한 작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는 서지우이고 대상은 성공적인 작가이며 자신이 성공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 모방하는 사람은 이적요가 된다.



[그림 7] 서지우의 정신적 ‘삼각형의 욕망’

그런데 그는 왜 은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적요가 은교를 욕망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지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적요의 욕망의 대상인 은교를 욕망함으로써 이적요와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고 은교를 차지하는 것이 경쟁에서의 승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여기에서 지라르가 말한 ‘내면적 간접화’가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 관계에서 지지 않기 위해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사회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지우의 ‘삼각형의 욕망’에는 은교가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로지 이적요가 욕망하는 은교

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이 성취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서지우는 이적요의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은교가 아니라 ‘순결함’과 ‘영원함’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서지우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일기에서 나타내고 있다.

나는 프로그램에서 일부러 ‘일흔 살이 다 된 노인’이라는 말을 했고, ‘불능’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본능은 시공창. ‘본시창’이라고 나는 덧붙였다. (...) 그리고 이내 카메라 앵글을 넘어, 나를 보고 있을 선생님을 쓱 노려보았다. (...)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이적요 선생님. (...) 그러므로 ‘일흔 살’과 ‘불능’과 ‘본시창’은 단검이 되어 그의 갈빗대 사이를 파고들 것이 틀림없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얼굴이 벌게졌을 노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박범신 2010,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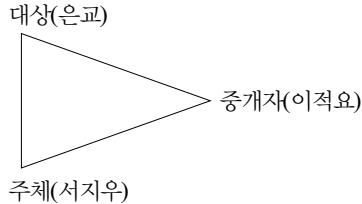
서지우는 의도적으로 이적요를 자극하고자 했다. 스스로 이적요가 될 수 없었던 서지우는 이적요를 자극하여 은교를 더 욕망하게 한 후에 자신이 은교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적요를 이기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의 마음속에는 이적요에 대한 질투와 선망, 사랑이 모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선생님이 가진 욕망의 빛깔이 내가 건드려준 자극을 통해 더 불온하게 변화하기를 강력히 바랐다. 이를테면 ‘손녀딸’보다 더 어리다는 인식으로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은교를 향한 에로스적인 욕망이 당신 내부에서 참지 못하고 발화되어 터져 나오기를. (...) 발화만 이루어지고 나면, 불길은 이내 활활 번져 내가 세상에

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을 통째로 태울 것이다.  
어쩌면 나까지도.

(박범신 2010, 86)

그러나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온 서지우는 이적요를 보며 통쾌한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 그는 노시인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질투하며 끊임없이 노시인을 욕망하고 있다. 이적요의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은교라는 어린 여성이 아니라 은교를 통해 바라본 “청춘의 광채와 위로”(박범신 2010, 194)라는 것을 서지우가 알았다면 이들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서지우의 ‘삼각형의 욕망’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서지우의 표면적 ‘삼각형의 욕망’

결국 노시인은 ‘젊음의 광채’이자 ‘영원성의 상징’이며 ‘자기 자신’이었던 은교를 범한 서지우를 죽이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그의 계획은 사전에 서지우가 알아채고 방지함으로써 무산된다. 그러나 서지우는 결국 사고로 죽게 되며 노시인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자신의 짓이라고 생각한다.

## 5. 행복을 향한 욕망

발저의 『사랑에 빠진 남자』와 박범신의 『은교』는 비슷한 시기에 독일과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두 작가 모두 많은 작품을 창작하며 자신들의 나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노작가들이다. 또한 두 작품은 모두 수려한 문장과 아름다운 표현들로 인해 언어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은교』가 출판되었을 때 두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와 『은교』는 문학적인 영역에서 명성을 얻은 노작가인 주인공이 쉰 살 이상 차이나는 10대의 소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묘사할 때 노년의 성과 사랑, 질투 등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서사 구조나 등장인물의 성격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였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1부와 2부에서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다가 3부에 가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뀐다.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될 때도 고티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서술이 곳곳에 드러나지만 1인칭 시점이 되면서 고티의 내면이 더 내밀하게 묘사되었다. 『은교』는 세 명의 시점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인물의 시점으로 보는 것에 비해 내용의 왜곡을 피할 수 있었다.

구성과 내용을 간단히 비교한 후 작품의 주인공인 노년에 이른 두 작가의 욕망을 르네 지라르의 소설 분석이론인 ‘삼각형의 욕망’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이론을 먼저 살펴 본 후 『사랑에 빠진 남자』와 『은교』의 노작가의 경우를



탐색하였다. 지라르는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경쟁이 없는 ‘외면적 간접화’와 주체와 경쟁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내면적 간접화’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분석 결과, 두 작품에는 두 가지 경우의 간접화가 모두 나타났다.

또한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을 적용한 결과 노시인 괴테와 이적요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욕망과 그들이 진정 추구하는 욕망이 달랐다. 괴테와 이적요는 단순히 올리케와 은교를 여성으로 욕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중개자로 삼아 진정한 ‘행복’과 ‘구원’과 ‘영원함’을 욕망하였다.

## ■ 참고문헌

### 1. 국문

- 김명석(2016): 「박범신 소설 『은교』의 욕망 구조와 서사 전략」, 『한국문예비평연구』 50집.
- 김엘레나(2015): 욕망의 글쓰기 : 「나보코프의 『롤리타』와 박범신의 『은교』」,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김용현·도기숙(2016): 「발저의 『사랑에 빠진 남자』에 나타난 괴테의 질투에 관하여」, 『독일어문학』 73집.
- 김은혜(2013): 『영화 <은교>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김치수(2002):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 박범신(2010): 『은교』, 문학동네.
- 유영희(2012): 「영화 “은교”를 보는 한 가지 시선 -이적요의 소망, 세상에 굴복하고 삶이 무너지다」, 『사고와 표현』, 5권 1호.
- 육현승(2014): 「마르틴 발저의 소설 『사랑에 빠진 남자』에 나타난 ‘늙은 베르테르’로서의 괴테상」, 『독일어문학』 66집.
- 이미화(2013): 「박범신 『은교』에 나타난 노년의 섹슈얼리티 연구」, 『우리문

학연구』 40집.

이채원(2015):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베니스에서의 죽음(Der Tod in Venedig)」(1912)과 『은교』(2010)」, 『비교한국학』 23-1.

지라르, 르네(2002),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김치수·송의경 옮김), 한길사.

홍유진(2012): 「박범신 인터뷰 -늙어도 젊은 것과 젊은데 늙은 것」, 『인물과 사상』 172호.

## 2. 원문

Greiner, Ulrich(2008): “Keine Liebe war es nicht, Zeit Online”, 21.02.2008.  
<http://www.zeit.de/2008/09/L-Walser>

Hellström, Martin(2010), “Der alte Liebhaber und Kunst. Zu Martin Walsers Angstblüte und Ein liebender Mann”. in: Hellström, Martin/Platen, Edgar(2010), *Alter und Altern. Zur Darstellung von Zeitgeschichte in deutschsprachiger Gegenwartsliteratur*(VI), 53~82.

Kaiser, Joachim(2010): “Die Leiden des alten Werthers”, Süddeutsche Zeitung. 17.05.2010.

Lovenberg, Felicitas von(2008): “Augenkraft, die nichts verbergen kann”, Frankfurter Allgemeine, 23.02.2008.

Megenau, Jörg(2008): *Martin Walser*, Rowohlt, Reinbek. bei Hamburg.

Palver, Wolfgang(1998): *René Girards mimetische Theorie im Kontext kulturtheoretischer und gesellschaftspolitischer Fragen*, Stuttgart.

Walser, Martin(2008): *Ein liebender Mann*, Rowohlt, Reinbeck bei Hamburg.

박종대 옮김(2009): 『괴테의 사랑』, 이룸.

\_\_\_\_\_ (2010): Im Spiegel-Gespraech “Nicht ohne Liebe”. In: Der Spiegel, 15.03.2010. 136~140.

Zweig, Stefan(1971): *Sternstunden der Menschheit*, Fischer.

---

\* 이 글은 학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줄고 「노년의 욕망과 행복-마르틴 발저의 『사랑

에 빠진 남자』와 박범신의 『은교』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77집, 225~247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 인간 심리와 행복, 그리고 행복한 사회\*

곽정연

## 1.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멈추어라,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아!(Verweile doch, du bist so schön!)”(Goethe 1964, 348)라고 감탄할 수 있는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파우스트는 악마인 메피스토에게 영혼까지 내어준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주고,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게 돕고, 돈과 명예를 주지만 파우스트는 만족해하지 않는다.

사람들 대부분은 메피스토처럼 돈과 명예, 건강과 젊음,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은 쟁취하는 순간에 잠시 동안 기쁨을 주지만 곧 그러한 상태에 익숙해져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는 이러한 외적 조건이 일정정도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은 빈곤 상태를 벗어날 때까지는 행복도에 기여하지만 그 수준을 벗어나면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sup>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외부적 조건은 인간이 즐거움을 느끼는 데 어느 정도까지는 기여하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독일의 천재적인 작가이자 정치가이고 과학자였던 괴테는 그가 한평생을 바쳐 집필한 비극 『파우스트』에서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주인공 파우스트는 자신의 이상향을 건설한다고 믿으면서 완전한 행복감을 맛본다. 하지만 장님이 된 파우스트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소리를 자신이 그리던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행복은 그렇게 환상이나 착각 속에서 한 순간 맛볼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순간순간 맛보는 행복감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쟁취하기 힘든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탐구에서 사회적인 차원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을 배제하고 혼자서 누리는 행복은 이웃의 시기와 미움을 받기 때문에, 또는 불행한 이웃을 보고 느끼는 연민 내지는 죄책감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인간이 삶을 사는 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에 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시대별로 대표적인 행복에 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 글에서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 입각하여 한 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조건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여러 국제기구의 조사 자료에 의거하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예로 2006년 7월 영국 레스터(Leicester)대학 화이트(Adrian White) 교수가 세계 178개국에 대한 여러 국제기구의 조사 자료에 입각하여 제작한 세계행복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102위였다(김성동 2008, 142).<sup>2</sup> 그동안 경제적 고도성장에 매진했던 한국사회가 중요한 삶의 질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복에 관한 성찰은 우리의 삶을 반추하면서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 2. 신, 이성, 육체, 그리고 행복

표준국어대사전은 ‘행복’을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한다.<sup>3</sup> 한국어 ‘행복’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eudaimonia”는 ‘잘’을 의미하는 “eu”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daimonia”의 합성어이다. 이는 ‘신적인 것이 잘 뒷받침해주는 상태’,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상태’, ‘신이 지켜주는 마음의 평화 또는 평안’ 내지 ‘신들이 좋아하는 삶’이라고 해석될 수 있

다. 행복은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만족감, 즐거움, 기쁨, 평안감과 같은 인간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이다. 단지 서양에서는 신과의 연관성에 비중을 더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흐뭇한 상태가 일시적인 심리상태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행복은 삶의 목적 및 방식과 관계된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관심사로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지속적인 연구주제였고, 고대부터 많은 사상가는 행복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도덕과 삶의 문제를 자신의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행복은 도덕을 실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도 도덕과의 연관성에서 행복을 논하지만 행복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데 있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 행위의 최종 목적이자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인간의 “최고선(summum bonum)”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하여 덕스러운 삶을 살 때 행복은 성취된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에 따르는 행복에 관해 설명한다. 첫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적 만족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향락적 삶(bios apolaustikos)을 통해 동물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둘째,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 삶(bios politikos)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적인 피상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셋째, 이성을 활용해 진리를 탐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신을 모방하는 관조적인 삶(bios theoretikus)으로 초월적인 신의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 행복은 육체에 예속되어 있고, 두 번째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

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면, 세 번째 행복은 가장 자족적인 완전한 행복이다. 따라서 관조적인 삶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삶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유,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말한다. 충동을 통제하여 중용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덕을 통해 얻은 행복을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예의법도에 따라 중용의 덕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긴 유교사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중세의 기독교 사상과 접목시킨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4/25~1274)는 인간은 신과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신의 은총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적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삶으로 보았지만 사변적인 학문을 연구한다는 의미의 관조로써는 인간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신과의 합일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은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며 완전한 지성을 통해서 비로소 지속적인 완전한 행복은 얻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닌 내세에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절대자인 신을 세계의 궁극적 원리로서 생각했던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행복을 윤리학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서 이처럼 행복의 문제가 신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행복담론에서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범주에 속하는 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담론들을 행복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충분히 논증적이지 못하다. 또한 인간 자체가 아닌 이념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공허하다.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행복을 선천적으로 이성이 결여되고 뒤틀려 있는 여성이나 노예는 누릴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행복론은 행복을 특정 집단



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신의 권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근대에 들어서는 인간의 행복을 인간 자체,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생각했다. 인간은 더 이상 인간 외부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운명을 형성해나가는 자율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근대철학의 기반을 마련한 칸트(1724~1804)는 행복을 도덕과 분리하였다. 행복은 경험에 바탕을 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성을 극복해야 하는 도덕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칸트는 이성과 감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생각하면서 도덕법칙은 이성적인, 그리고 행복은 감성적인 기원을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도덕을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선험적인(a priori) 보편타당한 법칙성으로부터 정립하고자 한다. 칸트에게 있어 최고선은 실천이성이 그 실현을 명령하는 과제로서 주어진 이념이지 그것이 감성계에서 실현되는 행복에 근거하지 않는다. 행복은 도덕의 근거나 원리가 될 수 없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칸트는 생각하지만 덕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유덕한 행위의 출발점으로 삼는 반면에 칸트는 행복을 유덕한 행위의 결과로서 규정한다.

쇼펜하우어(1788~1860)는 우리의 의식적 사고, 즉 이성자체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의지 내지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망과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려는 욕망을 핵심적인 욕망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자마자 새로운 욕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으로 최대한 감각적 욕망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인간은 단지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이란 이성으로 욕망을 부정할 때 얻어지는 고통이 경감된 상태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복관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한 삶을 주장한 동양의 도가 사상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속적인 행복을 무상하고 허망하다고 느껴 출가하여 생사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는 일도 없고, 세상 명예나 평판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분노도 없고, 오직 열반의 평안함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한 부처의 가르침과도 유사하다(이정호 2007, 169). 그러나 이렇게 욕망을 포기 내지는 극복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소극적인 방법은 자신의 본능을 억압하기 쉽고, 삶에 대한 의욕을 소멸시켜서 결국 삶 자체를 희생시키는 불충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고대부터 세기말까지 주요 사상가가 제시한 행복론에서는 도덕과 윤리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복의 규범적인 특성이 주로 언급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신과 독립시켜 행복에 관한 탐구를 시작하지만 이러한 담론에서 인간의 육체나 감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서문에서 인간 영혼의 감성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를 인간의 이성에 한정하겠다고 밝힌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지배하는 의지 내지 욕망의 중요성을 강조함

으로써 육체, 감성, 무의식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성이 자신의 근원인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이전까지의 행복의 담론에서처럼 이성의 절대적 위치를 주장한다. 이제까지의 행복 담론에서 육체는 도외시되거나 벗어나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sup>4</sup>

서양사상의 행복과 도덕의 담론에서 이러한 육체적 욕망의 억압은 세기말에 히스테리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뚜렷한 신체적 손상을 발견할 수 없는 히스테리는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병으로 인식되었다. 이때 프로이트(1856~1939)는 히스테리의 원인이 신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라는 이론을 펼친다. 이 이론의 틀에서 그는 히스테리 증상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무의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무의식에 억압되어 증상을 형성하는 심리적 내용이 주로 과거의 성적 체험과 연관된 현재의 성적 갈등이라고 설명한다. 성욕을 히스테리의 병인이라고 주장하는 프로이트는 육체를 경시하는 기독교적 전통 속에 살고 있던 세기말 서양인들의 거센 저항과 비판에 부딪히게 된다.

프로이트는 환자에게 자유롭게 떠오르는 것을 말하게 한 후, 그에 대해 분석가가 질문하고 환자가 답하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치료기법인 정신분석을 개발하여 치료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기법을 통해 환자는 수치심에서 오는 저항을 극복하고,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과 그 발현과정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와 함께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과거의 억압된 기억을 의식화하고 객관화해서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증상뿐 아니라 실연, 망각, 오자와 같은 실수 행위, 꿈, 농담, 그리고 예술작품 등에서도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행동, 나아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의 해석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과 메커니즘을 규명하게 된다.

흔히 오해하듯이 정신분석학은 단순히 인간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에 근거한 자기인식능력이 향상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이성이 무의식적 충동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의식이 병산의 일각임을 밝힘으로써 인간 이성의 허위성과 나약함을 가차 없이 폭로한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정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제까지의 사상가들이 대부분 이성을 감성 내지는 육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육체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규명한다. 정신분석학의 목적은 결국 무의식의 욕망을 이해함으로써 자아의 인식범위를 넓히고, 육체의 에너지까지 포괄함으로써 자아의 영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서양 인문학 담론에서 도외시되었던 인간의 본성, 자연, 육체, 무의식을 행복에 관한 고찰에 끌어들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3. 충동과 욕망 그리고 행복

프로이트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상정한 충동(Trieb)은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경계개념으로, 충동은 긴장을 생산하는 육체적

인 에너지에 의해 작동되지만 충동이 겨냥하는 목표와 대상은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행복을 이렇게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탐구한다.

프로이트는 성충동(Sexualtrieb)과 자기보존충동인 자아충동(Ichtrieb)을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주장한 초기의 이론을 수정해 1920년경부터 생물 개체를 보존하고 그것을 점점 큰 단위로 결합하려는 삶충동(Lebenstrieb)과 유기체를 해체하면서 원래의 무기물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죽음충동(Todestrieb)을 근원적인 충동이라고 상정한다. 인간에게는 종족유지나 개체유지 같은 삶을 유지하려는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여 본래의 상태, 무의 상태, 열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충동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충동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공격충동이 된다.<sup>5</sup>

정신분석학은 이 두 가지의 근원적인 충동의 혼합물로서 표현되는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인간은 쾌감을 느낀다고 본다. 이때 쾌감이란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드」(1923)라는 논문에서 충동이 비축되어 있는 이드, 외부의 권위자와 동일시하면서 사회적 규범과 행동방식을 내면화하는 초자아(Über-Ich), 초자아와 이드, 그리고 외부세계의 요구를 조정하는 자아로 나누어 인간의 정신구조를 설명한다. 상반되는 요구를 조정할 때 자아는 쾌락원칙(Lustprinzip)과 함께 현실원칙(Realitätsprinzip)을 따르게 된다. 자아가 쾌락원칙을 따르게 되면 현실에 상응하더라도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을 억압하고 무시하게 되고, 현실원칙을 따르게 되면 자기 내부에서 오는 자극에서 벗어나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아는 발전할수

록 쾌락원칙에서 벗어나 현실원칙을 따르게 되면서 현실 속에서 더욱 안전하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외부세계를 변화시키게 된다. 즉, 쾌락원칙이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여 그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현실원칙은 고차원적으로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현실원칙을 따르며 자아의 인식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자아를 강하게 해서 초자아와 이드의 위협을 막으려고 쏟았던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는 데 있다. 나아가 인식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축적된 에너지를 활용해 자아가 행복할 수 있도록 외부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프로이트는 「문명속의 불만」에서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행복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는 문화, 문명, 그리고 사회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데, 문화의 기본적인 과제를 압도적인 자연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연력을 지배하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재화를 획득하고, 인간의 상호관계를 조정하여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본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자연력에 대항해 생존의 궁핍함을 벗어나려고 문화를 형성해나가지만, 개개인의 인간들을 통합하여 단일 집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문화는 개인의 근본적인 충동을 억압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죽음충동에서 비롯된 타인에 대한 공격충동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화의 과제가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대대로 유전되어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계통 발생적 유래(phylogenetischer Herkunft)”를 지닌 “태고의 유산(archaische

Erbschaft)<sup>6</sup>인 아버지 살해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부의 권위자를 내면화하면서 초자아를 형성한다. 초자아는 충동의 억압을 강요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지만 공격할 수 없는 권위자와 동일시함으로써 권위자의 엄격함과 함께 권위자를 상대로 발산하고 싶었던 공격성을 받아들여 형성되는 것이다. 초자아에게 자아는 욕망을 느꼈다는 자체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욕망을 채우지 않고 억압해도 죄책감은 남는다. 다시 말해 공격 충동을 억압하면서 초자아가 생겨났고, 이때 공격충동을 수용한 초자아는 공격충동을 억압할 때마다 강화되어 자아에게 공격적이 되어 죄책감을 유발한다.

공동체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초자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문화 초자아는 개인의 초자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이상적 요구를 제시하면서 죄책감을 유발한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자아는 점점 더 충동을 억압해야 되고, 이에 따라 초자아는 더욱 자아에게 공격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문화 속에서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결론이다.

문명은 죄책감을 점점 강화하여 공격성을 제거해야만 집단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의 진보를 위해 인간이 치르는 대가는 죄책감의 고조에 따른 행복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문화의 역동성을 간과한 채 문화를 정태적이고 존재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고(허창운 1997, 105), 문화의 발달과 비례해 인간의 불만도 증가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인간이 문화 속에서 충동을 억압하며 불만을 느낀다는 기본 전제는 설득력이 있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이러한 인간충동의 반사회적 특성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의 메커니즘과 함께 인간 충동을 억압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구조의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인간의 충동이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류에게 숙명적인 문제는 문화의 발달이 인간의 죽음충동, 즉 공격충동과 자기파괴충동에 의한 공동생활의 방해를 제압하는 데 성공할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죽음충동에 개인과 개인을 결합시킬 수 있는 삶충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랑을 삶의 중심에 두는 방식, 즉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만족을 구하는 삶이 우리를 파괴의 위협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는 구성원을 리비도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는 데, 이때 성기의 결합이 목적인 관능적인 사랑인 “성애(genitale Liebe)”보다 목적달성이 금지된 사랑인 형제들 간의 사랑과 우정과 같은 “정애(Zärtlichkeit)”가 구성원들 사이의 항구적인 유대를 만들어 내는 데 적합하다고 프로이트는 설명한다.<sup>7</sup> 성애는 만족을 얻을 때마다 에너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문화 과정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성애가 갖는 배타적 성격 때문에 사회적 단체의 결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Freud, Studienausgabe Bd. 9, 232). 이렇게 충동을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심리적 기제를 승화라고 한다.

승화는 충동을 추진하는 에너지를 치환가능하고 중립적인 에너지로 바꾸었을 때 가능한 데, 프로이트는 성충동이 공격충동보다 더 유연하고 더 쉽게 전용되고 치환된다고 했지만, 공격충동이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아심리학자 하르트만(Heinz Hartmann)은 프로이



트의 이러한 승화 개념에서 중립화(Neutralisierung) 개념을 발전시켜 공격충동도 성충동처럼 중립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적인 에너지 뿐 아니라 공격적인 에너지도 중립화되고, 이러한 탈충동화된 에너지는 자아에 축적되어 현실원칙에 의거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쓰이게 된다(Hartmann 1964, 12). 자아의 현실인식기능을 발전시킴으로써 공격충동의 에너지를 중립화시켜 승화를 도모하고, 승화를 통해 공격충동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때 노동은 충동을 만족시켜줌으로써 특별한 만족의 원천이 된다. 프로이트에게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는 문제는 결국 자신과 현실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느냐와 자신의 충동을 얼마나 승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정신분석학을 관념주의 철학의 변증법적 비판정신에 접목시킨 마르쿠제(1898~1979)는 프로이트가 말한 문화의 억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기본억압과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으로서 지배 계급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추가적인 통제와 권력의 행사를 위한 과잉억압으로 구분한다. 마르쿠제는 승화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충동의 목적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자체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해서 억압적인 현실원칙에서 벗어나 충동자체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승화에 대해 말한다(마르쿠제 1999, 204). 이러한 충동을 승화시킬 수 있는 유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은 현실원칙과 쾌락원칙을 화해시킴으로써 충동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노동에서의 소외를 제거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일에 몰입하는 것이 큰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여러 경험적 연구

에서 입증된 바이다. 이러한 노동의 대표적인 예로서 마르쿠제는 예술을 든다. 프로이트도 예술이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화해시킨다고 했고, 하르트만도 예술은 충동과 자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종합적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하면서(그린버그/ 밋첼, 1999, 421) 예술을 충동과 문화적 요구를 화해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본다. 마르쿠제는 더 나아가 예술을 모범으로 삶 자체를 심미적 태도로 변화시켜야 하다고 설명한다.<sup>8</sup>

이러한 심미적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회의 과잉억압을 거부하고, 인간을 충동을 억압하는 노동의 도구로 만드는 조직에 저항한다. 무의식에 보존된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에 근거해서 억압된 내용을 환기시키는 상상력을 통해 구현된 예술은 현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사회적 유토피아를 지시한다(Marcuse 2000, 29). 마르쿠제는 충동자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승화하여 심미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노동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개선해나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캉(1901~1981)은 자아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천착하는 미국의 자아심리학이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 순응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주체의 갈등관계를 강조했던 프로이트 이론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한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그리고 『농담 그리고 무의식에 대한 관계』에 나타난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을 부각시키면서 라캉은 무의식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적인 자아, 초자아, 이드의 개념을 구조주의적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재편성한다.

상상계에서 자신의 신체 활동을 통제할 수 없는 아이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통제가 가능한 총체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상상적 의식을 발달시키고, 자신이 자율적인 통일체라는 왜곡된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자신의 유약성을 숨기는 이상적 자아(Ideal-Ich)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아이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끌리면서도 아이가 느끼는 실제 몸의 현실이 이 이미지와 다르기 때문에 불안감과 이미지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주체 분열의 요인이 된다. 동시에 아이는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 자신의 완전함과 통일성에 대한 상상적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다. 상상적 질서 속에서 아이는 어머니를 자신의 부분으로 여기고, 자신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완전함을 자신의 완전함으로 간주한다. 상상계에서 인간은 이상적인 이미지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온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어머니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느끼던 상상적 만족감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시기심과 공포감으로 변하게 된다. 어머니와 아이의 이차적 세계인 상상계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 법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욕망의 기표인 팔루스가 되고자 하는 시도인 근친상간적 욕망을 포기하게 된다. 아버지의 이름은 팔루스의 권력과 거세의 공포를 구체화함으로써 근친상간 금지라는 문화의 명령을 체현하는 기표이자 동시에 어머니와 아이의 결합을 분리시키고 아이를 욕망과 결여의 상징계 안으로 도입하는 기표이다. 아버지의 금지로 인해 어머니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게 되고, 자신이 어머니의 팔루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징적 거세가 아이에게 존재의 기본적인 결여를 갖게 만든다. 아버지의 금지에 의해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즉 거세된 아이는 자신의 욕망이 전능하다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규제하는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상징계에 진입한 인간은 대타자가 중재하는 타인과의 상호관계의 세계에, 그리고 언어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실재계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기반을 이루는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충동이 자리 잡은 곳이고, 칸트의 물자체(Ding an sich)처럼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실체이다. 실재계는 억압에 의해 배제된 것으로 감지하기가 불가능한, 상상계와 상징계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지하는 현실은 상상계가 영향을 끼치는 상징계를 매개로 구성되고, 실재계는 이러한 현실의 차원의 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이다. 욕망을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느끼게 되는 불충분함으로 인해 인간은 실재계를 느끼게 된다. 실재계는 상징계 밖에 위치하면서도 상징계의 질서에 교란적 영향을 끼치면서 출몰한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타자로부터 인정받기를 욕망한다. 아이의 욕망은 부모의 욕망을 상상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한다. 상징계적 질서 속에서 모든 주체는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욕망하면서 필연적으로 타자의 욕망에 의해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이러한 상징계적 자아는 욕망을 충족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 실재계를 향하게 된다.

라캉은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실재를 향한 욕망을 순수욕

망이라고 하고, 이러한 순수한 욕망에 충실한 것을 윤리적이라고 설명한다. 라캉에게 있어 주체의 행복과 윤리는 바로 상징계의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우리 인식의 틀 안에서 잡히지 않는 실재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라캉은 죽음충동을 상징계가 설정한 쾌락원리와 금지를 넘어 상징계 너머에 있는 실재에 속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대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향유의지로 해석하고, 이러한 대상에서 느끼는 쾌감을 주이상스(jouissance)라고 부른다.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잃어버린 원초적인 대상,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대상을 물(Ding)이라 칭한다. 라캉에게 승화란 평범한 대상을 물의 지위에 고양시키는 작업이다. 자아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물에 도달하려는 욕망을 인간은 승화를 통해서 충족시키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어떤 대상에 물의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 실재를 경험하면서 잃어버린 대상인 물이 주는 존재결여의 공허감을 환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캉은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먼저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오인에서 빠져나와 타인과의 상호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하고, 나아가 이미 존재하는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과 질서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충족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전통윤리학에서 주장하는 도덕적 규범은 대타자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라캉은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욕망에 근거한 새로운 윤리관을 성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캉에게 있어 행복이란 타자의 욕망 속에서 소외되어 자신을 망각하

고 살아왔던 상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적 작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라캉도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자아의 인식 능력에서 출발하지만 상호주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아의 위치를 상기시키면서 사회의 질서로부터의 주체적인 해방과 미래지향적인 개혁의지를 강조한다.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라캉에게도 죽음 충동을 승화시키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 행복한 사회의 조건

지금까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서 우리의 무의식, 감정, 육체까지 포괄하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입각하여 행복을 사회와 연관지어 탐구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인식하려는 용감한 노력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병리적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타자에 의해 주입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인지할 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때 죽음 충동으로 인해 자기 파괴의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타인의 욕망과 부딪히게 된다. 때문에 타인을 포함한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욕망을 사회에 유용하게 승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실을 인식하고 제대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윤리와도 연관된다. 기존의 윤리가 감성을 도외시하는 차가운 이성애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면, 정신분석학에서 추구하는 우리는 욕체를 도외시하지 않은 자아의 인식에 근거한다. 나아가 부당하게 사회가 우리의 욕망을 과잉억압 할 때는 사회를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과거에 억압된 것이 있는 장소로 규정하면서 과거 시제에 종속시킨다. 이에 반해 라캉은 무의식을 이전에 경험한 중요한 것들을 선취-투사하면서(antizipierend-entwerfend) 구조 짓는 전미래(前未來, Vorzukunft)에 속한다고 설명한다(비드머 1998, 25). 억압된 것을 규명하면서 진정한 욕망을 깨닫고, 상징계, 즉 사회의 질서의 결함을 인식할 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규범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다.

행복은 다시 말해 자기인식과 현실인식, 그리고 승화, 이를 토대로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그리고 충동과 문화적 요구를 화해시킬 수 있는 자아능력의 신장과 불필요한 억압을 실행하고 있는 사회를 개선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쟁취해나가는 것이다.

무의식과 의식이 합일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道)의 경지라면, 이를 정신분석학은 분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달라이 라마는 타인들과 나 사이의 공통된 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늘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결국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물이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분별작용에 근거하여 생겨나는 아견(我見)과 아만(我慢)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안성두 2010, 25). 유교도 모든 사람은 한 마음으로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이상호 2009, 153).

프로이트는 개인 심리에는 실제로 체험한 내용뿐 아니라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중요한 경험의 반복되는 기억, 즉 “계통 발생적 유래”를 지닌 “태고의 유산”이 유전되어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분석심리학자 융은 이 요소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어 타고난,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집단 무의식(das kollektive Unbewusste) 속에서 원초적 또는 근원적 유형인 태고유형(Archetypus), 즉 원형을 이룬다고 한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연관관계를 밝혔다면, 융은 무의식을 의식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형이 있는 무궁무진한 생산적인 에너지의 저장고라고 논증하면서 무의식의 범위를 확장한다. 즉, 무의식 속에 우리는 타인과 공통되는 심리를 지녔고, 타인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자아에 흡수시킬 때 인간의 자아능력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의 행복을 향한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우선 생존에 필요한 물질의 확보와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공격의 위협을 불식시켜야 한다. 즉, 프로이트가 언급한 기본적인 문화의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분배와 관계된 정의는 사회가 구현해야 하는 덕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강조한 덕



목이다. 인간충동을 억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 초자아의 무의식적인 면을 인식하고, 과잉 억압이 없도록 문화 초자아를 제대로 확립하고,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충동의 과잉억압을 지양하는 사회경제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창조력을 발휘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충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가 시간이라도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화해시키는 예술과 같은 행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자아 성장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화해시킬 수 있는 자아 능력을 신장시키는 인문교육과 예술교육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강조하였다.

최근의 정신의학은 정신분석이론을 뇌 연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는다. 의학과 정신분석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승화과정의 상세한 심리적 메커니즘, 승화능력의 요소와 구체적인 한계, 승화와 억압의 관계 등 승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이 성립되길 바란다.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재화의 분배와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경제적 제도 확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인문학적, 사회문화적, 자연과학적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자신을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인식할 수 없는 어리석음은 개인과 개인

의 갈등, 다른 문화와 인종과의 갈등,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를 유발하였다. 자연에 의지하고 살면서 배려와 나눔과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동양적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서양의 이성중심의 사유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밀리면서 우리사회는 무한경쟁, 소비지향주의, 성과지향주의 사회로 변모되었다. 기업이윤의 확대와 그로 인한 주가상승이 모든 경제성과의 기준이 되면서 노동자와 소비자는 영리획득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불공정한 배분은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경제구조 안에서 부국과 빈국간의 소득수준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과 적대감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병리현상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은 토양오염, 사막화, 열대림의 감소, 산성비 피해의 확대 등과 같은 월경성 환경오염문제 등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는 생태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 세계는 지금 매체의 발달, 자본과 상품의 유통,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이한 문화가 역동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혼합되는 다문화시대에 들어섰다. 한국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공생’하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문화를 주류문화에 편입시키거나 ‘동화’시키려고 하여 진정한 공생과 공존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문명 속의 불만”을 수궁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우리의 무의

식에 잠재해 있는 연대의식을 인지하는 현실인식 능력을 신장시키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프로이트가 언급했듯이 행복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 참고문헌

- 곽정연(2005): 「정신분석학과 문화분석 - 낯선 것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93, 262~280.
- \_\_\_\_\_ (2011): 「정신분석학에 입각한 행복에 관한 연구」, 『하인리히 뵐』 11, 90~111.
- \_\_\_\_\_ (2011): 『정신분석 - 정신분석학과 문학비평』,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상환, 홍준기 편(2002):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 김석현(1996):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론에 관한 연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비교해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동(2008): 「행복의 윤리학 시론」, 『철학탐구』 24, 141~164.
- 딜러 에반스(2004): 『라캉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옮김), 인간사랑.
- 맥마흔(2008): 『행복의 역사. 희망과 절망, 쾌락과 은총, 낭만과 비극으로 아로새긴 역사의 이중주, 인류의 상상력과 욕망을 지배한 아주 특별한 기록』 (윤인숙 옮김), 살림.
- 아리스토텔레스(1984):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서광사.
- 안성두(2010): 「특집: 욕망과 행복: 불교에서 욕망과 자아의식」, 『철학사상』 36, 3~32.
- 이상호(2009): 「오복(五福)개념을 통해 본 유교의 행복론」, 『동양철학연구』 60, 133~161.
- 이정호 편(2007): 『행복에 이르는 지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정동섭(2002): 「행복의 심리학」,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4, 232~265.
- 제이 그린버그·스테반 밋첼(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웁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토마스 아퀴나스(2008): 『신학대전 제13권』 (김울 웁김), 바오로딸.

페터 비드머(1998): 『욕망의 전복. 자크 라캉 또는 제2의 정신분석학 혁명』  
(홍준기 외 웁김), 한울 아카데미.

허버트 마르쿠제(1999): 『에로스와 문명, 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김  
인환 웁김), 나남출판.

허창운 외(1997): 『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 민음사.

Freud, Sigmund(1969~1975): *Studienausgabe 10 Bände*, Frankfurt a. M.

\_\_\_\_\_ (1975): *Schriften zur Behandlungstechnik, Studienausgabe  
Ergänzungsband*, Frankfurt a. M.

\_\_\_\_\_ (1993): “Selbstdarstellung”, *Schriften zur Geschichte der  
Psychoanalyse*, Frankfurt a. M.

Goethe, Johann Wolfgang(1964): *Faust, Eine Tragödie*, Hamburg. (Goethes  
Werke Bd. 3)

Hartmann, Heinz(1964): *Ich-Psychologie, Studien zur psychoanalytischen  
Theorie*, Stuttgart.

Jones, Ernest(1984): *Sigmund Freud Leben und Werk*, Band 3, München.

Jung, Carl Gustav(1999): *Archetypen*, München.

Kant, Immanuel(1977): “Mutmaßlicher Anfang der Menschengeschichte,  
Über das Mißlingen aller philosophischen Versuche in der  
Theodizee”, in: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1*, Frankfurt a. M., 83~124.

\_\_\_\_\_ (1990): *Kritik der Urteilskraft*, Frankfurt a. M.

\_\_\_\_\_ (1991): “Träume eines Geistersehers, erläutert durch  
Träume der Metaphysik”, in: *Vorkritische Schriften bis 1768/2*,  
Frankfurt a. M., 919~989.

\_\_\_\_\_ (1991):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Frankfurt a. M.

\_\_\_\_\_ (1992): *Kritik der reinen Vernunft*, 2 Bände, Frankfurt a.  
M.

- \_\_\_\_\_ (1993):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in: *Schriften zur Metaphysik und Logik I*. Frankfurt a. M., 108~264.
- \_\_\_\_\_ (1997):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in: *Die Metaphysik der Sitten*, Frankfurt a. M., 645~879.
- Lacan, Jacques(1991): *Das Ich in der Theorie Freuds und in der Technik der Psychoanalyse*, Weinheim/Berlin. (Das Seminar, Buch 2)
- \_\_\_\_\_ (1996): *Die Ethik der Psychoanalyse*, Weinheim, Berlin. (Das Seminar, Buch 7)
- \_\_\_\_\_ (1996): *Die vier Grundbegriffe der Psychoanalyse*, Weinheim, Berlin. (Das Seminar, Buch 11)
- \_\_\_\_\_ (1996): *Schriften I*. Weinheim, Berlin.
- \_\_\_\_\_ (2003): *Die Objektbeziehung*, Wien. (Das Seminar, Buch 4)
- Marcuse, Herbert(2000): *Nachgelassene Schriften, Band 2. Kunst und Befreiung*, Lüneburg.
- Schopenhauer, Arthur(1977):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Zürich.  
[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0.10.10.)

- 
- \* 이 글은 학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좋고 「정신분석학에 입각한 행복에 관한 연구」, 『하인리히 뵐』 11, 90~111과 「정신분석학과 문화분석 -낮선 것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93, 262~280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 <sup>1</sup> 연 평균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1만 3000달러에 이르는 시점까지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행복지수가 상승하지만 그 지점 이후부터는 수입의 증가가 오히려 행복의 감소를 낳는다(맥마혼 2008, 619).
- <sup>2</sup> 이 연구에서 미국은 23위, 중국은 82위, 일본은 90위였다. 1990년도 갤럽의 국제 비교에서 18개국의 나라의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평균이 7.48이었다. 6.61인 일본, 7.60인 미국에 비해 한국은 5.34로 18개국 중 가장 낮았다(정동섭 2002, 241).
- <sup>3</sup> [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0.10.10)
- <sup>4</sup> 관념주의 철학가 중에 셸링은 자연과 정신의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연을 자아에 포함하여 그의 이론을 개진하지만 인간의 자연과 인간 정신의 상호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 5 죽음충동은 많은 학자들에게 근원적인 충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페렌치(Sándor Ferenczi)와 같은 학자들은 이 이론을 지지했고,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은 공격충동을 자신의 이론의 중심 주제로 삼고, 라캉도 죽음의 문제야말로 경험의 원숙기에 나온 프로이트 이론의 극치라고 칭송한다. 공격성을 성욕의 좌절이나 고통에 의한 이차적인 충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충동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충동에서 파생한 충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공격성이 성욕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의 중요한 문제라는 데는 동의한다(곽정연 2005, 269).
- 6 인류의 중요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 유전된다는 태고의 유산이라는 프로이트의 테제는 융(Carl Gustav Jung)의 “집단적 무의식(das kollektive Unbewusste)”을 연상시킨다. 융은 개인의 무의식이 단순히 개인이 경험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체를 넘어서는 고대에 존재했던 조상들이 경험했던 기억이 이미지와 형상과 같은 원형(Archetypus)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프로이트와 융이 주장하는 유전된 기억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프로이트는 아버지 살해와 결부된 죄책감을 주요 내용이라고 보는 반면, 융에게서 유전된 내용은 출생, 재생, 죽음과 같이 삶 전체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남성 속의 여성적 요소인 아니마(Anima), 여성속의 남성적 요소인 아니무스(Animus),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외관인 페르소나(Persona), 동물적 본성인 그림자(Schatten), 인격을 조화시키고 조절하는 자기(Selbst)와 같은 대표적 태고유형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융은 문화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속의 기억을 세분화하여 개인 무의식의 토대가 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별개의 심리적 심급으로 독립시켜 그의 이론의 중심 주제로 삼은 반면, 프로이트는 유전된 기억을 개인의 무의식에 편입시킨다.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은 인간이 대상들에 대한 선형적인 지식과 이미지를 포함한 계통발생적 유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형적 이미지는 현실 경험의 내용을 담는 토대가 된다(그린버그/ 밋첼 1999, 216). 마르쿠제는 태고의 유산이라는 테제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종족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개인심리학과 집단심리학의 틈을 연결한다고 본다(마르쿠제 1999, 69).
- 7 프로이트는 이성에 바탕을 둔 관용에 의한 결합은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를 제한해 공동체를 지속시키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비도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8 이러한 심미적 태도의 예로서 마르쿠제는 상상력 속에 남아있는 이미지인 오르페우스와 나르시스를 든다. 노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화해시킴으로써 죽음과 파괴를 정복하는 오르페우스와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찬미하며 명상적 삶을 사는 나르시스는 통상적인 에로스를 거부하고 에로스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로스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면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한다. 마르쿠제는 오르페우스와 나르시스를 억압 없는 기쁨과 만족의 대변자로 내세우면서 이 둘 속에서 삶충동과 죽음충동의 화해의 가능성을 본다.

#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인류의 보편적 행복\*

##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세계를 중심으로

최미세

### 1. 예술과 사회, 정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미국의 법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알렉산더 마이클존(Alexander Meiklejohn, 1872~1964)은 정치적 표현에 중요한 매체로 교육, 철학, 과학, 문학, 예술을 언급하면서, 사람에게서는 소설과 연극과 그림과 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투표하는데 이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자신의 저서인 『인간다움의 함양(Cultivating Humanity)』(1997)에서 마이클존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술은 시민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표명한다(Nussbaum 1997).

누스바움이 표명하는 예술을 통한 평등한 시민사회의 구현을 독일의 시인이며 사상가인 프리드리히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는 예술체험에 의한 인간 교육과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는 정신에서 보고 있다. 예술이 가지는 미학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소통코드에

대해서 실러는 자신의 미학서간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에서 다루고 있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는 실러가 1795년 프랑스 혁명을 경험하고 집필한 저서로 예술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실러는 인간이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행동하는 인간으로 성숙하는 데는 예술과의 교감을 통한 미적 체험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미적 체험을 통하여 인간에게 부여되는 행동하는 능력과,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는 총체적 인간형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실러의 사상은 오늘날 문화예술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을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자본으로 상정하는 데 토대가 되고 있다.

예술적 체험이 사회의 진보 및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정치적 신념이나 실천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술과의 교감을 통해 감정의 순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예술적 체험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와의 화해와 외부세계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서사적 상상력을 함양함으로써 능동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연결고리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행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가능케 하여 민주적인 사회적, 정치적 체제 구축에 불가피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사회와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은 문화예술을 배제하려고 했던 정치권의 시도는 문화예술이 민주시민의식을 위한 비판적 사고의 배양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행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 어떠한 예술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예술적 언어를 통한 사회문제의 공론화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의 음악언어를 통하여 예술가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예술적 표현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공론화 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은 우리 시대에서 볼 때 20세기로의 전환기 빈의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대인들에게는 전통과 고정관념의 기준을 흔들여 놓는 음악으로 간주되어서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말러는 보헤미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19세기말 유럽문화의 중심지이며 반 유대사상이 팽배했던 빈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음악인이다. 유대인으로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입장은 말러에게 정체성 혼란과 주변문화로의 동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가로서의 주관성과 더불어 철저한 객관성을 공존하게 했다. 말러는 독일민족적인 바그너의 오페라를 경외했고, 니체의 사상에 심취했으며, 괴테와 같은 작가의 독일문학에서 사유의 출발점을 찾았다.

19세기 말에 빈 문화의 중심권에 있었고, 오늘날 종교음악을 대체할 정도로 범세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러음악의 본질은 무엇이며, 다른 독일 작곡가들과 차별되는 음악을 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도

르노의 표현에 의하면 말리의 음악은 세계 운행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발하고 “균열(Durchbruch)” 시키는 변론이며,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운행에 대한 대응 방식인 것이다. 즉, 균열의 순간은 말리가 패러독스적인 음악언어를 구현하면서 세계운행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순간이다. 말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관계를 음악언어를 통해 작품에 그려내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말리 음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며, 다른 독일어권 작곡가들과 다른 점이다.

19세기 전후의 빈은 유럽의 대표적 음악 도시로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으로 시작하여 슈베르트와 브람스로 이어진 오스트리아 음악의 절정을 구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문화의 지적, 미적 관심사가 태동한 곳으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오스카 코코슈카(Oskar Kokoschka),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후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sthal) 등이 활동하면서 보수와 전통의 대치, 다민족 구성에서 오는 경계의 유연성, 위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고 다양한 시각의 문화를 창출하고 있었다. 칼 쇼스케(Carl E. Schorske)는 『세기말 빈의 정신과 사회』에서 심미적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진 이유를 아버지 시대의 권위주의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반항과 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부장적 문화의 권위에 대한 반항, 전통적인 예술언어의 가치 상실에서 찾고 있다(Schorske 1980, 번역본 41 비교).

말리는 이러한 심미주의 문화 속에서, 특히 독일음악의 완벽함과 궁극에 도달한 것 같은 베토벤과 브람스로 이어지는 교향곡의 전통 속에서 더 이상 교향곡을 작곡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전통적인 예술언어에

서 가치를 찾는 것이 무모한 시도라는 갈등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한다. 쇤베르크, 알반 베르크, 안톤 베베른과 같은 고전적인 양식을 해체하는 음악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러는 반대로 후기 낭만주의를 심화하는 음악을 선택한다. 여러 문화가 교차하면서 독일적인 획일성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열린 시각이 가능했던 세기말의 빈의 문화상황이 말러의 심오한 음악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1860년에 태어나 1911년 세상을 떠난 말러의 인생은 오스트리아의 세기말 상황을 대변한다. 오스트리아는 동·중유럽에 위치한 지형적 영향으로 발칸반도와 동유럽 지역의 다민족을 수용하는 국가로써 표면적으로는 여러 민족의 요구를 참작하면서 자유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왕가와 영주 중심으로 정치조직은 보수적이고 억압적이었다. 1867년 합스부르크 왕가는 지배권을 유지하고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성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제국에 속하는 또 다른 소수민족, 즉 체코와 슬라브 민족과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오스트리아는 민족자결운동을 억압하면서 1879년 독일-오스트리아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은 양 국가 간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 범독일민족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기말 민족주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민족(Volk)”, “민족성(Volksthum)”, “독일성(Deutschum)”과 같은 용어들은 세기말의 독일예술의 사상적 흐름이었으며, 이 개념은 변질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독일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유대주의 사상의 확대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Kravitz 2002, 74~75). 이러한 정신은 세기말 예술 경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말러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

빈 모더니즘의 예술가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나 독일 관념론에 반기를

들었으며, 물질세계를 과학적으로 고찰하는 객관적 사고와 심미적인 사상에 고취해 있었다. 말러는 바그너의 형이상학적 이상이나 쇤베르크와 같은 빈 모더니스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지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의 논리에서 벗어난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고자 했다. 말러는 19세기말 빈 모더니즘의 한 가운데 살면서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과 정기적인 교류를 가졌고 크라우스(Carl Kraus)의 비평을 접하면서 예술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였다.

크라우스는 당시의 빈의 젊은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퇴폐주의나 심미주의에 거리를 두면서, 예술은 사회문제를 공론화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주도한 철학자로 논리적 사변이나 사고에 대한 이론적 체계에 중점을 두는 철학보다는, 사고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언어적 능력에 무게를 두었다. 빈 모더니즘의 예술가들은 독자적인 사유보다는 기법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식과 치장에 몰두하면서 전달하려는 실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세기말 빈의 이러한 예술적 풍토는 말러에게 자신의 사고를 음악언어로 전환하는 방법과 어떠한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게 했다. 사고를 표현하는 언어적 능력과 사회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말러의 고민은 변방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말러의 음악세계를 해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러는 외관을 장식하고 형식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표현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술을 추구하였다. 또한 기존의 온음계 양식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당시의 빈의 귀족이나 부르주아 청중들에서 사회적 문제의식을 표출

하기 위하여 언어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말리의 음악세계는 독일 민속음악 모음집 『소년의 마술피리(Des Knaben Wunderhorn)』의 해석을 통해 표현한 음악언어에 잘 나타난다.

### 3. 말리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의식 - 독일의 전통적인 민요집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말리의 작품세계는 사회주의와 독일민족주의적인 논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세기말 빈의 문화적 토대를 형성했던 사상으로 독일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학생운동을 들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모임으로는 엥겔베르트 페르너스토르퍼(Engelbert Pernerstorfer)와 빅터 아들러(Victor Adler)가 조직한 페르너스토르퍼 서클(Pernerstorfer Circle)을 꼽을 수 있다. 페르너스토르퍼 서클을 비롯한 당시 학생운동의 핵심 사상은 독일전통문화와 독일민족주의 보존이다.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수주의와 전통을 고수하는 귀족층이나 명문집안 자제들의 지적 공론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들은 물질주의와 자유주의의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대항을 목표로 한다. 이 모임은 독일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하지만 비참한 노동자계급의 상황에 대해 토로하고 당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담론을 하는 등 사회주의 성격을 지닌다. 이 모임에서 대다수 회원들은 독일민족주의의 정신을 고수하지만, 이 조직의 핵심인물인 아들러와 페르너스토르퍼는 후에 사회민주당의 지도자가 된다.

당시 빈 모더니즘의 소설가 무질(Robert Musil), 극작가 호프만스탈(Hugo vom Hofmannsthal), 비평가 크라우스와 같은 예술가들은 현실세

계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실세계와 관련이 없는 독일관념론의 추상적, 비표상적, 형이상학적인 정신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물질세계에 입각한 객관적인 과학, 유티주의, 사회적 문제 등에 몰두하면서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을 표출하였다.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러는 독일관념론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과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예술적 언어를 도출하는 것이 예술의 사회참여와 연관된 표현방법을 확장시키는 것이라 믿었다.

독일민속음악 모음집 『소년의 마술피리』는 작곡가 말러가 1900년까지 자신의 중요한 음악들을 전적으로 여기에 기초하여 작곡했을 정도로 말러의 음악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소년의 마술피리의 시에 음악을 붙인 작곡가로는 베버,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등이 있지만 말러처럼 이 모음집에 집중을 한 작곡가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말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을 꼽았으며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거의 모든 가사를 이 민요집에서 채택하였다. 말러는 이 시기에 교향곡 1번에서 4번까지를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에 기초하여 작곡하였다. 음악사에서는 말러가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에서 가곡과 교향곡을 기초한 1900년까지를 말러의 “마술피리” 시대라고 한다.

이 모음집은 아힘 폰 아르님(Achim von Arnim)과 클레멘스 브렌타노(Clemens Brentano)에 의해 1805년에서 1808년 사이에 출판된 민요모음집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랑, 병사, 방랑자, 어린이에 관한 속담과 노래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19세기 초의 다른 민요 모음가들도 그랬듯이, 아르님과 브렌타노도 자신의 시를 수정했는데, 음율 및 맞춤법을

수정한 것도 있었지만, 이상적인 낭만주의적 ‘민속 스타일’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하여 변형한 경우도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요에다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가사를 개작하고 새로운 창작시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전통민요를 보존하려는 데 목적이 두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시대인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민중시의 전통을 통해서 독일민족의 전통문화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의도였다.

전통노래가 많이 변형된 것에 대해 동시대인들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괴테는 1806년 「예나 일반 문예지(Jenaische Allgemeine Literatur-Zeitung)」에 게재한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에 대한 서평에서 이 모음집을 독일민족의 구전전통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이 책을 가리켜 집집마다 피아노 위에 얹어 놓아야 하는 책이라고 평했다. 즉, 이 민요집을 19세기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에서 나타난 이상화된 민속문화의 중요한 원천으로 해석한다.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은 19세기 초반 독일인들이 민속문화를 습득하고, 피아노를 소유할 수 있는 시민계층이 이 모음집에 따라 안락함 속에서 독일민족의 전통문화를 습득하는데 적합하게 개작된 민요집이다. 그렇다면 이 모음집이 20세기 전환기의 말리의 음악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말리는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의 음악형식을 벗어나지 않고 세기말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음악 언어를 사용한다.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은 말리의 마술피리 교향곡이라 불리는 1번에서 4번까지의 교향곡에 영감과 상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말리는 기존의 민속 재료로부터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세계로 변용을 한다. 교향곡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말리

가 독일의 전통적인 텍스트로 어떠한 음악언어를 구현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말러가 1892년에 작곡한 “소년의 마술피리”가곡 중 “천국에서의 삶”은 교향곡 3. 4번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말러의 교향곡 3번의 주제는 “천국에서의 삶”이다. 말러연구로 명성이 높은 음악학자 앙리루이 드라그랑주(Henry-Louis de la Grange)에 의하면 말러는 이 교향곡에 “어린이가 내게 말한 것(Was mir das Kind erzählt)”이란 제목으로 7번째 악장을 계획했지만 삽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3번 교향곡의 7악장은 완성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말러는 “어린이가 내게 말한 것” 대한 대답을 4번 교향곡의 4악장에 삽입된 “천국에서의 삶”을 통해 하고 있다.

“어린이가 내게 말한 것”은 그 당시의 어린이들이 천국에서나 가능한 삶, 즉 현세에서는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러는 4번 교향곡을 1900년에 작곡하지만, 1892년에 이미 “현세의 삶(Das irdische Leben)” 제목으로 가곡을 계획하고 있었다. 말러는 『소년의 마술피리』에 나오는 “이미 늦었네(Verspätung)”라는 원래의 가사를 “현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4번 교향곡의 5악장에 삽입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4악장의 “천국에 삶(Das himmlische Leben)”에 대해 대조가 되는 “현세의 삶”의 현실을 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말러는 실제로 완성본에는 “현세의 삶”을 삽입하지 않았다.

말러는 비인의 부르주아 관중 앞에서 현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세의 삶”에서는 어린아이의 굶주림을 말하고 있다. 아이는 빵을 달라고 계속해서 외치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줄 빵이 없어서 아이의 요구를 뒤로 미룬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이



는 굶주림에 죽게 된다. 즉, 말리는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서 빵을 주기에 이미 늦어버렸다는 말을 음악으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당시 빈 궁정 오페라를 방문하는 관객은 귀족, 명문집안, 고위층 인사, 군인, 사업가, 학자, 공무원 등으로 부유한 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소년의 마술피리를 말리와는 다른 필터를 통해서 수용하였고 말리의 교향곡으로부터 기대한 것도 어린이의 굶주림이 아닌 충만한 삶의 안락함이었다. 말리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가들이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사회지배계층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리는 1898년 빈 궁정 오페라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된다.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말리의 생각은 단지 말리의 직위나 활동경로를 통해서만 알 수 없다. “예술이 가진 사회적 책임”은 말리의 음악언어가 표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4. 말리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어린 시절의 이미지와 빈곤 - “천국에서의 삶”의 의미

“어린이가 내게 말한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면 어린이가 말하는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며, 지금 현세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소년의 마술피리의 시에서의 천국의 삶은 목가적이고 음악의 즐거움과 무엇보다도 먹는 즐거움을 그리고 있다. 말리의 음악에서도 천국에서의 삶은 현세에서 인간들을 기쁘게 하는 음식, 종교,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삶을 의미하는 데 말리의 음악도 이 시에 어울리게 즐겁고 흥겨롭게 묘사된다. 그러나 말리는 4번째 절의 마지막 문장 부분에 E장조의 숭고한 음악을 삽입하면서 “그곳은 음악도 지상과 달라(Kein Musik ist ja nicht auf Erden)”를 반복한다. 말리가 ‘이 부분에서 마치 지상에서의 음악이 어떠할까?’ 하는 질문을 상징적으로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지상에서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현세의 삶의 주제는 어린이의 굶주림이다. 빵을 달라고 외치다가 굶어죽는 어린이의 “현세의 삶”은 “천국의 삶”과 극도로 대조적이다. 즉, “어린이가 내게 말한 것”은 현세에서의 굶주림과 꿈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삶인 것이다. 말리는 3번 교향곡의 5악장에 “불쌍한 어린이들의 구걸하는 노래(Armer Kinder Bettlerlied)”를 삽입하여 간접적으로 현세에서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배고픔을 말하는 어린이에게 음식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달래기만 하는 엄마, 그러는 사이에 굶주림으로 어린이가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 그러나 천국에는 음식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내용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짧은 악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모순적 설정과, 오케스트라가 아닌 어린이합창단이 아침 종소리를 훔내 내며 마치 빵을 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 음악적 진행을 통해서 어린이가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말리의 이러한 음악적 세계는 말리의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말리는 보헤미아의 칼리슈트(Kalischt)에서 태어나 이글라우(Iglau)에서 성장했다. 이글라우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령이었고, 현재 체코의 영토로 체코에서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다. 말리

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체코어가 아닌 오스트리아어(독일어)를 사용하였고, 보헤미아에서 태어났으나 보헤미아 사람도 아니었다. 말러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정체성 혼란과 문화적 동화의 유혹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는데, 이런 상황을 훗날 말러의 아내가 된 알마(Alma Mahler-Werfel)의 회고록에 잘 나타난다.

나는 3중으로 고향이 없는 사람이다. 오스트리아 사람들 중에서는 보헤미아 사람이며, 독일인들 중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람이며, 세계에서는 유대인이다.

Ich bin dreifach heimatlos: als Böhme unter den Österreichern,  
als Österreicher unter den Deutschen und als Jude in der ganzen  
Welt.

(Mahler-Werfel 1940, 108)

또한 말러의 음악언어는 빈의 학창시절과 학생운동 서클에서의 활동 외에도 불우했던 어린시절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러가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에 몰두했던 이유 중 하나는 체코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이 부분은 말러와 같은 체코 출신의 유대인으로 친분 관계에 있었던 프로이트의 오이디프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어머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말러는 소년시절 다섯 명의 형제가 관에 실려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이로 인한 어머니의 슬픔 또한 지켜봐야 했다. 말러의 회고록을 출간한 나탈리 바우어-레히너(Natalie Bauer-Lechner)에 의하면 말러는 깊은 슬픔과 눈물로 가득하지만, 언제나 웃는 모습을 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던 어린 시절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말리보다 네 살 많았던 프로이트는 같은 체코 지방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생의 업적을 쌓아나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말리와 프로이트는 개인적 경험과 자신들의 내면세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외부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프로이트에게 개인적 경험은 정신분석의 원천이었고, 말리에게 어린 시절의 체험은 모순과 역설을 반복하는 그의 음악언어의 근원인 것이다.

말리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작품 외관의 차원에서 발견되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차원에서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음악평론가인 노만 레브레히트(Norman Lebrecht)는 어디에서도 이방인이었던 말리의 입지는 기존의 규칙을 무시할 수 있었고, 다수의 주류가 서로를 제한하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러한 주류층의 승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

가정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모음집의 민요를 노래했을 19세기 중상류층의 독일인들은 이 노래의 가사를 말리와는 다른 필터를 통해 수용했을 것이다. 말리의 어린 시절과 정체성은 어떠한 민속적인 소재에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화하여 패러독스한 작품세계로 표현하는 데 가장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한다.

## 5. 말리의 음악세계와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행복

말리의 음악은 나치가 집권한 1933년부터 유대인의 음악이며 국가사회주의의 예술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폐 음악(Entartete Musik)”이라는 낙인이 찍혀 연주가 금지 되었고, 1945년 후에도 나치에

의해 확산된 편견의 후유증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자신의 편협한 예술적 기준, 즉 예술은 민족적이며 도덕적이어야 하며 아리안 민족의 영원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것이 위대한 예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예술적 안목의 척도로는 “현대”라는 개념은 경박한 유행의 사조와 같은 것이었으며 예술이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베토벤, 리스트, 바그너, 브루크너의 작품을 독일 민족의 불멸성을 표현하는 최고의 예술로 간주하였다. 유대인인 말러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정체성 혼란과 문화적 동화의 유혹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는데, 그의 음악언어는 주관적이지만 엄격하게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러의 음악은 개인적이지만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말러는 개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말러는 교향곡 3번의 4악장에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의 텍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4악장에 알토의 독창가사로 나오는 “오 인간이여! 주의하라(O Mensch! Gib acht!)”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뒷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니체가 1883~1885년에 쓴 이 저서는 말러가 교향곡 작곡을 끝마친 해인 1896년에 이 책의 제목을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의 교향시가 초연되었다. 당시의 두 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가 이 저서를 작품에 적용했다는 것은 니체의 사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준다.

말러는 교향곡의 4악장에 “인간이여! 조심해라! 깊은 밤은 무엇을 말

하고 있는가? 나는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깊은 꿈에서 깨어났다!(O Mensch! Gib acht! Was spricht die tiefe Mitternacht?)”(Nietzsche, 558)를 알토의 아리아로 조용하게 노래하게 한다. 말러는 이 아리아의 텍스트 O Mensch!와 “세계의 고통은 깊다!(Tief ist ihr Weh!)”(Nietzsche, 558) 사이에 바이올린이 단성 찬가를 삽입하는데 이 멜로디는 스페인 작곡가인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Sebastian Yradier)의 유명한 작품인 “라 팔로마(La Paloma)”의 멜로디를 상기하게 한다. 당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의 텍스트와 통속적인 멜로디의 조합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러는 분명히 이 점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vgl. Fischer 2003, 402).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미학자인 아도르노는 이러한 조합에 대해 격상되지 않은 하급한 것이 말러의 음악을 통해서 고급음악 속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면서 말러는 굴욕과 모욕을 당한 음악 질료 속에서 허가받지 않은 행복을 찾아서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고 표명한다(Adorno 1960, 54).

「차라투스트라의 밤의 노래」에서 “오 인간이여! 조심해라!(Mensch! Gib acht!)”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오 인간이여! 조심해라! 깊은 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깊은 꿈에서 깨어났다!  
세계는 심오하다.  
낮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오하다!  
세계의 고통은 깊다!  
환락은 마음의 고뇌보다 더 깊다!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 버리라고.

그러나 모든 환락은 영원을 원한다.  
 깊고 깊은 영원함을!  
 O Mensch! Gib acht! Was spricht die tiefe Mitternacht?  
 Ich schlief, ich schlief -,  
 Aus tiefem Traum bin ich erwacht: -  
 Die Welt ist tief,  
 Und tiefer als der Tag gedacht,  
 Tief ist ihr Weh -,  
 Lust - tiefer noch als Herzeleid:  
 Weh spricht: Vergeh!  
 Doch alle Lust will Ewigkeit -,  
 - will tiefe, tiefe Ewigkeit!

(Nietzsche, 558)

이 교향곡에서 말리가 말하고자 하는 “깨어남”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말리는 이 교향곡의 서주를 위하여 특별히 “판이 깨어나다 (Pan erwacht)”라는 프로그램을 붙였는데, 이 부분의 “깨어남”도 의미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 “판”은 고대 그리스 목양의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alles, ganz, gesamt, völlig)”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Bauer-Lechner 1923, 40~44).

교향곡의 내용을 살펴보면, 1~3악장은 자연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4악장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가사를, 5악장은 “소년의 마술피리”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지막 6악장은 가사 없는 음악으로 진행된다. 말리는 4~6악장을 휴지 없이 연속해서 연주하라고 지시하면서 각각의 악장에서 고독한 인간의 목소리와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

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의 사랑의 안식처로 이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는 이 교향곡의 프로그램은 자연과 인간이 긴 잠으로부터 깨어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그린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말러의 음악적 구성을 살펴보면 당시의 보편적인 방식과 다른  
점을 발견한다. 이와 정반대로 남성적, 영웅적인 테너 중심의 음악적 전  
개에서 탈피하여서 남성 테너를 배제하고 여성 알토, 어린이와 여성합창  
단으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그너뿐만 아니라 독일  
의 어떤 작곡가도 교향곡에서 성악파트를 여성성부, 여성독창, 여성합창,  
어린이 합창만으로 구성한 예는 없다.

말러는 당시에 정통으로 인정받고 있던 바그너 음악에 정반대되는 음  
악적 구성을 선택하면서 편협한 독일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Niekerk 2004, 195).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는 판에서 깨어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연이 아니라 독일 민족주의로부  
터의 깨어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문화학자인 윌리엄 맥그라스(William J. McGrath)는 이 부분을  
19세기 말의 정치화된 미학과 페르너스토르퍼 서클의 사회민주주의 운  
동과 연결시키면서 당시 사회당의 당수인 아德勒의 사회민주주의 운동  
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말러는 음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깨어남을 이  
야기하고 있다(McGrath 1974, 219~223). 말러의 이러한 사상은 페르너  
스토르퍼 서클의 중심적인 이념인 사회주의와 독일민족주의적인 논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3번의 1악장의 시작테마는 브람스 교향곡의 마지막 테마  
와 유사한 “팡파레(Fanfare)”로 잠에서 깨어나라는 “기상신호(Weckruf)”



(Bekker 1921, 113)를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테마에 이어 나오는 선율로 아우구스트 다니엘 폰 빈저(August Daniel von Binzer)의 “우리는 안전한 집을 지었네(Wir hatten gebauet ein stattliches Haus)”가 등장한다.

이 노래는 폰 빈저가 1819년 독일학생 학우회(Burschenschaft)를 위해 지은 곡으로 이 학우회의 상징적인 색깔이며 후에 독일 국기의 색깔인 검정, 빨강, 금색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리는 이러한 독일적인 정서가 담긴 음조를 변형하여 패러디하면서 거룩하고 위대한 장면이 깨어나는 선율을 구성한다. 그러나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환희의 송가(Ode an die Freude)의 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는 정통적인 독일의 예술음악인 브람스 교향곡의 테마와 대학생의 실용음악(studentische Gebrauchsmusik)의 조합이라는 독자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에게브레이트는 말리의 음악은 “고급적인 것과 저급한 것 사이의 다리(Brücke zwischen oberer und unterer Musik)”와 같이 다원주의적 작곡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하위와 상위의 사회적 격차에 대한 반영(Spiegelung der gesellschaftlichen Divergenz von Unten und Oben)”이 말리 음악의 독창성이라고 해석한다(Eggebrecht 1999, 77~78).

말리는 독일민속음악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독일의 전통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말리는 음악을 부르주아 주제에 한정시키려는 기존의 풍토에 대항하면서, 궁극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점을 음악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세기말 빈의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인류가 가진 공통의 문제인 ‘빈곤’을 이슈화하고 있다.

## 6. 인류 공통의 보편적 행복에 대한 말러의 예술적 메시지

말러 음악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상권을 벗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말러의 어법이다.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의 고전음악의 문법에 익숙한 애호가일수록 말러의 예측을 벗어난 어법에 대한 거부감은 더 크다. 말러는 텍스트를 차용하지만 부르주아 주제에 한정시키려는 기존의 풍토에 순응하지 않고 역설과 이율배반적인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현한다. 말러의 음악에 들어있는 소재들은 음악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예측을 불허하는 모순과 이중성을 내포한 작품으로 탄생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말러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외에도 말러의 순탄하지 못한 성장 배경과 빈에서의 학생 서클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러 음악이 난해함과 복잡함을 내재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러가 주변인으로 독일어권 문화에 살면서, 독일문화를 넘어선 보편적인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음악언어에 있다. 유대인인 말러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정체성 혼란과 문화적 동화의 유혹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기의 것을 선택해야 했다. 그의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보헤미아 유대인으로, 오스트리아의 국민이라는 주변인으로서의 입지는 음악언어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주관성과 함께 철저한 객관성을 공존하게 했다. 말러 음악의 독창성은 고급문화 및 민속문화의 전통에서 연유한 음악언어들을 자기화하고 오직 그만의 언어로 총체적인 세계를 묘사하는데 있다.

아도르노는 말러가 고급문화와 하위문화를 자신만의 개인 양식 속에 집어넣은 까닭은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성을 지향하려는 제스처이며, 다

층적이고 총체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본다(Adorno 1960, 47~53). 말리는 전통적인 온음계적 조화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음악을 만들어낸다. 말리의 음악은 말리의 동시대인들이 음악에서 기대했던 고정관념에 대한 파괴이며, 관중들의 고상한 취향과 양식의 기준에서 벗어난 음악이다. 이러한 측면이 오늘날 우리가 말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다. 또한 예술이 가진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예술이 어떠한 매개체로 작용을 하며, 예술이 인류 공통의 보편적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말리의 음악언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술을 통해 인간 존엄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많은 것들을 시사해준다. 폴 W. 칸(Paul W. Kahn)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타인의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행위를 단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이며 저항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Kahn 2014, 118~119).

자기존중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차이와 다원성을 수용하고 존중하게 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민주적인 시민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서사적 상상력을 함양하여 타인의 고통을 대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공감능력을 배양시킨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공감능력은 인권과 시민권의 존중에 대한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된다.

말리가 도처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자기만의 음악언어를 확보하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예술작품과의 조우가 단지 예술작품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예술작품과의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조우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Noten in Partitur der Lieder aus Mahlers Des Knaben Wunderhorn(1892):  
Mainz: B. Schott's Söhne.

Noten und Audiodateien von Mahler im International Music Score Library  
Project.

Nietzsche, Friedrich(1980): Also sprach Zarathustra –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1883-1885. Bd. 4. In: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Sigle: KSA, hrsg. von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München und New York.

von Arnim, Achim/ Brentano, Clemens (Hrsg.)(1806/1808): Des Knaben  
Wunderhorn. Alte deutsche Lieder. 3 Bände. Heidelberg: Mohr und  
Zimmer, Erstausgabe.

### 2. 2차 문헌

권송택(2013): 「바그너, 니체, 괴테에 대한 말러의 재해석」, 『서양음악학』  
16-2호, 101~134.

\_\_\_\_\_ (2015): 「말러 vs. 빈 모더니즘」, 『음악논단』 33집, 29~66쪽.

김문경(2010): 『구스타프 말러』, 밀물.

김수용(2003): 「괴테의 파우스트와 현대의 인본주의」, 『괴테연구』 제15권.  
1~30.

김정숙(2004): 「구스타프 말러의 8번 교향곡에 관한 연구」, 『음악이론연구』  
제9집. 32~68.

최미세(2015):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정체성과 패러독스적

- 인 음악언어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에 기초한 교향곡을 중심으로, 『괴테연구』 28집, 267~287.
- 최미세(2016):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정체성과 패러독스적인 음악언어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에 기초한 교향곡을 중심으로 -제8번 천인교향곡(Symphonie der Tausend)을 중심으로」, 『괴테연구』 29집, 211~238.
- Adorno, Theodor W.(1960): *Mahler. Eine musikalische Physiognomik.* Frankfurt am Main.
- Bauer-Lechner, Natalie(1984): *Erinnerungen an Gustav Mahler.* E. P. Tal & Co., Wien-Leipzig 1923. Revidierte und erweiterte Ausgabe: Herbert Killian (Hrsg.), Knud Martner (Anmerkungen): *Gustav Mahler in den Erinnerungen von Natalie Bauer-Lechner.* Hamburg.
- Bekker, Paul(1921): *Gustav Mahlers Sinfonien,* Berlin.
- Blaukopf, Herta(Hg.)(1996): *Gustav Mahler. Briefe,* Wien.
- Blaukopf, Kurt(1969): *Gustav Mahler oder Der Zeitgenosse der Zukunft,* Wien.
- Borchmeyer, Dieter(2002): *Goethes Faust musikalisch betrachtet. Eine Art Symbolik fürs Ohr. Johann Wolfgang von Goethe. Lyrik und Musik.* Hrsg. von Hermann Jung. Frankfurt am Main.
- Brod, Max(1920): Gustav Mahlers jüdische Melodien, in: *Musikblätter des Anbruch.* Bd. 9.
- de La Grange, Henry-Louis: *Gustav Mahler.*
- Volume 2. Vienna(1995): *The Years of Challenge 1897-1904.* Oxford/New York.
- Volume 3. Vienna(2000): *Triumph and Disillusion 1904-07.* Oxford/New York.
- Volume 4.(2008): *A New Life Cut Short 1907-11.* Oxford/New York.
- Eckermann, Johann Peter(1836): *Gespräche mit Goethe in den letzten Jahren seines Lebens,* Leizig 1836, Johann Peter Eckermann, *Gespräche mit Goethe in den letzten Jahren seines Lebens,* Hrsg,

- von Regine Otto. München 1984.
- Eggebrecht, Hans Heinrich(1997): *Die Musik und das Schöne*. München.  
 \_\_\_\_\_(1999): *Die Musik Gustav Mahlers*, Wilhelmshafen.
- Fischer, Jens Malte(2000): *Richard Wagners Das Judentum in der Musik. Eine kritische Dokumentation als Beitrag zur Geschichte des Antisemitismus*, Frankfurt am Main.  
 \_\_\_\_\_(2003): *Gustav Mahler. Der fremde Vertraute*. Wien.  
 \_\_\_\_\_(2003): *Mahler. Die fremde Vertraute*, Wien. 번역본: 구스타프 말러. 현대음악의 경계를 걸어난 작곡가, 이정하 옮김, 을유문화사 2012.
- Floros, Constantin(1989): Tragische Ironie und Ambivalenz bei Mahler, in: *Musik-Konzepte. Sonderband Gustav Mahler*, München 1989.
- Hansen, Mathias(1996): *Gustav Mahler*, Ditzingen.
- Hiß, Guido(2009): *Synthetische Visionen. Theater als Gesamtkunstwerk von 1800 bis 2000*. München,
- Jenaische Allgemeine Literatur-Zeitung(1806): Jg. 3. Nr. 18, 21. Januar, Sp. 137~144. Nr. 19, 22. Januar, Sp. 145~148.
- Kahn, Paul W(2014): *On Humanities and Human Rights in The Humanities and Public Lif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Kämper, Dietrich(1987): *Die Klaviersonate nach Beethoven. Von Schubert bis Skrjabin*, Darmstadt.
- Kravit, Edward F.(2002): Mahler, Victim of the ‘New’ Anti-Semitism, *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 127/1.
- Mahler-Werfel, Alma(1940): *Gustav Mahler. Erinnerungen und Briefe*. Allert de Lange, Amsterdam.
- Lebrecht, Norman(1987): *Mahler Remembered*, London.  
 \_\_\_\_\_(2010): *Why Mahler?: How One Man and Ten Symphonies Changed the World*. London.
- Liotard, Jean-François(1999): *Das postmoderne Wissen*. Hg. von Peter Engelmann, Wien.

- McGrath, William J.(1967): Student Radicalism in Vienna,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2.
- \_\_\_\_\_ (1974): *Dionysian Art and Populist Politics in Austria*, New Haven. 219~223.
- Menzel, Wolfgang(1828): *Die deutsche Literatur*, 제2권, Stuttgart.
- Moldenhauer, Hans u. Rosaleen(1980): *Anton von Webern*, Zürich.
- Niekerk, Carl(2004): *Mahler contra Wagner. The Philosophical Legacy of Romanticism in Gustav Mahler's Third and Fourth Symphonies*. The German Quarterly 77/2. 188~209.
- Nussbaum, Martha. C. (1997):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orske, Carl F.(1980): *Fin-de-Siècle Vienna: Politics and Culture*. New York. 『세기말 비엔나』. 김병화 번역. 서울 2006.
- Šedivý, Dominik(2011): Das Wiener Hofoperpublikum während der Direktionszeit Gustav Mahlers. S. 33. in: Ottner/Partsch(Hg.)(2011): *Musiktheater in Wien um 1900*. Tutzing,
- Scheit, Gerhard/Svoboda, Wilhelm(2002): *Feindbild Gustav Mahler. Zur antisemitischen Abwehr der Moderne in Österreich*. Wien.
- Schönberg, Arnold(1912): Gustav Mahler, in: *Style and Idea*, Neighbour. 449~472.
- Wildhagen, Christian(2002): VIII. Symphonie in Es-Dur(Symphonie der Tausend), in: *Gustav Mahlers Symphonien*. Hg. von Renate Ulm, Kassel.

---

\* 이 글은 학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줄고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정체성과 패러독스적인 음악언어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에 기초한 교향곡을 중심으로」, 괴테연구 28집, 267~287.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정체성과 패러독스적인 음악언어 -소년의 마술피리 모음집에 기초한 교향곡을 중심으로 -제 8번

천인교향곡(Symphonie der Tausend)을 중심으로, 괴테연구 29집, 211~238을 수정, 보완하였음.